조경학석사학위논문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구로구를 대상으로

Study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reen Spaces based on Local Environment : The Case of Guro-gu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민 경 찬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구로구를 대상으로

지도교수 손용훈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민 경 찬

민 경 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구로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민 경 찬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조경학과학위 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빙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최근 도시 생활권 내에서 공원 및 녹지가 갖는 중요성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공원녹지 이용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적, 사회적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분포하는 도시공원의 유형과 수는 제한적이며 포화된 도시조직 속에서 새로운 도시공원의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의 개선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적으로 분류되는 도시공원 이외에 지역 생활권 내에서 공원처럼 이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 가 분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포함한 공원녹지의 조사와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공원녹지의 확보와 개선이 필요한 구로구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재 구로구에 분포하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GIS 공간자료와 수치지형도,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전반적인 공원녹지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특성,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로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4개의 세부 생활권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의 면밀한 관찰조사와 이용자 조사를 통해 지역과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구로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공간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생활형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여부, 해당지역 내 주요 건물의 역할과 규모, 거주민들의 생활패턴 및 녹지인식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 외 주로 이용되는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하천 녹지, 마을 마당, 동네숲' 등과 같이 공공이 조성하는 공공녹지와, '학교 녹지, 가로 녹지, 옥

상정원 및 공개공지’ 와 같은 공공/공익사업 대상지가 있으며, ‘아파트 녹지, 커뮤니티 경작지, (종교 및 상업시설의) 동네 쉼터’ 처럼 일정부분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커뮤니티가 이용하는 공용공간 등으로 조사되었다.

구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도시공원이 부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공원과 공공녹지의 이용이 집약적이고 복합적인 반면 기타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의 이용은 산발적이며 단순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생활권 내 인접한 도시공원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유휴지 및 나지를 활용한 개인화단, 경작지, 동네쉼터 등의 조성이 이루어지거나 교회, 슈퍼마켓, 세탁소 등 오랜 시간 지역에 자리 잡은 건물의 외부 공간을 일부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 밖의 학교공원화 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생활도로 사업 등 사유지 내 담장으로 갇혀있던 녹지를 공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대체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 외곽에 위치한 자연성이 높은 산지와 하천 녹지의 이용이 두드러지며 이를 연계한 산책로의 활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산지 주변 커뮤니티 경작지, 연립주택 및 노후 아파트 주변 녹지, 주요 골목길과 결절점 상의 소규모 공간’ 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대상들은 앞으로 개선 및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생활권 내에서 실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본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계획 및 평가의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로 대표성을 띠는 유형과 앞으로 개선 및 특화가 필요한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구로구의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이 유사한 다른 자치구에 향후 적용 가능한 조사 및 접근 방법론으로써 활용 가능하다.

구로구와 같이 지역 내 도시공원을 갖추기 어려운 주거환경에서는 기존 공원녹지 자원을 활용하거나 생활권 내에 분포하는 대안적 공간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기존의 도시공원보다 개선 및 확보의 가능성이 높고, 생활과 더욱 밀접하여 소외지역의 녹색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시환경에서 공원녹지 계획의 방향은 조성과 개발이 아닌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미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지역의 현실과 사회적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도시녹지, 생활형 공원녹지, 공원녹지 유형, 공원녹지 기본계획, 지역특성, 구로구

학번 : 2012-22070

목 차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가.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의 필요성

최근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하는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 그동안 공원녹지의 평가는 양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져 왔고, 크고 많은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의 환경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이슈는 점차 도시적 규모에서 지역 단위로 사회적 관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규모가 아닌 생활의 개념이 더 중요시 되면서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의 확보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녹지 이용이 점차 다변화되고, 그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기능과 유형의 공원녹지 확보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생활권 내에서 공원녹지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내에서 공급 가능한 공원녹지의 양은 언제나 제한적이며, 새로운 공원녹지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소외지역의 경우 기존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자원의 발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도시지역 내 많은 사람들은 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외지역의 수요를 일정부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원녹지 관련 조사와 평가는 제도상으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시설녹지에 국한되어 있어 법적 분류 이외의 공원녹지의 가능성과 가치는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공원녹지들은 앞으로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자치구 내에서 관리와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1)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입하는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00개소를 포함해 2017년까지 1천개소의 생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2013.07.15. 연합뉴스)

나.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공원녹지계획의 필요성

각 지역마다 지리적, 사회적 특성이 다르며,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녹지의 인식과 선호도는 서로 다르다. 때문에 지역별로 필요한 공원녹지의 유형과 공급 가능한 대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서로 다른 녹지 환경 속에서 해당지역의 지역성을 높이는 것은 현재 분포하는 공원녹지의 개선과 앞으로 만들어질 공원녹지의 조성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녹의 기본계획[2)]', '그린인프라스트럭쳐[3)]' 등의 구 단위, 지역단위에 이르는 구체적인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질 높은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안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10년 주기 '공원녹지기본계획[4)]'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자치구 단위의 세부적인 계획에 관련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며 해당 관리부처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공원녹지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은 1992년도에 시도되었으나 취지와는 달리 많은 행정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어 90년대 중반 중단되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 자치구별로 여건에 따라 개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5)]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원녹지 관련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피상적인 내용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자치구 내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적인 자치구 계획들은 각 지역별로 일관성이

---

2) 녹의 기본계획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서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 협력을 얻어 관과 민이 일체가 되어 녹지의 보전과 녹화주진에 대한 시책과 계획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제작-2차년도. 2010)

3) 영국의 도시계획정책방침(PPS) 중 지방공간계획(Local Spatial Planning)에서는 그린인프라스트럭쳐를 "자연 및 생태적 프로세스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해 필수적인 도시 및 지방의 복합적 녹지 네트워크"로 정의내리고 있다. (김용국. 2012)

4)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의 공원녹지계획, 광역도시계획의 공원녹지계획,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김봉원 외. 2008)

5) 2012년 5월 기준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개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양재섭 외. 2012)

부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나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의 현황을 잘 나타내며 자치구 레벨에서 공원녹지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시 단위의 광역적인 공원녹지계획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추후 생활형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의 필요성

시가화가 끝난 도시지역에서 앞으로 새로운 공원녹지를 만드는 과정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요구한다. 개인 및 기업, 사회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담장을 허물어 사유지를 공유하거나 버려진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심 내 공공공간 만들기는 최근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원 및 녹지조성과 관련 있는 유사 부처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녹지 이외에 생활권 내 차별성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조성하는 생활림[6]과 자연마당[7]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원녹지가 도심 내에 지속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공원녹지의 유형과 가용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하여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 그 결과 현상공모나 제안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는 비교적 막대한 예산의 투입됨에도 실제 공원녹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형평성 있는 공급의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자치구 레벨에서 새로운 조성 사업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제도상의 도시공원 이외에도 실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녹지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공원녹지가 부족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 내 법적, 비 법적 공원녹

6) 산림청은 2017년까지 자연휴양림 180개소, 유아숲체험원 250개소, 산림복지단지 2개소 등 산림복지공간 850개소를 조성하고, 도시숲 3,000개소와 학교숲 2,300개소를 조성하여 전문가를 배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 속에서 산림복지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2013.07.23. 정책브리핑)

7) 환경부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회복하고 도시민에게 자연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도시에 '자연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2013.05.30. 에코저널)

지 자원들의 분포현황을 살펴보고 이용특성 및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여 양호한 생활형 공원녹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자치구 이하 지역단위의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과, 이를 조사,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추후 생활형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생활형 공원녹지의 개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녹지]의 정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및 시설' 로 정의 하고 있다.[8] 이는 넓은 의미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로써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시설녹지 이외에 다양한 공공공간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생활]의 개념은 일상생활과 같은 의식주 활동 외에도 일, 여가를 취하고 상호 작용에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 직업 생활과 사적 생활, 사회생활 등의 모든 것[9]을 말한다. 이 중 도시 내 주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범위는 통학이나 통근, 쇼핑 및 여가, 친교, 오락 따위의 일상생활을 포함하며 실제 주민의 인식과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개념은 도시 내에서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녹지 공간을 의미하는 [공원녹지]의 개념에 실제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일어나는 [생활]이라는 수식어로 한정하여 '생활과 밀접한 위치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이용을 수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 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였다.

생활형 공원녹지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생활권공원 (또는 생활권공원녹지[10])'

---

8) 공원녹지의 범위는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정의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조)

9) 위키 백과 검색결과 (2013.10)

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연구에서는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념은 이용자들이 근린생활권에서 실제로 접근이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녹지를 포함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정의하였다.

과 '생활공원' 등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11]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녹지공간이라는 개념을 반영하여 생활권공원의 범위를 앞선 법률상의 생활권공원의 범위에 주제공원과 기타공원,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포함한 범위로 확대 설정하였다.[12]

그밖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생활공원의 개념은 "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1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공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쉼터" 로 정의 하고 있다.[13]

[표 1-1] 생활형 공원녹지의 개념과 유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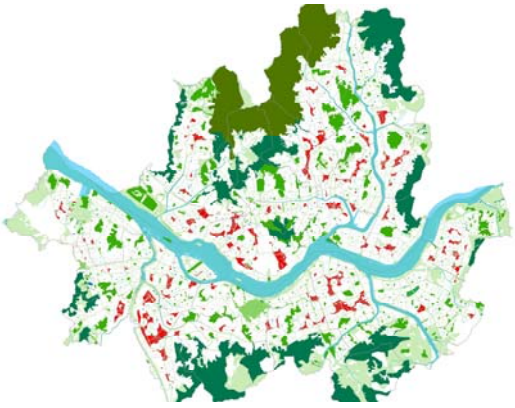
구분	정의	범위
생활권공원 (생활권 공원녹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 (법률)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용자들이 근린생활권에서 실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녹지를 포함하는 공간 (서울시)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을 제외한 주제공원, 기타공원 +도시자연공원8%
생활공원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쉼터	1만㎡ 이하의 도시공원
생활형 공원녹지	생활과 밀접한 위치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이용을 수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	도시공원+도시숲+학교녹지+아파트녹지+하천녹지 +도시 경작지 등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범위는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생활권공원의 범위에 하천녹지와 도시숲, 학교 녹지, 아파트 녹지, 도시 경작지 등 가용한 범위의 공원녹지를 포함한 유연한 범위로 설정하였다. 생활형 공원녹지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유연하게 설정한 이유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민들이 생활 내에서 실제 이용하거나 인식하는 공원녹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제도상으로 규정한 범위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공원녹지 이외에 새로운 공원녹지 대상을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지역 단위의 작은 스케일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5조
12) 국가통계포털(KOSIS) 생활권공원 면적 산출식: (근린공원+어린이공원+체육공원+기타공원)+(도시자연공원x8%)
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4.5)

나. 연구 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원녹지의 평가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매년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을 자치구별로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별 양적 현황을 비교하여 공원서비스가 부족한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생활권공원이 부족한 자치구를 선별하였고, 그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밀집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소외계층의 밀도가 높아 공원녹지를 통한 녹색복지의 확충이 필요한 구로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전체 공원소외지역 면적	
공원서비스 소외지역면적	23.35㎢
공원서비스 소외비율	4.67%
자치구별 공원소외지역 면적(비율)	
구로구	**2.56㎢ (12.62%)**
성동구	1.50㎢ (8.87%)
금천구	1.14㎢ (8.79%)

[그림1-3] 서울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출처: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자료)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생활형 공원녹지의 의의와 범위, 중요성 등을 살펴보고 특정 대상지인 구로구에 적용하여 해당지역의 현황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녹지 분류체계 현행과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생활형 공원녹지의 의의와 활용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수집 가능한 공간정보자료를 바탕으로 구로구의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 및 이용자 분석을 통해 구로구 주요 지역별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3절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가. 생활권공원에 관한 연구

생활권공원에 관심은 서울시 민선 3기가 출범한 2002년 이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공원 확보가 도시계획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활권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에는 생활권공원 조성을 위한 방안 검토 및 관련사업의 검증이 주로 행해져 왔으며, 최근에 들어 근린공원 등 특정유형의 생활권공원 평가와 이용실태 파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김원주(2007)는 서울시에서 소규모 녹지의 양적 증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민참여형 녹지조성모델을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박진아, 최희수(2011)는 서울시가 생활권공원의 양적, 질적 확보를 위해 시작한 대학교 담장개방녹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생활권 공원녹지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있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재정(2012)의 경우 법률상의 개념과 실제 생활권공원의 개념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분류한 서울시 생활권공원 30개소를 선정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표 1-2] 생활권공원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명	주요어
권기찬	1999	생활권 도시공원의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	유치거리 의식평가
김원주	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시민참여
박진아 외	2011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의 생활권 공원녹지로서의 잠재적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	담장개방 녹화사업
이재정	2012	소규모 생활권공원의 용도지역별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도지역 이용실태

나. 공원녹지 유형에 관한 연구

공원녹지의 유형분류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려 연구에 사용되었다. 특히 법적인 공원녹지의 범위 안에서 개념이 모

호하거나 입지에 따라 이용특성이 서로 다른 공원녹지 경우, 유형을 분류하여 실질적인 공원녹지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생활권공원의 구체적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특성 및 이용자 특성을 주된 유형 분류 요인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윤윤정(2007)은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업무시설 우세형, 학교 입지형, 상업시설 우세형으로 구분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유형과 사례별로 어린이 공원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주희, 박진아(2008)는 활용성이 뛰어난 역세권의 소공원을 대상으로 법적인 세부유형으로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였고, 행태분석을 통해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정아, 한상열(2010)의 경우 대구시 전체 근린공원을 접근거리, 공원면적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그 중 생활권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4개의 근린공원을 용도지역별로 선정하여 이용행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1-3] 공원녹지 유형별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명	주요어
박찬용 외	2003	대구광역시 도시근린공원의 유형분석	공간특성 이용행태
이주희 외	2008	역세권내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소공원 이용특성
사공정희 외	2007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가녹지 조성 우선순위 선정	네트워크 유치거리
김효정	2010	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공원관리
윤윤정	2007	주변지역 특성에 따른 어린이공원 활용방향에 관한 연구	어린이공원 지역특성
박정아 외	2010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차별화 방안	용도지역 이용행태
국토 해양부	2010	공원운영체계에 대한 서울시 개선방향 - 도시공원 개발 및 관리운영 전략연구	이용특성 관리난이도
Chris Nicol	2000	Classification and Use of Open Space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Urban Capacity. Planning Practice & Research	여가적이점 심리적이점 서식처로서이점
Peter Harnik	2010	Urban Green : Innovative Parks for Resurgent Cities	행태분석

다. 공원녹지 평가와 특성에 관한 연구

공원녹지를 평가하거나 전체적인 공원녹지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어 최근에

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 행태와 만족도를 고려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설문과 관찰조사를 통해 공원 이용요인을 도출하고,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유일, 김정규(2011)는 각기 다른 공원녹지체계를 갖고 있는 3개시를 대상으로 시민의 녹지인식 차이를 밝히고 공원녹지 인식, 녹지평가 및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성현찬 외 (2008)은 경기도 내 도시공원의 이용적, 환경적 공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욱(2009)은 공원이 입지한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행태관찰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다.

[표 1-4] 공원녹지 평가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명	주요어
김유일 외	2011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만족도,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녹지인식 만족도
김철홍	2002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이용자 특성 및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용특성
이현욱	2009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의 분포특성과 이용행태 분석	행태관찰
박구원	2011	도시림의 이용특성분석-이용자의 속성 및 요일에 따른 이용행태변화	도시림 이용특성
성현찬 외	2008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조성방안	공간분석 이용자분석

2. 시사점 및 차별성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전 큰 스케일의 공원녹지 관련 연구에서 최근에는 세부적인 생활권공원 스케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공원녹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의 행태 분석을 우선시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에서 같은 공원녹지의 유형이라도 입지적 차이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봐야하며, 기존의 법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용실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기존 공원녹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생

활형 공원녹지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특정 대상지나 한정된 녹지유형의 분석이 아니라 자치구 단위에서 구로구의 전반적인 공원녹지 특성을 이용자 인터뷰와 관찰 분석을 통해 평가하여 앞으로 공원녹지 관리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이 있다.

4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 및 사례분석과 현장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외 공원녹지 분류체계의 현황과 특징, 이슈 등을 파악하여 생활형 공원녹지 개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찰한다. 아울러 서울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로구의 기초적인 공원녹지 현황을 파악하고, arcGI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맵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정량화된 공간정보 분석과 비교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현장조사와, 수치지도, 위성사진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 후 구로구의 사회적, 자연적 특성과 근린생활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구로구를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면밀한 현장 관찰조사와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표 1-5] 공원녹지 관련 수집 가능한 자료목록

사이트	자료 목록	비고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옥상녹화사업 공간정보 외 6건	map자료 제공
	서울시 아파트 및 학교녹지 외 12건	sheet자료 제공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신청 시 제공
국가정보유통서비스 http://www.nsic.go.kr/	수치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구매 가능
산림공간정보유통서비스 http://fgis.forest.go.kr/	임상도, 산지구분도, 임도망도	일반 비공개
서울도시계획포탈 http://urban.seoul.go.kr	도시생태현황도	일반 공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kostat.go.kr/	행정경계, 하천, 건물, 도로, 철도, 등고	신청 시 제공

2. 연구 진행과정

연구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의 필요성 ▸ 지역적 환경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공원녹지 계획의 의의 ▸ 생활형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연구의 범위** ▸ 생활형 공원녹지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 ▸ 생활형 공원녹지 조사가 필요한 자치구 선정	
2장 생활형 공원녹지의 의의와 대상	**국내외 공원녹지 분류 현황** ▸ 국내외 공원녹지 분류 현황과 시사점 파악 **생활형 공원녹지 조사의 의의** ▸ 법적 기준에 따른 공원녹지 분류의 한계 ▸ 새로운 유형의 공원녹지 확보와 개선 가능성 **생활형 공원녹지의 대상** ▸ 도시 내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녹지의 범위 ▸ 제도상의 생활형 공원녹지와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로 구분	문헌 및 사례연구
3장 구로구의 지역 특성과 공원 녹지의 분포	**구로구의 일반적 현황** ▸ 구로구의 일반 현황 ▸ 자연환경 특성 / 인문 사회적 특성 **구로구 녹지정책과 녹지 분포의 변화과정** ▸ 구로구 녹지의 시대적 변화과정 분석 ▸ 과거 지형도와 신문기사 검토 **구로구 생활형 공원녹지 분포현황** ▸ 제도상 지정된 공원녹지의 현황 ▸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의 현황	문헌연구 뉴스기사 및 과거지도 분석 현장답사 GIS분석 지형도분석
4장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 분석	**지역 생활권 설정과 분석방법 선정** ▸ 생활환경을 고려한 구로구의 지역구분 ▸ 분석내용 및 방법 검토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분석** ▸ 구로구 4개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과 특성 파악 ▸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 사례별 세부 분석 ▸ 지역별 분포현황과 종합분석도 작성 **구로구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과 시사점** ▸ 지역 간 생활형 공원녹지의 분포의 종합과 비교 ▸ 유형별 특성과 시사점 도출	현장답사 관찰조사 이용자인터뷰 GIS분석
5장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고찰**	

[그림1-4] 연구 진행과정

제2장 생활형 공원녹지의 의의와 대상

1절 국내외 공원녹지 분류 현황과 특징

1. 국내 공원녹지 분류체계와 특징

가. 우리나라 공원녹지의 법적 분류

국내 공원과 녹지의 현행법상 분류를 살펴보면, 공원의 유형분류는 크게는 자연공원, 도시공원으로 구분되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분류하고 있다.[14] 또한 현행법 상 녹지의 분류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녹지(완충, 경관, 연결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제에 의한 녹지지역(생산, 보존, 자연녹지)등이 있다.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이 별도의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15] 이 중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권공원의 경우는 크기와 유치거리에 따라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뉘고 있다.[16]

이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해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과 옥상 및 벽면녹화 등을 공원녹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유원지, 강변공원, 마을마당, 쌈지공원, 쉼터 등을 기타공원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 지정하는 생태공원, 놀이공원 등이 있다. 그 밖에 도시 내에 조성 가능한 다른 위계를 갖는 녹지로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생활림,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자연마당이 있다. 하천은 [하천법]상에 의해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17] [생태하천조성계획 설계요령]에 의해 지구별 생태공간, 학습공간, 운동공간 등 세부적인 공간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내에는 다양한 법적위계와 개념을 가진 공원 녹지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조성목적과 배경에 따라 면적과 설치기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

14) 자연공원법 제1장 제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5조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38조 2항, 제 39조
16) 소공원은 입지에 따라 다시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고, 근린공원은 조성 면적에 의해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7) 하천법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조항

[표 2-1] 국내 공원녹지의 분류 현황과 정의

관련법		유형			정의 및 목적
자연 공원법		자연 공원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도립공원		특별광역시 및 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지역
			군립공원		시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도시 공원 및 독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 녹지	도시 공원	생활권 공원	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성격으로 설치되는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조례로 정하는 공원	
			도시자연공원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녹지	완충녹지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의 방지
			경관녹지		자연적 환경보전 및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도시경관 향상
			연결녹지		녹지 연결, 여가 및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 녹지
		기타 공원 녹지	유원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및 시설
			공공용지		
			저수지		
			식생이 자라는 공간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옥상녹화・벽면녹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18]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유보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18)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05년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구역개념의 용도구역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재 행정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서술함

나. 서울시 도시공원의 현황 및 특징

도시공원의 현황을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총 2,714개소 169.12㎢ 면적의 공원이 있으며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27%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중 65.56㎢ (38.8%)는 산지가 대부분인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권공원의 면적은 46.71㎢(27.6%)에 불과하다.[19] 자치구별로 공원면적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공원면적이 가장 큰 서초구와(15.02㎢), 가장 적은 영등문구(0.75㎢)가 약 14㎢의 면적 차이가 있지만, 이중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둘 사이의 면적의 차이는 서초구 1.99㎢와 영등포구 0.75㎢로 1㎢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서울시 공원면적에서 산림(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1인당 공원면적 16.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공원녹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0]

생활권공원 중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조성 개수가 가장 많고, 근린공원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1,400개의 공원이 2000년 이전에 조성된 공원으로 앞으로 기존 공원의 재생과 관리에 있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주택가 내에 자투리 공간을 소규모 공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지정하기 시작한 소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미시설로 남아있는 것에 비해 기타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을마당의 경우 법적 설치기준과 면적의 제한이 없어 소공원을 대신하여 자치구 단위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2] 서울시 도시공원의 현황 (출처 : 서울통계)

구분		공원수	면적(㎢)
합계		2714	169.12
생활권공원	소계	2,035	46.71
	소공원	346	0.45
	어린이공원	1,297	2.21
	근린공원	392	44.05
주제공원		64	3.67
도시자연공원		20	65.56
자연공원		1	37.34
기타공원(유원지,한강시민공원,마을마당 등)		594	15.84

19) 산정기준의 차이로 제도상 생활권공원의 합(46.71㎢)과 서울통계에서 발표하는 생활권공원의 면적(51.18㎢)이 약 5㎢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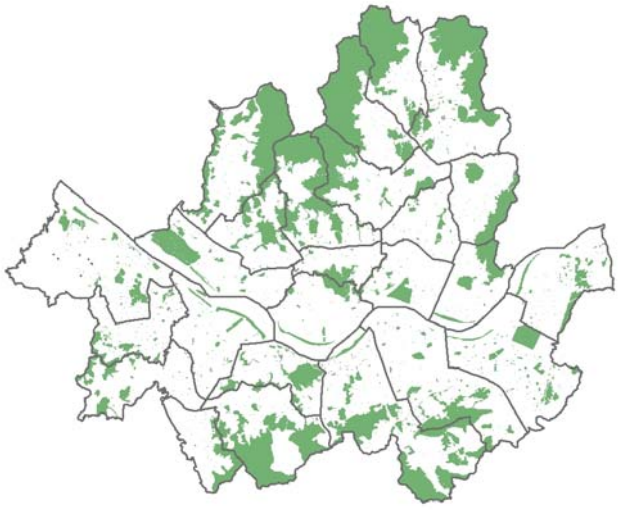
20) WHO권장기준 9㎡/인, 국토교통부 권장기준 6㎡/인, 뉴욕시 14.76㎡/인, 동경시 4.46㎡/인, 파리시 14.1㎡/인에 비해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16.15㎡/인으로 국내외 기준을 상회함

자치구별 공원녹지의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를 분류해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의 녹지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공원 비율 중에서 산지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비율이 높고 자연성이 뛰어난 자치구인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을 산지 중심형으로, 부도심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 정비된 도시공원 보급률이 높은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을 계획 녹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일부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도시공원이 부족한 공원소외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을 녹지 소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획 녹지형을 제외하고 산지 중심형과 녹지 소외형의 경우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밀집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유지 녹지를 공유하거나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녹지 이용이 더욱 필요하다,

[표 2-3] 녹지 특성에 의한 서울시 자치구 분류

유형	특징	해당 자치구
산지 중심형	자연성이 높은 산림 및 도시자연공원 비율이 높은 지역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
계획 녹지형	도심지에 해당하며 정비된 공원녹지 보급률이 높은 지역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서대문구, 동작구
녹지 소외형	주변 환경이 열악하며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공원소외 지역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그림2-1] 서울시 녹지분포현황 (출처: 도시계획포탈)

2. 국외 공원녹지 분류기준 및 유형의 특징

가. 영국 (런던)의 오픈스페이스 분류

영국은 공원녹지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태를 취한다. 그 결과 33개 자치구가 각 구에 맞는 오픈스페이스 전략을 계획하여 녹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다.[21] 런던의 녹지유형은 Greenspace Information for Greater London (GIGL)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GIGL은 런던의 환경기록센터(Environmental Records Centre)로서 런던의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한 모든 오픈스페이스들의 상세한 정보들을 대조, 관리, 생산해내는 단체이다.[22] 런던은 오픈스페이스를 크게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구체적인 40유형으로 세분하여 대부분의 녹지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프스페이스'의 유형과 공공이 접근 가능한 '공공오픈스페이스'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 오픈스페이스는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분류기준은 크기와 시설, 지역 중요도이다.

런던 녹지유형분류의 주요 특징으로는 여가를 위한 녹지공간을 놀이공간, 운동공간, 어메니티공간으로 세분하고 있다는 점과 얼롯먼트가든, 커뮤니티가든 등 시민참여와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유형을 별도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공오픈스페이스의 경우 녹지의 크기와 수용프로그램의 위계에 따라 분류하였고 작은 유형일수록 지역 커뮤니티의 범위를 고려하여 세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오픈스페이스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런던시 전체의 그린인프라스트럭쳐 계획의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더 작은 스케일의 그린인프라스트럭쳐를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4] 영국의 오픈스페이스 종류 (Open Space Categories)

Open Space	
Categories	Sub Categories
i. Parks and Gardens	Park, Formal garden
ii. Natural and Semi-natural Urban Greenspaces	Common, Country Parks, Private woodland Public woodland, Nature reserve

21) 이재정 (2012), 소규모 생활권공원의 용도지역별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22) http://www.gigl.org.uk/

iii. Green Corridors	River, Canal, Railway cutting and railway, embankment, Disused railway trackbed Road island/verge, Walking/cycling route
iv. Outdoor Sports Facilities	Recreation ground, Playing fields Golf course, Other recreational
v. Amenity	Amenity green space, Village green Hospital, Educational Landscaping around premises, Reservoir
vi. Children and Teenagers	Play space, Adventure playground Youth area
vii. Allotments, Community Gardens and City Farms	Allotments, Community Garden, City farm
viii. Cemeteries and Churchyards	Cemetery/churchyard
ix. Other Urban Fringe	Equestrian centre, Agriculture Nursery/horticulture
x. Civic Spaces	Civic/market square Other hard surfaced areas
xi. Other	Sewage/water works, Disused quarry/gravel pit. Vacant land, Land reclamation, Others

Public Open Space		
Categories	Size	Distance from Homes
Regional Parks	400 hectares	3.2 ~ 8km
Metropolitan Parks	60 hectares	3.2
District Parks	20 hectares	1.2
Local Parks and Open Spaces	2 hectares	400m
Small Open Spaces	under 2 hectares	less than 400m
Pocket Parks	under 0.4	less than 400m
Linear Open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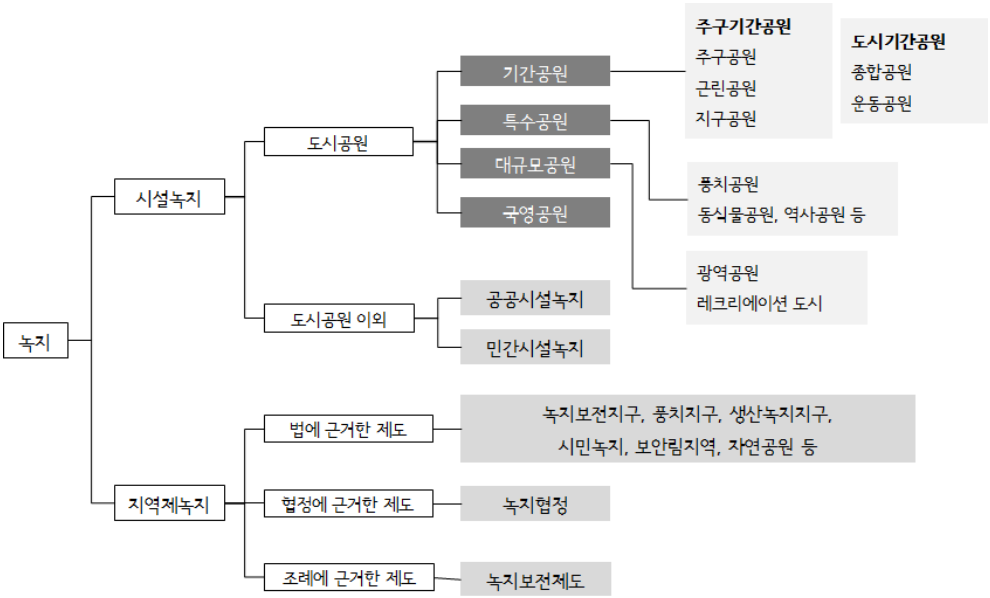
나. 일본의 녹지 분류

일본의 공원녹지 유형은 크게 시설녹지와 지역제 녹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녹지를 도시공원과 그 외 녹지로, 지역제녹지를 근거하는 관련법상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 일본의 유형 분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유치거리와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차이점으로는 해당 지역특성과 조성주체에 의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시설 녹지 외에 지역제 녹지라는 개념으로 법, 협정, 조례에 의해 조성하는 녹지의 유형을 별도로 분류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50만㎡이상의 대규모 녹지인 광역공원과 레크레이션도시, 국가적인 기념사업으로 설치하는 국영공원이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23)]

일본 도시지역에서의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녹의 기본계획'을 통해

23) 산림청 (2007). 도시내 공원녹지와 도시림의 통합적 조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청 정책연구보고서. pp135-141.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도시계획 구역에 있는 시정촌에 해당하며, 공원, 도로, 하천, 항만 등 공공시설의 녹화뿐 아니라 학교나 공장의 녹화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24]



[그림2-2] 일본의 녹지유형 분류

[표 2-5] '녹의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는 녹지의 범위 (출처: 산림청. 2007)

시설녹지	도시공원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것		
	도시공원 이외	공공시설녹지	도시공원이외의 것으로 공원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	도시공원을 제외한 공공공지, 국민공원,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지방자치법 설치 또는 시정촌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원, 공공단체가 설치한 시민농원, 공개하고 있는 교육시설(국공립), 하천녹지, 항만녹지, 농업공원, 아동유원, 시정촌이 설치한 운동장, 청소년 공원 등
			공공공익시설의 식재지	학교의 식재지, 하수처리장 등의 부속녹지, 도로환경시설 및 식수대, 기타 공공공익시설의 식재지 등
		민간시설녹지		시민녹지, 공개공지, 시민농원(공공단체가 설치한 시민농원 이외), 일시개방광장, 공개교육시설(사립), 시정촌과 협정을 하여 개방하고 있는 기업의 운동장, 사찰경내, 민간의 옥상녹화 공간, 민간의 동식물원 등 지역제 녹지
지역제녹지	법	녹지보전지구(도시녹지법), 풍치지구(도시계획법), 생산녹지지구(생산녹지법), 근교녹지보전구역, 근교녹지, 특별보전지구(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외), 역사적풍토보존구역,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 자연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용지구역, 하천구역, 보안림구역, 지역삼림계획대상 사유림, 보존수, 보존수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로 녹지로 취급되는 것 등		
	협정	녹지협정 (도시녹지법)		
	조례	조례,요강, 계약, 협정 등에 의한 녹의 보전지구 및 녹의 협정지구, 수림지의 보존계약, 협정에 의한 공장식재지 등		

24) 서울특별시 (2010).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제작 -2차년도-. p.23

다. 미국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분류

미국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NRPA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에서 제시하는 녹지의 유형을 각 지방정부와 주의 담당 처에서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다.[25] NRPA에서 제시하는 공원의 분류기준은 근린공원, 커뮤니티공원, 지역공원, 특별이용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치거리와 크기에 따른 분류기준을 갖고 있으며 토지이용의 크기와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와 조성면적이 큰 점이 특징이다.

[표 2-6] 미국의 공원분류 기준 (Parkland Classification Standards)

NRPA Parkland Classification Standards			
Type	Service Area	Desirable Size	Acres/1000 Residents
Neighborhood Parks	1/4 to 1/2 Miles	5~15 Acres	1 to 2 Acres
Community Parks	1-2 Miles	25+ Acres	5 to 8 Acres
Regional Parks	Several communities	200+ Acres	5 to 10 Acres
Special Use Areas	No Applicable Standards	Variable Depending on Use	Variable

미국 (시애틀)

시애틀의 경우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Parks and Recreation)을 공원이용, 목적, 크기에 의해 구분하였다. 유형분류의 목적은 미래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주어진 대상지에 적합한 크기와 환경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돕기 위함이며 다른 유형의 공원별로 적합한 프로그램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26]

총 9개의 유형으로 공원녹지를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포함하는 위치, 크기 등을 자세하게 지정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Desired)과 선택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Optional) 으로 세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공원유형 별로 주차지역의 지정, 자연환경적인 이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애틀랜타)

애틀랜타의 분류 기준은 크기와 이용목적에 따라 공원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25) http://www.nrpa.org/
26) http://www.seattle.gov/parks

9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27] 크기와 이용이 유사한 유형의 공원이라도 공원의 주요 프로그램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예로 커뮤니티 공원은 전형적인 시설위주의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공원, 근린공원은 그 지역의 비공식적, 비조직적 여가 충족을 위한 공원, 블록공원은 놀이터처럼 작지만 제한된 기능의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2-7] 시애틀과 애틀랜타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분류 (Park and Recreation Classification)

NO	Seattle	Atlanta
1	Triangles / Circles / Squares	Regional Park
2	Pocket Park	Community Park
3	Downtown Park	Neighborhood Park
4	Neighborhood Park	Block Park
5	Community Park	Garden Park
6	Recreation Park	Nature Preserve
7	Natural Area / Greenbelt	Conservation Park
8	Boulevards / Green Streets / Trails	Greenway Trail
9	Special-Use Park	Special Facility

라. 인도네시아의 오픈스페이스 분류

인도네시아의 공원녹지 분류는 다른 국가들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기준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총 2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28] 주거단지와 상업단지 녹지를 분류에 포함하였고, 근린공원을 주변지역에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오픈 주차장, 농장, 도시 숲, 하천, 송전탑 주변녹지 등 생활주변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녹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옥상정원, 동물원, 식물원 등의 유형도 포함하고 있다.

[표 2-8] 인도네시아의 그린 오픈스페이스의 유형 (Green Open Space in Urban Areas)

NO	Type	NO	Type
1	City parks	13	Public funeral
2	Nature parks	14	Sports fields
3	Recreation parks	15	Parade ground
4	Neighborhood parks and residential housing	16	Open parking

27) http://www.atlantaga.gov
28)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No. 1 of 2007 on Spatial Planning of Urban Green Open Areas

5	Neighborhood parks office and commercial buildings	17	Urban agriculture
6	Forest park	18	Under high voltage lines (SUTT and SUTET)
7	Urban forest	19	Border rivers, beaches, buildings, and swamp it
8	Protected areas	20	Lane road safety, road medians, railroads, gas pipelines, and pedestrian
9	Landforms such as mountains, hills, slopes and valleys	21	the green line
10	Nature reserves	22	Buffer zone airfields
11	Botanical garden	23	Roof garden
12	Zoo		

3. 국내외 분류체계의 비교와 시사점

국외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분류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사례와는 다르게 유형과 분류기분이 다양하다는 점과 공원 이외에 규정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법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 환경에서 제시 가능한 공원과 오픈스페이스의 대상을 넓게 설정하여 해당 유형별 관리와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추후 보전과 활용에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유형분류의 기준을 살펴보면 단순히 크기 및 주제에 따른 분류뿐 아니라 조성목적과 동기에 따라 녹지를 인식하고, 지역특성과 이용자들의 주된 행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마다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녹지 유형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설녹지 이외에 지역제 녹지처럼 추후 정책변화에 의해 추가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녹지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류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픈스페이스의 규모가 작고 생활권에 밀접 할수록 지역 커뮤니티에 맞는 세부적 유형분류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과 해당 성격에 맞는 관리주체가 참여하여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국의 토지이용의 규모나 도시계획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와 달리 생활권의 범위가 작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공급되는 시설의 하나로써 공원녹지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분류기준이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분류 가능한 넓은 범위의 공원녹지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

다. 따라서 실제 관리와 운영의 권한이 있는 자치구레벨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유형과 이에 따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원녹지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역주민의 이용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단위의 공원녹지 분류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표 2-9] 국내외 공원녹지의 분류특징과 분류기준의 비교

구분	분류의 특징	주요 분류기준
한국	-도시공원의 경우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생활권공원은크기와 유치거리/ 주제공원은 주요테마를 바탕으로 세분 -도시 내 자연형 공원의 경우 구역개념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존재	면적, 유치거리 주요테마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치거리와 규모에 따라 구분 -지역특성과 조성주체에 의해 세분화함 -50만㎡이상의 대규모 녹지인 광역공원과 레크레이션 도시가 존재 -국가적인 기념사업으로 설치하는 국영공원이 존재	면적, 유치거리 조성주체 지역여건
영국 (런던)	-대분류(11유형)의 하위로 구체적인 소분류(40유형)로 세분하여 대부분의 녹지유형 포함 -여가를 위한 녹지공간을 주요시설에 따라 (놀이공간, 운동공간, 어메니티공간) 다양하게 분류 -얼롯먼트 가든, 커뮤니티가든 등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유형이 특징	크기, 시설, 기능, 지역중요도
미국 (시애틀)	-각 유형별로 포함하는 위치, 크기 등을 지정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desired)과 선택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optional)으로 세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안 -공원유형 별로 주차지역의 지정, 자연환경적인 이점들을 명시	면적, 주제
미국 (애틀랜타)	-유사한 공원을 세부기능으로 구분하여 정의 -커뮤니티 공원은 전형적인 시설위주의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공원, 근린공원은 그 지역의 비공식적, 비조직적 여가충족를 위한 공원 -블록공원은 놀이터처럼 작지만 제한된 기능의 공원, 정원공원은 경관 상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에 해당	면적, 이용목적
인도네시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류방식에 해당하며 유형별 위계가 다름 -근린공원을 해당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함 -오픈 주차장, 송전탑주변녹지 등 가능한 대부분의 녹지 유형을 포함 -동물원, 식물원 등의 테마적 성격의 유형 포함	주요테마, 이용목적

2절 생활형 공원녹지의 의의와 중요성

1. 법적 기준에 따른 공원녹지 분류의 한계

가. 현재 이용행태와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도시민의 생활패턴이 다양화 되고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2005년 관련법 개정으로 생활권 공원 이외에 다양한 목적의 주제공원이 도입되었다.[29] 하지만 현재 서울시 주제공원으로 지정된 수는 전체 도시공원 2,700여개 중 64개소로 그 수가 매우 적으며, 개정 이전에 지정된 근린공원의 경우 주제 공원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아직 근린공원의 분류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주제공원과 근린공원의 구분이 모호한 이유는 설치기준에 있어서 별다른 차별성이 없기 때문으로 도시공원 관련 제도상으로는 공원의 입지기준, 공간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시설율, 건폐율 등의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여 있어 주제별 특성이 부족한 획일적인 도시공원 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크기와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적 분류의 경우 실제 공간 특성 및 이용행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지에 따라 공원의 분류와 실제이용이 차이를 보여주거나 조성주체와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공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수단과 방법은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예로 일부 어린이 공원의 경우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지역 간 형평성에 따라 지정되어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표 2-10] 법적 분류와 다르게 지역특성에 따라 이용되는 공원의 사례

구분	홍익어린이공원	반포픽시놀이터	훈련원공원
법적분류	어린이공원	한강공원	근린공원
위치	마포구 서교동	서초구 반포대로 남단	중구 을지로 5가
주요특징	어린이공원의 성격을 넘어 홍대문화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복합 공간	픽시자전거 이용자의 모임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 된 반포지구 내 공간	오랜 시간 여러 문화의 켜가 쌓인 곳으로 현재는 스케이트 컬트문화가 형성
현황사진	 사진출처: 개인촬영(2012.9)	 사진출처: 구글이미지검색	 사진출처: 개인촬영(2013.4)

29)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구분됨

나. 지역 단위의 공원녹지 관리 및 개선에 부적합

이처럼 현재 법제도 상의 공원녹지 분류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의 계획과 공급을 위한 분류체계로서 도시계획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도시환경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이미 개발된 도시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시공원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공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정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데에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자치구 단위에서는 소공원과 마을마당 같은 적은 예산으로 조성 가능한 소규모 공원녹지 공급이 주로 늘어나고 있다. 도심 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하고 생활과 밀접한 휴식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조성되지만 적절한 설치기준이나 입지기준이 없어 활용이 미비하거나 방치되는 등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및 기타 사회적 기업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조성되는 소규모 공원녹지의 경우 법적 분류기준에 의한 관리 및 운영의 방식이 아닌 지역과 밀착된 관리 및 특화 방향이 필요하며 해당 공원녹지가 속한 지역의 커뮤니티 성격과 사회 환경, 주민참여의 의지에 따라 관리와 운영방식을 다르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표 2-11] 기타 사업에 의해 조성된 지역 내 소규모 녹지공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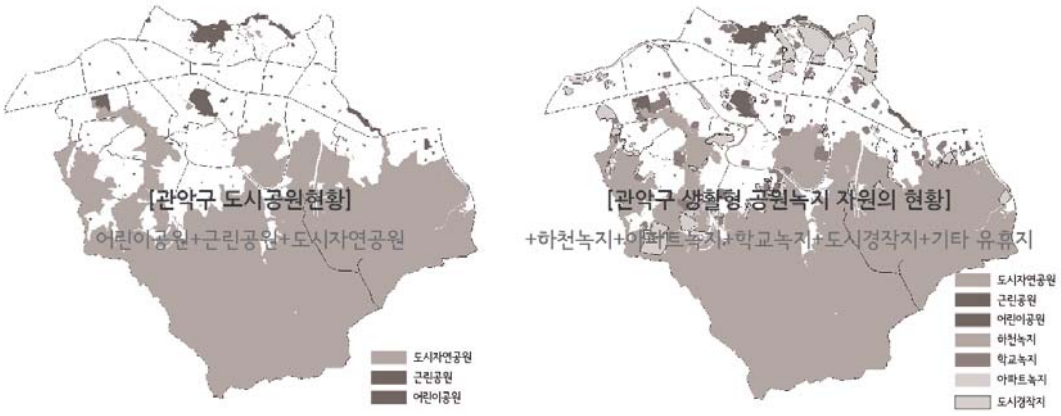
구분	한평공원	정자나무가꾸기사업	동네숲가꾸지사업
주체	도시연대(시민단체)	(재)아름지기	(사)서울그린트러스트
주요내용	동네에 버려지거나 잘 쓰이지 않는 공간을 주민참여를 통해 만드는 과정	정자나무를 치료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	참여를 통해 만드는 도시공동체의 숲
활동경과	2002년 시작 2013년 45개소 조성	2002년 시작 2013년 9개소 조성	2007년에 시작 2010년 18개소 조성
사례	 사진출처: 도시연대	 사진출처: 아름지기	 사진출처: 서울그린트러스트

2. 새로운 공원녹지 확보와 개선 가능성

가. 양호한 녹지자원의 조사와 활용이 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원녹지의 범위에는 다양한 녹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관리, 운영하는 공원녹지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시설공원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도시생활권에는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지만 공공 또는 공용공간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녹지자원이 존재하며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분류 이외에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녹지자원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사연구나 관리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며 자치구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의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예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에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경작지가 존재하고 있지만 관에서는 단순히 규제와 제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임시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새롭게 도시공원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보다 기존의 녹지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지역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했을 때 법적 유형 이외의 생활형 공원녹지 자원을 조사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공원소외지역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써 자치구 레벨의 공원녹지 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존 공공에서 시행해 온 학교녹지나 아파트녹지를 공원화한 사업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2-3] 관악구 도시공원과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자원의 비교

나. 공원녹지 불균형 개선을 위해 대안 공간의 공급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구로, 양천, 관악, 금천, 영등포, 강서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공원율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준공업지역과 서민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곳으로, 과거 공단과 배후주거지의 성격으로 도시계획이 미흡하던 시기에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의 공원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은 해결하기 어렵고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평성을 우선하여 소외지역 위주로 공급하기에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 지역의 공원녹지의 절대 면적을 늘려가는 것보다 지역별로 실제 공급할 수 있고 특화 가능한 공원녹지를 발견하여 필요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소외지역의 경우 신규 공원녹지의 공급이 어렵고 조성시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2-12] 서울시 권역별 공원율과 1인당공원면적

구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권역면적	55㎢	171㎢	71㎢	162㎢	145㎢
공원면적	15㎢	59㎢	26㎢	29㎢	29㎢
공원율	25%	32%	35%	**18%**	17%
1인당공원면적	28㎡	17㎡	21㎡	**9㎡**	15㎡

3절 생활형 공원녹지의 대상과 유형

가. 도시 내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녹지의 범위

생활형 공원녹지는 생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원녹지 중에서 공공이 사용하거나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도시 내에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녹지의 유형은 다양하며 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공원 보다 다른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단위의 녹지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녹의 기본계획' 에서

다루는 '녹'의 대상은 도시공원 뿐 아니라 '공공시설 녹지'와 '민간시설 녹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녹지자원의 조사에서는 별다른 성격 구분 없이 수림으로 덮인 1㎡이상의 녹지를 대상으로 하여 녹지를 조사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체계적인 정책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녹지공간을 목록화 하고, 계획목적과 전략에 따라 도시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30]

[표 2-13] 일본 녹의 기본계획의 대상조사지 (출처: 北区 緑の基本計画 키타구 녹의 기본계획)

대상조사지	내용	세부항목
수목피복 지역	나무 수림으로 덮인 1 ㎡ 이상의 녹지	공원의 수목, 도로의 수목 (가로수 등)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 구내 수목 주택, 사무실, 사원 등 민유지 구내 수목 산림 평지 숲 등 수림지
초원	초본류로 덮인 1 ㎡ 이상의 녹지	공원 그라운드 초원 도로 초원 학교 청사 자위대 등 공공시설 구내 초지 주택, 사무실, 사원 등 민 유지 내부의 초원
하천부지 초원	하천 부지 내에서의 초본류로 덮인 1 ㎡ 이상의 녹지	하천 부지의 초원 하천 부지의 골프장, 경기장 및 녹지 등의 초원 제방 제방의 풀밭
농지	한 부지가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생산 녹지 지역, 전답, 과수원, 묘포
옥상녹화	구조물에 식재 된 수목 피복 공원, 초지 등 건물 옥상 부분의 녹화 지, 베란다 녹화 지역에서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표 2-14] 영국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공간 (출처: Urban Green Spaces Taskforce, 2002)

구분	계획목적과 오픈스페이스 전략에 적합한 유형	오픈스페이스 감사와 학술연구를 위한 상세 구분
녹지공간	공원과 정원	도시공원, 교외의 공원, 정형적 정원
	어린이와 10대를 위한 곳	놀이공간, 스케이트보드 공원, 농구장, 자주모이는 지역
	어메니티 녹지공간	비공식적 레크리에이션 공간, 주택가 녹지공간, 주택정원, 마을녹지, 기타 부수적 공간
	자연적이거나 반자연적 녹지공간	숲과 관목숲, 황야나 사냥터, 습지, 수로, 황무지, 암석지
	외부 스포츠시설	테니스코트, 볼링그린, 스포츠 경사지, 골프코스, 경기장 트랙, 학교놀이공간, 기타 공식적인 놀이공간
	얼랏먼트, 커뮤니티 가든, 도시농장	얼랏먼트, 커뮤니티 가든, 도시 농장
	묘지와 교회마당	묘지, 교회마당
	녹도	강가 수로의 둑, 가로와 열차길. 도심과 도시의 자전거 길, 도심과 도시의 보행로, 공공통행로와 보행이 허락된 통로
시민공간	시민공간	바닷가, 시민광장, 시장광장, 보행자 거리, 녹지공간은 아니나 시민들이 옥외활동을 즐기는 공간

30) 김연금, 최정민 (2012). 영국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40(2). pp.86-96

나. 생활형 공원녹지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 단위에서 검토해야 할 생활형 공원녹지의 대상을 추후 관리와 전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이용성을 중심으로 한 공간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제도상의 공원녹지와 그 밖의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로 구분하였고, 이 중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에는 실제 생활권 내에서 공공이 이용하거나 일정 커뮤니티 내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과, 현재 민간이 점유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추후 공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녹지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를 제외한 다른 생활형 공원녹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다른 관련법과 기타사업을 통해 공공에서 조성하는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2. 일반적으로 쉽게 공원처럼 이용하는 유형의 공공공간 및 공익사업 대상지
3. 일부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커뮤니티 내의 이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용공간
4. 주로 사유지에 해당하지만 추후 공공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기타 민간공간

하지만 현재 나열한 대상들은 우선적로 살펴볼 생활형 공원녹지의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특정 지역의 현장관찰과 분석을 통해 대상의 범위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 또한 생활형 공원녹지의 질적인 비교와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세부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도 있다.

[표 2-15] 생활형 공원녹지의 구분과 대상

구분		대상
제도상 생활권 공원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시설녹지(완충, 경관, 연결녹지)
	도시공원 외 공공에서 조성하는 공공녹지	하천녹지(하천법), 마을마당, 생활림, 자연마당, 공개공지, 공공공지, 기타 녹화사업지 (학교공원화 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등)
기타 생활권 공원녹지	공원처럼 쉽게 이용되는 공공공간 및 공익사업 대상지	대학 캠퍼스, 학교운동장 및 녹지, 보행광장, 가로녹지, 옥상정원, 한평공원, 동네숲, 학교숲 등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커뮤니티 단위로 이용되는 공용공간	아파트단지, 종교시설 내 녹지, 옥상정원, 마을내 쉼터, 주말농장, 커뮤니티 경작지, 등
	추후 활용 가능한 기타 민간공간	유휴지 내 텃밭・나지・주차장. 양호수목식재지 등

제3장 구로구의 지역특성과 공원녹지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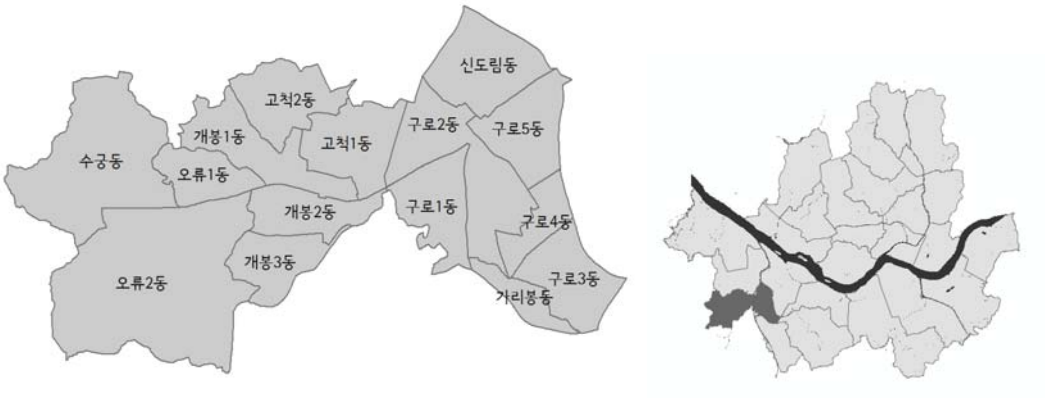
1절 일반적 현황과 구로구의 지역특성

1. 구로구의 일반적 현황

가.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

구로지역은 과거 경기도 시흥군의 일부지역에 해당하였으나 1949년 구로리, 도림리가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서울시에 속하게 되었다. 1963년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으로 현재 구로지역에 해당하는 시흥군과 부천군의 많은 촌락들이 영등포구로 편입되었고, 1980년에 구로동 공업단지 발전계획이 수립되면서 영등포구의 구로동, 가리봉동, 독산동 등으로 이루어진 구로구가 신설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분동 및 경계조정 등을 거쳐 2009년에 이르러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다.

구로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시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자치구로는 동쪽으로 영등포구와 금천구, 양천구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남쪽으로 광명시와 접하고 있다. 안양천과 도림천, 목감천 등 하천을 경계로 다른 구들과 인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안양천을 경계로 크게 두 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거지역과 공단이 입지한 동쪽지역과 그린벨트와 시계경관지구 등 미개발 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도심부적격 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이 입지한 서쪽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3-1] 구로구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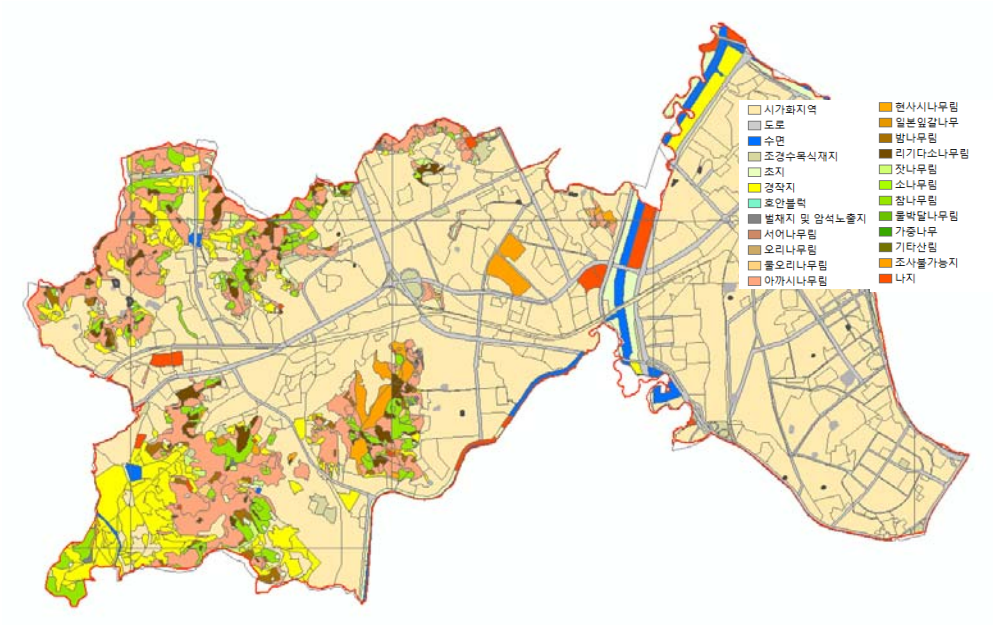
구로구는 면적 20.12㎢, 인구 약 45만 명의 자치구로서 서울시의 약 3.3%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총 15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의 전체적 형태는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인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형태를 띠고 있다. 토지이용은 대부분 주거지역과 주상혼합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측의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3-2] 중분류 토지피복도 (2009) (출처: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

나. 자연환경 특성

지형적 특성으로는 북서쪽으로 매봉산(110m), 지양산(138m), 와룡산(98m)이 위치하고, 남서쪽은 천왕산(144m), 개웅산(126m)의 산지가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안양천 서측 생활권의 경우 산지로 이루어진 녹지가 풍부하나 주거지역은 대부분 경사지에 위치해있다. 반대로 동측 생활권의 경우 도림천과 안양천을 낀 평지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구로구에 하천은 총 5개소가 흐르고 있으며 부천 방향으로 흘러가는 역곡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천은 안양천에 합류되어 한강으로 이어진다. 토양은 대부분 사양토와 세사양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주변으로 사질양토가 분포하여 배수가 양호한 편이다.

[그림3-3] 구로구 수치지형도



[그림3-4] 구로구 현존식생도 (2010)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탈)

2. 구로구의 인문 사회적 특성

가. 인구특성 및 주거유형

구로구의 인구는 총 427,520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는 21,246명/㎢로 서울시 평균인 16,567명/㎢에 비해 높은 구에 속한다. 이 중 노인인구(46,000명), 장애인(18,000명), 기초생활수급자(5,700명), 외국인(27,000명)등 사회적 약자의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 공단이었던 지역의 특성상 영등포구 금천구와 더불어 아직까지 제조업 종사자수(약 20,000명)가 높다.[31)]

주택보급률이 약 93%로 높은 편이지만 자가 주택의 비율은 48%에 해당하여 전월세 비율이 높다. 주거 유형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55%이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비율이 28%, 단독주택이 17%에 해당한다. 아파트 비율이 높으나 단독 및 연립주거지역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일부 노후 불량 주거지역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분포한다. 구로구의 대표적 재개발 지역으로는 가리봉 재정비 구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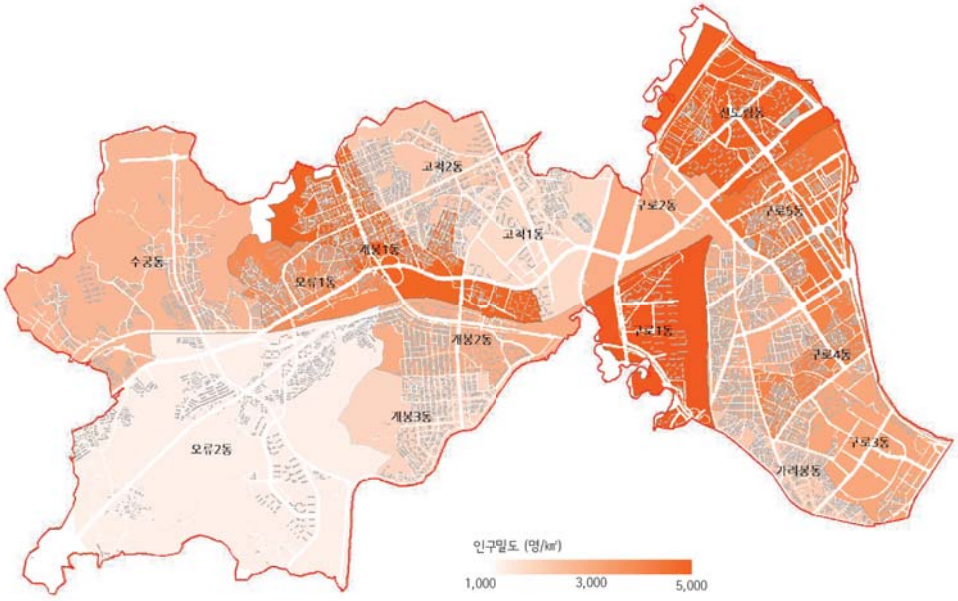
[표 3-1] 구로구의 인문 사회적 특성

주거환경			인구특성		사회환경	
총주택수		97,633호	총인구수	427,520명	주택재개발구역	174,000㎡
주택보급률		93% (자가주택48%)	인구밀도	21,246명/㎢	제조업종사자수	20,281명
주거 비율	아파트	55%	노인인구	46,000명 (노령화지수 77.4)	기초생활수급자	5,668명
	다세대	28%	장애인인구	17,821명	대졸이상 주민	36.9%
	단독	17%	등록외국인수	26,958명	지방세부담액	720,537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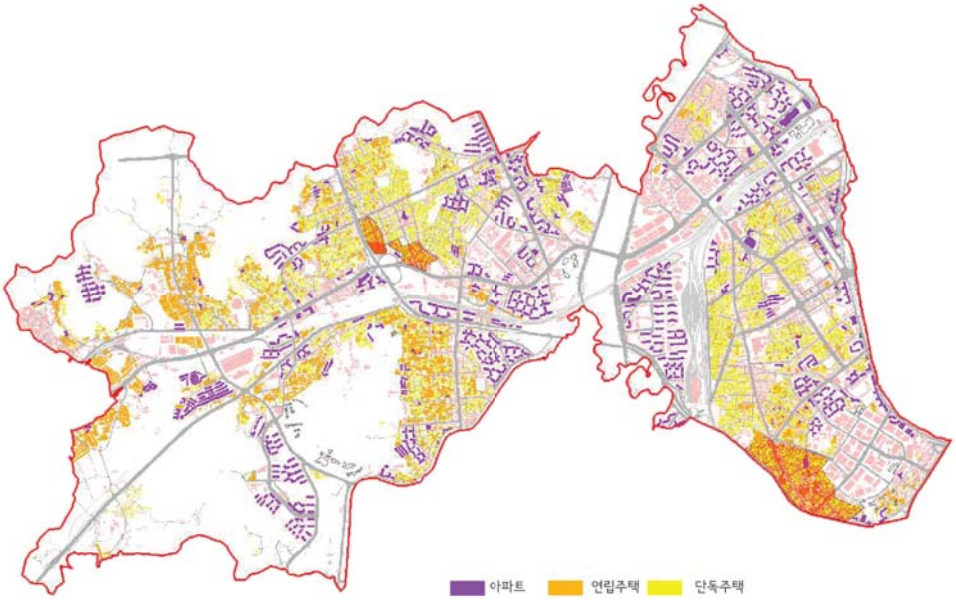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 및 문화시설

구로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36%, 공업지역 32%, 녹지지역 30%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공업지역이 넓게 나타난다. 서울의 대표적 공단이라 할 수 있는 구로공단(한국수출산업공단)의 경우 60년대 후반에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지정되었다. 구로공단은 80년대 말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명되고 각종 벤처타운의 입주를 계기로 현재는 디지털정보산업의 중심지로 변화하였다. 구로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없으며 문화공간으로는 공공공연장 2개소 민간공연장 5개소, 영화관 2개소, 사립박물관 1개소, 문화 복지시설 7개소가 있다.

31) 2012구정백서, 2011구로통계연보



[그림3-5] 구로구 행정구역별 인구밀도



[그림3-6] 구로구 주거유형의 분포

2절 구로구 녹지정책과 녹지분포의 변화과정

본 연구에서는 구로구 녹지의 시대적 변화와 도시계획의 과정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일반적 녹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녹지의 변천과정과 녹지관련 정책을 과거 신문기사 검색과 지형도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가. 구로구 녹지정책과 분포의 변화 (1985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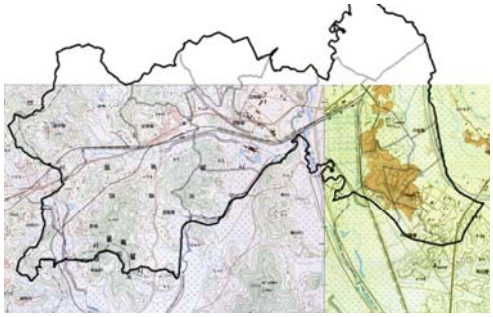
70년대 이전 구로지역은 산지와 구릉지의 지형을 바탕으로 하천이 흐르는 녹지지역으로 목감천과 안양천 주변으로 전답이 위치한 농촌지역에 해당하였다. 당시 경인선과 오류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전답과 부락이 있었으며 하천범람을 고려하여 안양천 동쪽의 고지대에 가옥이 밀집된 지역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0년대 초 서울시에서 도심 내부에 있던 공해발생업체를 단계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서 구로지역을 공장전용지로 지정하게 되었다.[32] 이때 많은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경인선 주변(현재 신도림동, 고척동 일부)과 현재 구로공단과 금천구 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공단 종사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지가 산지 하부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 지금의 오류동과 개봉동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되었고 가리봉동과 구로동 일대의 주거지역도 확장되었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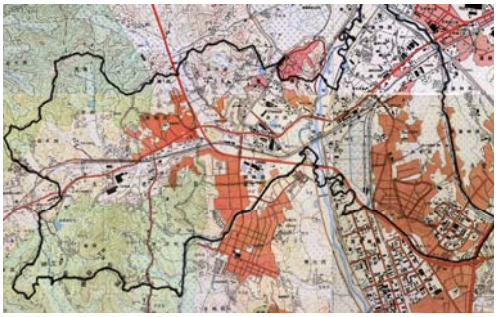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급격한 공단의 확장으로 인해 폐수와 매연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심화되었고, 주택난과 불량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공해처리시설 의무화와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으며 일부 불량주거지 재개발과 도시계획사업을 계획하였다. 대표적으로 70년대 말부터 구로지역을 단일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대단위 아파트건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의 구획정리와 도시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34] 이러한 움직임은 80년대 초기까지 이어져 기존 공단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업주거혼합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일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로 용도변경하고, 구로역 주변을 신시가지로 개발하거나 어린이공원과 녹도를 확충하는 등의 도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다.[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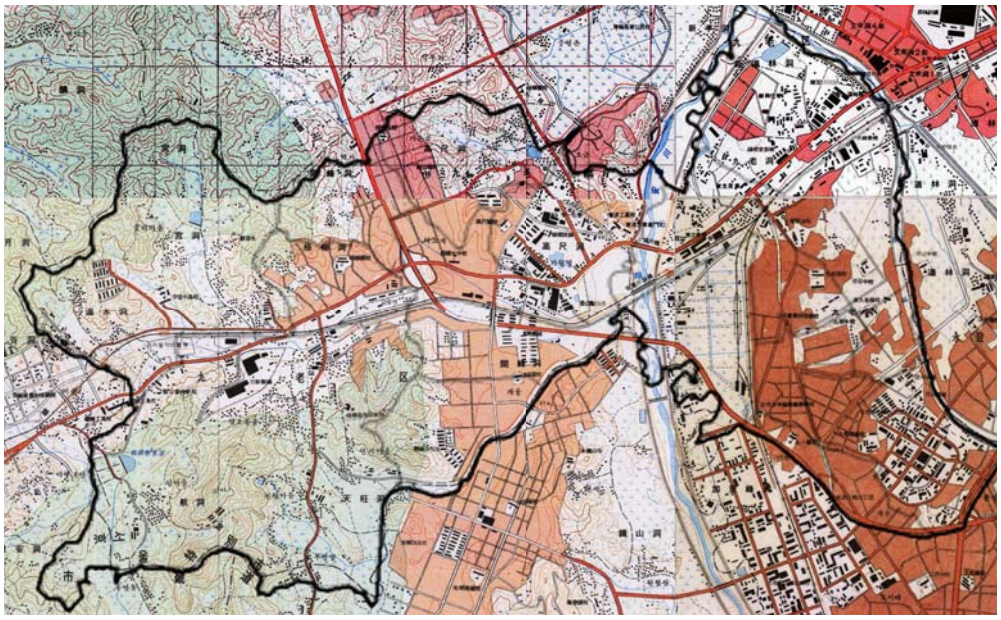
32) 주거지역 공해업체 구로동 등으로 이전 동아일보 (1970.01.13.)
33) 구로공단 단지 안에 시영아파트. 매일경제 (1975.09.16.)
34)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 착공 - 공원, 학교, 공공시설 확충. 경향신문 (1979.04.03)
35) 구로지구 새 시가지로 개발. 경향신문 (1982.03.16.)



1966년



1976년



1981년 구로지역 지형도

67년 구로공단 준공식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구로공단 벌집촌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80년대 안양천 오염
출처: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그림3-7] 1985년 이전 구로구 녹지 분포 및 정책변화

나. 구로구 녹지정책과 분포의 변화 (1985년~2000년)

80년대 후반 인근에 위치한 부천, 광명 지역도 점차 성장하면서 수궁동 지역과 오류동 산림지역을 제외하고 많은 녹지 지역이 주거지와 공업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가 구로지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동 착취,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이 발생하여 구로구의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게 된 시기이다.[36)]

90년대에 이르러 경기부진으로 준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자들이 육체노동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제조업 고용규모가 크게 격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 구로공단을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발표되고, 낡은 불량 주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신도림역, 구로역등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지역 일대가 복합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37)].

다. 구로구 녹지정책과 분포의 변화 (200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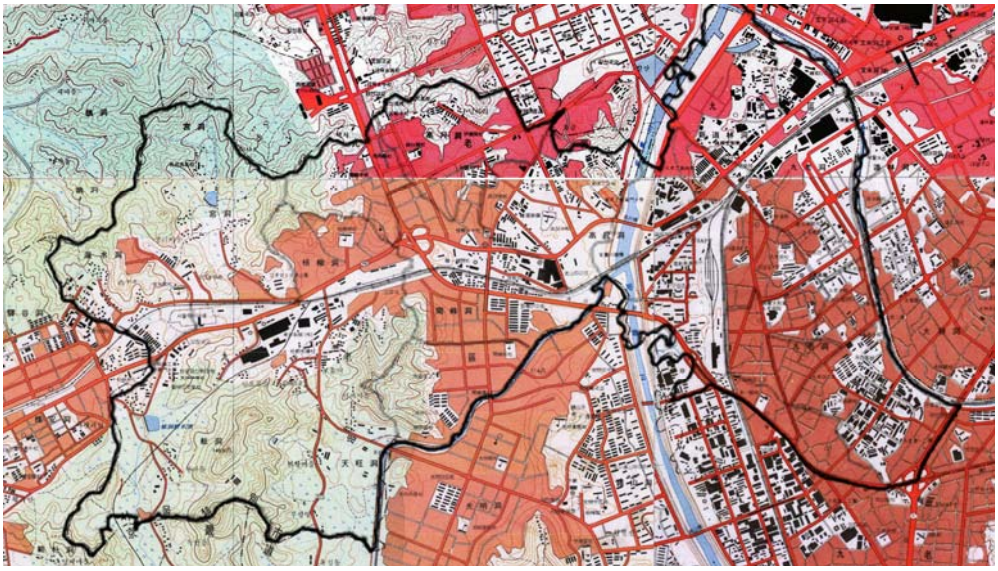
2000년에 이르러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점차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과거 공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노후지역을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녹지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직까지 구로구 도심 내에 많이 남아있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보육 및 노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녹색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관주도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에서 밀집주거지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녹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진행한 그린파킹사업은 구로구에서 가장 활성화된 사업으로서 국내외에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38)] 이밖에도 생활권내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자 아파트 담장 허물기(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이 구로구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하천과 유수지를 생태공원화하고 학교, 공장 이전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도 진행되어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심하게 오염된 안양천의 유량확보와 생태복원을 위한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10년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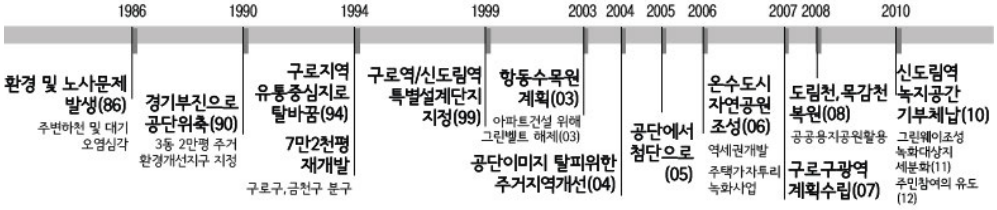
---

36) 구로공단 대기오염 으뜸. 매일경제 (1986.12), 구로 등 공단 주변하천은 사천. 동아일보 (1989.7)
37) 구로 벌집 주택단지 탈바꿈. 동아일보 (1994.12), 구로역, 신도림역 주변 바뀐다. 한겨레 (1999.8)
38) 서울 그린파킹사업 최우수 구에 구로구. 연합뉴스 (2010.11)

최근에는 기존 저수지와 생태습지가 있던 지역에 생태공원이나 수목원을 조성하여 광역적 범위의 이용자들도 이용 가능한 거점공원을 만들거나, 기업의 기부체납을 이용하여 역세권과 인접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유형의 도시공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오류IC내 녹지대와 구 외곽 유휴지를 활용하여 공동체텃밭과 농촌체험장을 만드는 식의 주민 참여 녹지정책을 실천하고 있다.[39]



1995년 구로지역 지형도



신도림 일대 복합개발(2010)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푸른수목원 개장(2013)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오류IC 녹지대 농촌체험장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그림3-8] 2000년 이후 구로구 녹지 분포 및 정책변화

39) 유휴지 배추재배 불우이웃에 제공. 디지털타임즈 (2011.11)
구로구, 유휴부지에 농촌체험공간 조성. 뉴시스 (2013.03)

3절 구로구 생활형 공원녹지의 분포현황

1. 구로구 도시공원 및 녹지의 현황

구로구의 도시공원은 총 56개소가 있으며, 그중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 14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소공원 1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 시설로 조성된 공원녹지는 39개소이며 미시설 공원이 17개소로 전체 공원면적의 70.7%가 아직 미시설로 남아있다. 또한 법적 녹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와 일반녹지(도로변녹지)의 경우 각 22개소, 8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기타 수벽, 수림대, 하천변 녹지가 일부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내 자투리 녹지를 활용한 마을마당이 46개소가 지정(40개소 조성)되어있다.[40]

구로구의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약 6.97㎡로 25개 자치구중 18번째에 해당한다. 이중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2.33㎡로 금천구(1.42㎡), 은평구(1.61㎡) 다음으로 부족한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구로구 면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3.42㎢를 차지하며 임야지역 2.69㎢을 포함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2년도에 개봉동과 천왕동, 궁동 외곽지역 순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일부 해제되었다.

[표 3-2] 구로구 도시공원 현황

구분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개소 (시설)	56 (39)	2 (-)	15 (8)	1 (1)	25 (23)	13 (7)
면적 (㎡)	2,865,450	1,685,425	1,105,102	3,322	49,343	22,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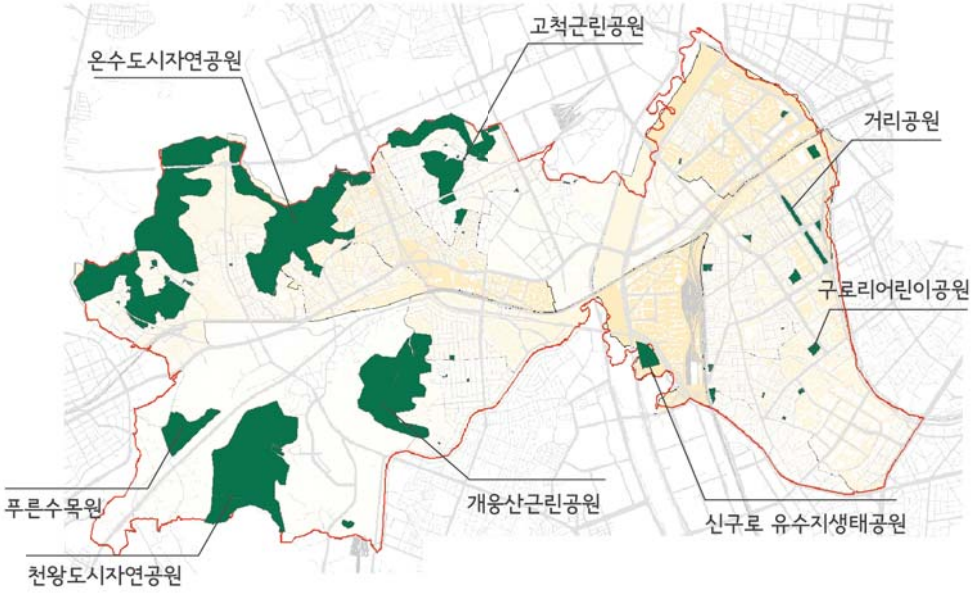
*1인당 공원녹지 면적 6.97㎡ (서울시 평균 16.15㎡)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2.33㎡ (서울시 평균 4.86㎡)

[표 3-3] 구로구 녹지 현황

구분	계	시설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일반녹지 (도로변 녹지)	수 벽	수림대	하천변 조경	마을마당
개소	174	22	83	10	7	6	46
면적 (㎡)	362,849	148,195	133,923	3,563	11,769	46,658	18,741

*서울시 전체 : 3,131개소 12,415㎢ (구로구 2.5%)

40) 2013 구로구 구정현황



[그림3-9] 구로구 도시공원 분포

가. 도시자연공원

구로구 도시자연공원 2개소는 천왕도시자연공원과 온수도시자연공원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시설공원에 해당한다. 현재 일부 등산로 진입부와 공원 내 시설지역이 휴게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산림 내부는 아까시나무림과 리기다소나무림, 신갈나무림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주거지와 인접한 산림 경계부분이 시가화 지역이나 불법 경작지로 일부 변형되었다.[41]

온수도시자연공원에는 5군데의 시설지구가 존재하며 그 중 잣절지구, 벽산지구가 최근에 조성되었다. 잣절지구는 개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주택단지, 노인요양병원, 개봉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벽산지구의 경우 온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온수 초등학교, 우신고등학교 등과 인접해 있다. 시설지구를 제외한 온수공원 내 체육공간은 총 4개소가 있으며 주로 산림경계부가 아닌 등산로 상에 위치한다. 천왕도시자연공원은 표고 145m의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산로와 운동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자연식생이 양호한 편이다.

41) 남택호 외 (2008). 서울시 구로구 산림비오톱 변화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pp36-37

[표 3-4] 구로구 도시자연공원과 시설지구 현황

도시자연공원		
		
공원개요	현황사진	
A.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 면적: 87,903㎡ 조성연도: 2012 시설: 생태습지원, 전통정자, 등산로, 테니스장		
B. 온수도시자연공원 벽산지구 면적: 37,454㎡ 조성연도: 2012 시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장미원		

나.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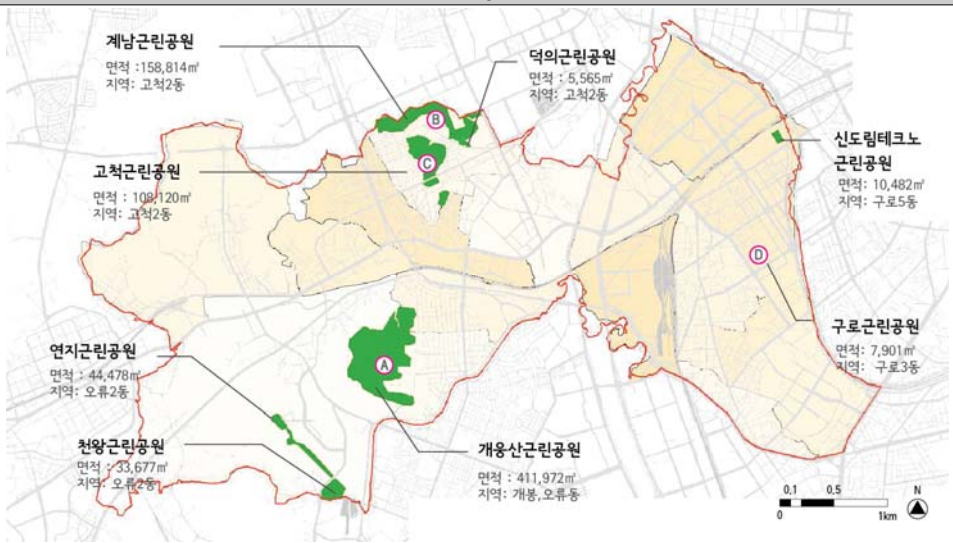
구로구의 근린공원은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8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과 유사하게 기존의 산지를 활용한 근린공원으로는 개웅산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이 해당하며 이 공원들은 기존에 등산 및 운동 등으로 활용되던 기존 산지를 정비하여 공원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로 기존의 산책로를 중심으로 운동 및 휴게공간, 자연학습장 등이 설치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1971년에 조성된 계남근린공원의 경우 다목적 운동장과 실내 배드민턴장 등이

설치되어 체육공원적 성격이 강하며 양천구 경계에 위치하여 두 구의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 도심 내 위치한 주요 근린공원으로는 고척근린공원, 구로근린공원이 있으며 공원 내부에 구립 도서관, 체육센터, 구민회관 등의 집객시설이 위치하여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다. 고척근린공원의 경우 약 108,000㎡의 면적을 차지하며 중앙의 광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구로근린공원의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7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로구청 등의 관공서가 인접해 있다. 약 8,000㎡ 면적의 근린공원으로 구로구민회관, 구의회, 예술교육진흥원의 앞마당 성격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표 3-5] 구로구 근린공원의 현황

근린공원			
			
공원개요		현황사진	
자연형근린공원	A. 개웅산근린공원 면적: 393,440㎡ 조성연도: 2006 시설: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생태 연못 등산로, 자연학습장		
	B. 계남근린공원 면적: 440,173㎡ 조성연도: 1971 시설: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조깅 트랙 야외무대, 약수터, 쉼터		

도시형근린공원	C. 고척근린공원 면적: 108,120㎡ 조성연도: 1988 시설: 고척도서관, 구민체육센터, 광장		
	D. 구로근린공원 면적: 7,901㎡ 조성연도: 2008 시설: 바닥분수, 야외무대, 쉼터		

다. 문화공원 및 기타 공원

구로구의 유일한 주제공원이자 문화공원에 해당하는 디큐브시티공원은 과거 대성연탄 공장 부지를 복합쇼핑센터로 민자 개발하면서 2006년 기부체납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벽천, 야외스탠드, 환경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고 신도림역과 쇼핑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이용이 매우 활발하다.

또한 항동저수지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기존산림을 활용하여 자연학습공간과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푸른수목원은 2004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3년 6월 개장하였다. 약 10만㎡의 면적에 입구광장, 도서관, 습지, 초화원, 온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부천시, 광명시와도 인접해 있다. 광역 도시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특정 기업이 공원돌보미로 지정되어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구로거리공원은 1993년에 조성된 녹지대를 공원화한 것으로 길이 360m, 폭 36m에 달하는 선형의 공원으로 2010년 정비 사업을 통해 운동시설과 산책로, 실개천등이 조성되었다. 광화문광장보다 큰 규모를 갖고 있으며 공원내부의 녹음이 풍부하여 공원 주변 업무지역과 주거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또한 주변에 여러 문화 및 쇼핑 시설이 인접하여 각종 야외 문화행사가 이루어진다.

가리봉동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과거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 터를 공원화한 사례로 구립도서관과 주차장을 설치하여 열악한 밀집 주거지역내에 필요한 문화공간과 주차 및 녹지공간을 같이 확보한 사례이다. 그 밖에도 과거 방재 및 농업시설로 사용되던 유수지와 저수지를 재생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

[표 3-6] 구로구 주제공원 현황

주제공원 및 기타공원


공원개요		현황사진	
문화공원	A. 디큐브시티 공원 면적: 3,655㎡ 조성연도: 2006 시설: 선큰광장, 벽천 야외테라스, 환경조형물		
기타공원	B. 구로거리공원 면적: 12,960㎡ (폭 36m 길이 360m) 조성연도: 1982 시설: 산책로, 운동, 휴게시설, 실개천		
	C. 하늘공원(하늘도서관) 면적: 5,753㎡ 조성연도: 2011 시설: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D. 푸른수목원 면적: 103,354㎡ 조성연도: 2013 시설: 입구광장, 습지, 계류원, 초화원, 온실 등		

라. 어린이공원

구로구의 밀집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해당 주거지 내의 유일한 도시공원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모든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써 구로구 공원녹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로구에는 총 25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으며 천왕동 지역의 2개소가 미시설이다. 이 중 11개소가 현재 상상어린이 공원으로 재정비되어 있다.

구로구의 대표적 어린이공원인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구로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7,782㎡의 정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로변에 접해있고 인근에 시장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어린이공원의 규모로는 구로구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지역에서 어린이공원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경로당, 지하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지역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구로리 공원지킴이)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마. 소공원 및 마을마당

구로구에는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13개소의 소공원과 40개소의 마을마당이 지정되어 있다. 마을마당은 법제도 상의 공원유형은 아니지만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소공원과 유사한 기능과 형태를 띠고 있다. 구로구에서는 두 경우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넓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로구의 경우 100㎡이하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마을마당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의 경우 1,000㎡ 이상의 비교적 큰 면적의 소공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입지적으로는 개웅소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와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은 대부분 휴게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일부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마을마당의 경우 대부분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구소유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경우가 많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복지관 같은 공공건물과 붙어있거나 빌라나 교회 옆 등 주거지 내 나지 및 유휴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소공원과 유사하나 평상이나 파고라가 설치된 단순한 기능의 휴게쉼터로서 성격이 강하다.

[표 3-7] 구로구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현황

어린이공원/소공원/마을마당

어린이 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개소: 25개소 (미시설 2) 면적: 49,343㎡ 특징: 상상어린이공원 11개소	개소: 13개소 (미시설 6) 면적: 22,266㎡ 특징: 아파트입구에 주로 입지	개소: 40개소 면적: 10,080㎡ 특징: 사유지 5개소

어린이공원	면적/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A. 구로리 어린이공원	7,782㎡ 구로구내 가장 큰 어린이공원 구로리공원 돌보미가 관리		
소공원	**면적/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B. 다울 소공원	244㎡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 휴게시설과 녹지위주 공간		
마을마당	**면적/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C. 은행나무 소공원	301㎡ 중학교 옆 위치 벤치, 체력 단련시설 설치		

2. 구로구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의 현황

구로구에 분포하는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에는 하천녹지, 아파트 녹지, 학교녹지를 비롯하여 도시경작지, 가로녹지, 공개공지 등이 있으며 기타 공공공간의 가능성이 있는 유휴지와 나지, 주차장 등이 있다.

분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로구의 중요한 수계로써 공원처럼 빈번하게 활용되는 하천녹지가 구의 경계부 및 중심에 위치하며 안양천, 목감천, 도림천이 이에 해당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로 간선도로 주변에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생활형 공원녹지 비율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학교 녹지의 경우 지역 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근거리에 2-3개소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단위 시설경작지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경작지는 산지주변으로 주로 분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의 산림 경계부에 위치한다. 기타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의 소규모 공공공간들의 경우 점적으로 산재하여 나타나며 민간 공간이지만 공공이 이용하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로는 종교 및 상업시설 주변 공지, 주거지내 나지를 활용한 주차장이나 텃밭부지 등이 있다.

하천녹지를 포함한 선형의 형태를 띠는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산책로(구로올레길), 가로녹지(생활도로) 등이 있으며 현재 총 31개소 46.2㎞ 의 길이로 조사되었다.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로 분류한 대상지의 면적은 약 3.24㎢로, 구로구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약 2.86㎢인 점을 고려했을 때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들은 이후 정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원녹지와는 달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한 생활형 공원녹지 자원으로 조사,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8] 구로구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구분	하천 녹지	산책로	생활 도로	아파트 녹지	학교 녹지	도시 경작지	옥상 정원	공개 공지	기타
개소	3	9	19	164	52	40	16	-	-
길이/면적	11.3㎞	28.5㎞	6.4㎞	2.3㎢	0.75㎢	0.18㎢	0.01㎢	-	-
계	46.2㎞			3.24㎢					

*수치지형도, 위성사진, 구정백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CAD구적으로 산정
*공개공지 및 기타 소규모 공공공간의 경우 지역별로 세부현황을 파악함

[그림3-10] 구로구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분포

가. 하천녹지 (안양천, 목감천, 도림천)

법적으로 하천은 방재시설에 해당하여 과거 치수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도시 생활권에서의 하천 둔치는 다양한 행태를 수용하면서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적인 기능도 가진 녹지자원이다. 구로구에는 총 5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중 구간이 짧은 역곡천과 많은 부분 복개된 오류천을 제외하고 안양천과 도림천, 목감천의 경우 생활형 공원녹지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천 폭이 100m이상으로 넓은 안양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천들은 서울시의 일반적 도심 내 소하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녹지공간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다.

안양천의 양쪽 제방은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로로 이용되어 제내지에서 하천으로의 접근은 불편한 편이다. 하천의 고수부지는 60m 내외의 상당히 넓은 폭을 갖고 있으며 양안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고수부지에는 주로 갯버들, 갈대, 물억새 등의 수변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이용구간에는 산책로와 운동장,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다. 과거 80년대 말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했었던 시기를 겪은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화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9] 구로구 하천녹지의 현황

하천녹지						
구분	계	A.안양천	B.도림천	C.오류천	D.목감천	E.역곡천
유로연장(km)	17.27	3.57	4.2	4.85	3.64	1.01
하천폭(m)	-	100~170	19~88	6~15	8~63	10~21

안양천	목감천	도림천
		

나. 아파트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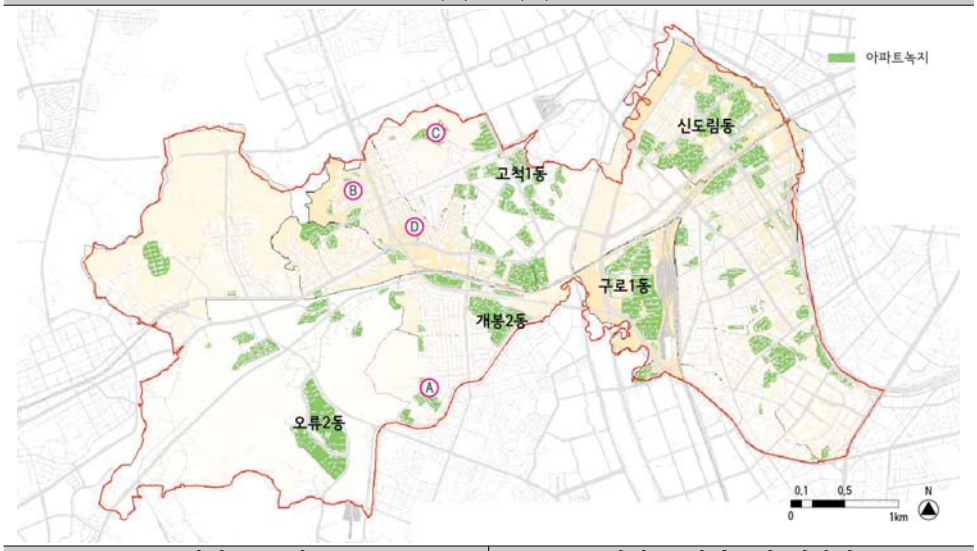
구로구 아파트 단지는 교통이 편리한 경인로와 남부순환로 인근의 신도림동, 구로1동 일대에 대규모 단지의 형태로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산림근처 경관이 좋은 곳에도 대단위로 입지하고 있다. 최근에 형성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외부공간이 양호하여 거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밀집 노후 주거지역에는 5동 내외의 소규모 연립주택 및 아파트 단지가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단지 주변 오픈스페이스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녹지대가 거의 없거나 일부 기능위주 식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거주민들이 빈 공터에 화분을 내어놓거나 일부 노출된 땅을 활용하여 텃밭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은 일부 담장을 허물어 가로환경을 개선하거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에 4번째로 많은 18개소의 열린녹지가 존재한다.[42] 사업으로 개방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수목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2)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표 3-10] 구로구 아파트 녹지 현황

아파트 녹지	
	
아파트 녹지	아파트 열린녹지 대상지
개소: 164 개소 면적: 약 2,300,000㎡	개소: 18 개소 조성면적: 1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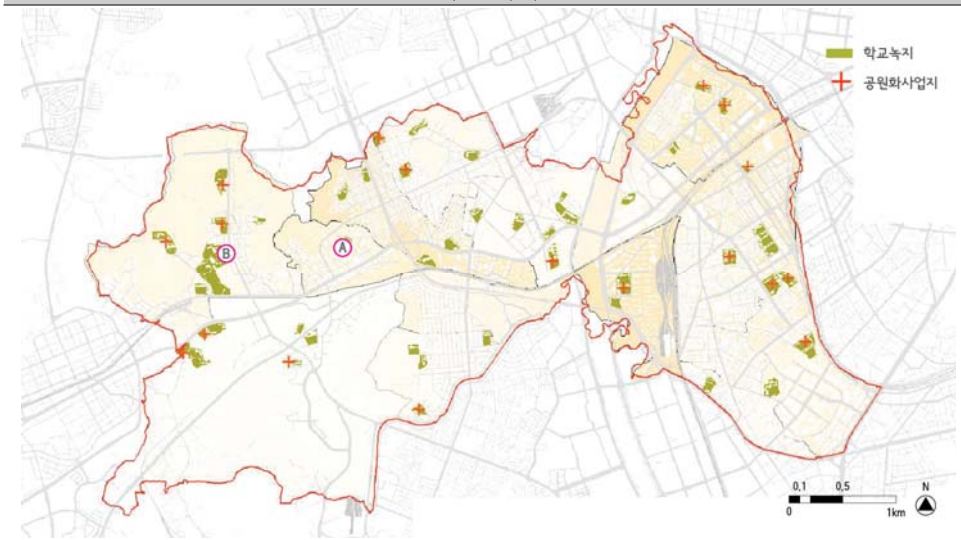
아파트 녹지	주요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A.한일아파트 개봉동 478	수목상태 및 녹지가 양호함 산책 및 휴게기능		
B,창동아파트 개봉동 20-5	녹지가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 어린이놀이터 폐쇄		
열린녹지	**주요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C.삼익아파트 열린녹지	가로환경개선 도로변 담장 허물고 소나무 및 관목식재		
D.고운아파트 열린녹지	일부 공간개방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공유		

다. 학교 녹지

학교 녹지는 기본적으로 인접한 주민들의 일상적 운동공간이자 조기축구회 등의 운동을 주제로 한 소규모 단체의 친목공간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공공용지로서 성격이 강해 생활권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학교공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학교숲 사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구로구에는 총 61개소의 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 24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4개소, 특수학교 3개소, 대안학교 1개소가 있다. 이 중 33개소의 학교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녹지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과 후 정해진 시간동안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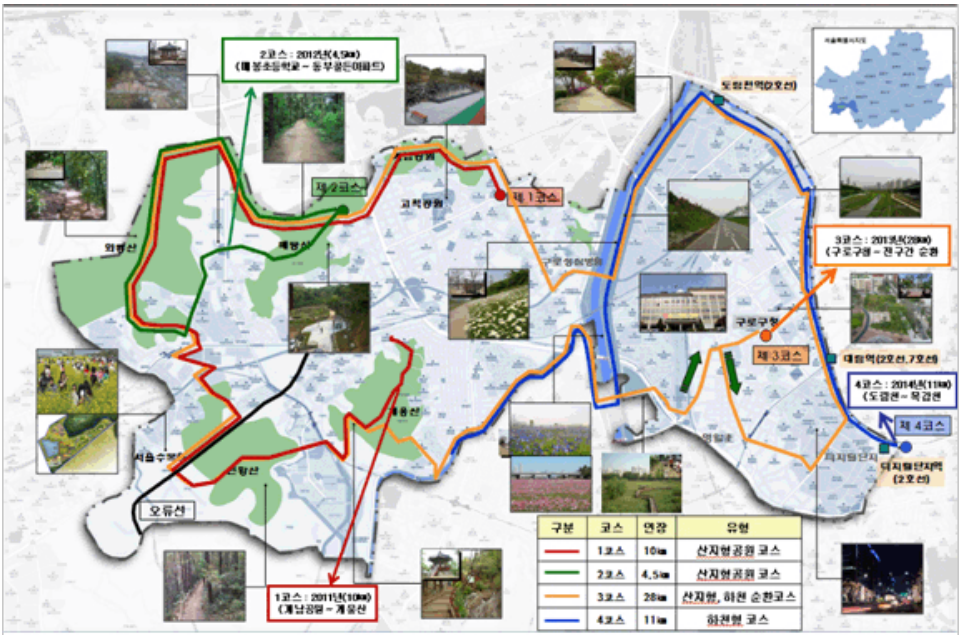
[표 3-11] 구로구 학교 녹지 현황

학교 녹지			
			
학교 녹지	학교공원화 사업 대상지	산림청 학교숲 대상지	
개소: 52 개소 면적: 750,000㎡	개소: 33개소 (조성: 20개소) 조성면적: 45,443㎡	구일고등학교	
학교 녹지	주요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A.오류 초등학교 (학교공원화)	녹지와 휴게시설로 구성 보차분리기능		

B,세종과학 고등학교	정문 옆 일부 부지를 개방 휴게시설 및 조형물 설치		

라. 산책로 (구로올레길)

2011년도에 조성한 구로올레길은 구에서 지정하고 구로구와 구로구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형 4개 코스와 하천형 3개 코스. 도심형 2코스로 구성되며 총 28.5km, 9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쾌적한 산책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부족한 녹지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자주 녹지공간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레길 구간별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산사모' 라는 주민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 주최로 매년 1~2회의 주민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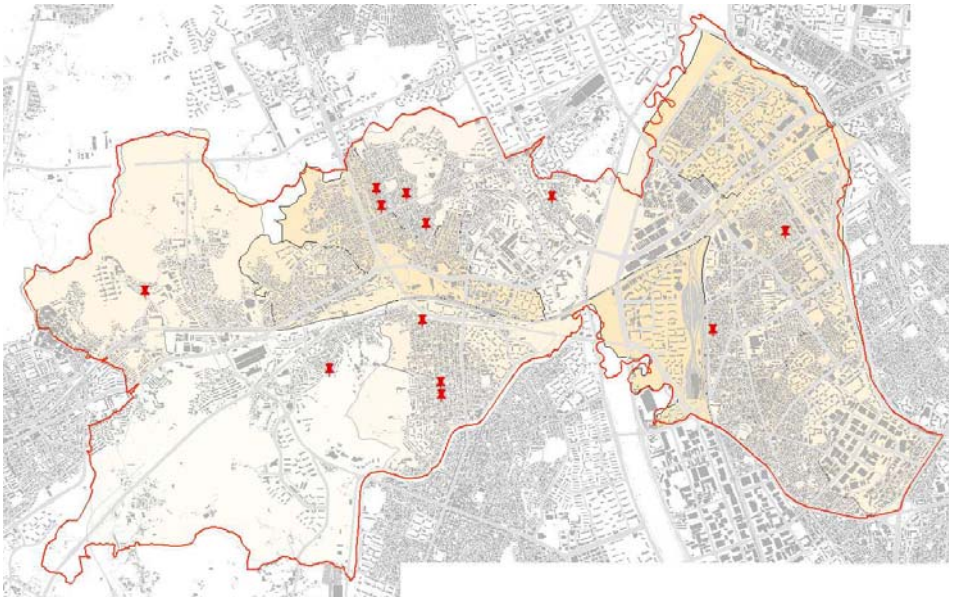
[그림3-11] 구로올레길 조성계획도 (출처: 구로구 홈페이지)

43) 명품구로올레길 홍보 웹사이트 http://cafe.daum.net/greenguroolleh

마. 가로녹지 (생활도로_녹색주차마을)

구로구는 주거지역 내부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 사례가 단독주택 담장허물기 사업과 이와 연계한 생활도로 조성사업[44] (그린파킹 사업)이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가옥수은 총 1,142개소로 2,800면 이상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6년간 19개소, 총 6,400m의 골목이 생활도로로 조성되었다.[45]

주로 6~8m의 국지도로를 중심으로 생활도로가 조성되었으며 이 중 우수사례지로 꼽히는 개봉3동의 개봉로 11길의 경우 2007년 조성된 길이 203m, 폭 7.5m의 양방통행 길로 주민참여율이 80%에 이른다. 또한 대상지 내 일부구간 화단을 설치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녹시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생활도로 조성이후 커뮤니티 개선과 방법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6]



[그림3-12] 구로구 생활도로 위치

44) 해당 골목과 진입로, 완성된 골목간이 연결도로를 사업범위로 정하여 골목사업이 50%이상 완성된 골목으로 참여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조성해 주는 도로이다.

45) 2013 구로구 구정현황

46) 김상희 외 (2011).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실효성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 12권 1호. pp 5-20
구자훈 외 (2011). 서울시 골목길 담장허물기의 여부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활동의 양적 차이 비교분석. 한국도시설계획회지. 제 12권 4호. pp 5-20

[표 3-12] 생활도로 조성예시도 및 현황사진

생활도로 예시도	현황사진
 개봉로 11길 예시도 (출처: 한라영. 2011)	 

바. 도시 경작지 (주거지내 텃밭, 농촌 체험장 등)

주거환경 주변에 위치한 도시 경작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호한 텃밭이나 농장의 커뮤니티 효과와 생산적인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로구는 과거 산지와 하천 주변으로 논밭이 넓게 분포하던 지역으로 시가화 된 지역을 벗어난 구 외곽으로 아직도 시설 경작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도심 내부와 주거지역과 접한 산림주변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도시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산림주변에 위치한 밀집주거지역의 경우 대체로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노인층의 인구가 주로 거주하므로 자급자족과 여가의 목적으로 일부 산지를 경작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규제에 묶여있는 토지를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거나 주말농장의 형태로 분양, 관리하는 경작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관리가 양호한 편이며 인근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작공간이 난립한 형태를 띠며 관리상태도 불량한 편이다.

또한 주거지역 내부 유휴지를 활용한 소규모 도시 경작지는 주로 개인소유의 나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텃밭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토지 소유주가 관리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텃밭들은 규모가 작고 주택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일반인의 출입과 훼손에 민감하다.

[표 3-13] 구로구 도시 경작지 현황

산지 주변 도시 경작지	면적/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그린벨트 내 산림 경계부	600㎡ 그린벨트지역 토지소유주에 의해 경작		
빌라 옆 산림 경계부	300㎡ 도시자연공원 내 위치 인근빌라주민의 경작		
기타 도시 경작지	**면적/특징**	**위치 (위성사진)**	**현황사진**
수궁골메뚜기 농촌체험학습장	1,500㎡ 버려진 땅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로 조성		
오류IC 내 농촌체험텃밭	1,800㎡ 지역주민 및 어린이 참여 불우이웃기증 출처:시민일보		
구로구 구로동 주거지 내부텃밭	110㎡ 주택 뒤편의 나지에 위치		

사. 기타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

그 밖의 기타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대표적으로 옥상정원이 있으며 2011년 기준 구로구에는 총 16개소의 옥상녹화 사업지가 있다.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

원 등의 교육시설과 구민회관, 병원 등의 공공건물이 주 대상건물이다. 공공건물을 제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옥상정원의 경우 일반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기능이 제한적이다.

그밖에 구로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 유형으로는 공공건물 주변 공개공지나 공공공지, 교회나 동네 슈퍼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쉼터 등 오랜 기간 지역 커뮤니티에서 유지해온 오픈스페이스가 있으며, 주차장 및 유휴지처럼 공공공간은 아니지만 추후 생활형 공원녹지로써 전환이 가능한 부지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생활형 공원녹지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동안 이용하며 소유현황과 주요시설에 따라 관리의 차이가 발생한다.

[표 3-14] 구로구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사진	
공공건물 주변 공개공지	 궁동 사회복지관 앞 공개공지	 고대 구로병원 앞 공개공지
옥상녹화 사업지	 궁동종합 사회복지관	 구로2동 내 어린이집(불가)
지역 내 동내쉼터	 수궁동 해바라기마트 앞 쉼터	 남구로교회 등나무쉼터
주차장 및 유휴지	 남구로시장내 유휴지	 오류동교회 주차장

제4장 구로구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분석

1절 구로구 지역 생활권 설정과 주요 분석내용

1. 생활환경을 고려한 구로구의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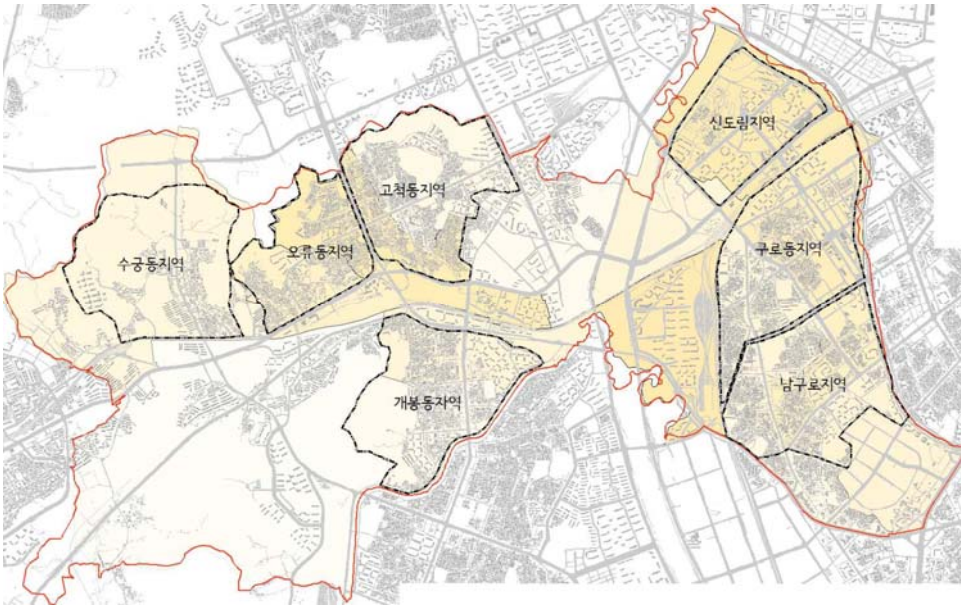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유형을 중심으로 구로구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로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형 공원녹지를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는 지역 내 여러 장소에 산재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

따라서 구로구의 전반적인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더 작은 스케일의 지역 생활권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 및 간선도로, 자연환경, 지역 커뮤니티 범위, 사회적 환경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유사한 성격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7개 지역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지역 중 단독주거지 분포가 높고 녹지특성이 다른 4개 지역 생활권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 남구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형 공원녹지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4-1] 구로구 세부 지역의 설정

	구분	행정구역	면적	인구	주택호수
1	오류동 지역	오류1동,개봉1동	0.9㎢	35,000명	599 호 (아파트 27동)
2	수궁동 지역	수궁동	1.4㎢	22,000명	1,647호 (아파트 46동)
3	개봉동 지역	개봉2동, 개봉3동	1.3㎢	55,000명	1,759호 (아파트 100동)
4	고척동 지역	고척2동, 개봉1동	1.3㎢	50,000명	2,440 호 (아파트 61동)
5	신도림 지역	신도림동	0.9㎢	23,000명	377 호 (아파트 110동)
6	구로동 지역	구로2동, 구로5동	1.4㎢	50,000명	2,506 호 (아파트 74동)
7	남구로 지역	구로4동, 구로2동 구로3동, 가리봉동	1.3㎢	65,000명	2,814 호 (아파트 86동)

*재개발예정지역인 가리봉동 지역과 택지개발지역인 오류2동지역은 제외함
*면적과 주택호수는 수치지형도와 GIS 분석을 통해 산정함
*인구산정은 속한 행정동의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면적비율로 추출함



[그림4-1] 구로구 지역 생활권의 구분

[표 4-2] 지역별 주요 녹지유형과 특성

구분	주요 녹지유형	특성
오류동 지역	도시자연공원 학교 녹지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주요 녹지자원 오류초등학교와 개봉중학교가 생활권 중심에 위치
수궁동 지역	도시자연공원 도시 경작지	온수초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가 중심 녹지로 활용 산지 경계부와 노후 아파트 단지 내 경작지 분포
개봉동 지역	어린이공원 하천녹지	개웅산근린공원, 목감천 하천녹지가 주요 녹지자원 생활도로가 발달해 있고 소규모 공원녹지가 산재
고척동 지역	도심형 근린공원 아파트 녹지	고척근린공원, 아파트 녹지가 주요 녹지자원 세곡초등학교, 덕의초등학교가 생활권 중심에 위치
신도림 지역	아파트 녹지 하천녹지	도림천과 양호한 아파트 녹지가 주요 녹지자원 역세권 주변 양호한 공개공지 및 문화공원 위치
구로동 지역	근린공원 가로녹지	구로근린공원과 거리공원이 주요 녹지 자원 가로녹지와 주거지 내 소규모 녹지공간이 양호
남구로 지역	어린이공원 소규모 기타녹지	하늘공원, 어린이공원이 주요 녹지자원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가 산재해서 분포

2. 분석내용 및 방법

가. 주요 분석내용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공원녹지를 평가,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입지적인 면과 시각적인 면을 평가하는 공간특성 분석과 이용자들의 행태나 만족도 등을 분석하는 이용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연구의 성격과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소규모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질적 평가를 연구한 이상민 외(2011)의 연구에서는 영국 CABE space[47]가 제시한 '잘 만들어진 공공공간의 특성'과 미국 PPS[48]가 제시한 '좋은 장소의 기준'을 바탕으로 5가지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5가지 항목을 열린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 안전함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활동, 정체성이 있는 이미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좋은 공간환경이 갖는 특성 또는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표 4-3] 좋은 공공공간의 조건 및 세부속성 (출처 : 이상민 외. 2011)

조건	세부속성
열린 접근성과 연결성 (access & linkage)	인지하기 쉬운공간 (readability)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accessibility)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proximity)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 (continuity)
안전성과 편안함 (safe & comfort)	친근한 공간 (friendliness)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relaxation)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 (walkability) 장애인, 노약자들을 배려한 공간 (universality)
다양한 이용과 활동 (use & activities)	도시여가활동의 무대가 되는 공간 (urban recreation)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 (attractiveness) 여러 용도로 이용가능하며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diversity)
정체성 있는 이미지 (identity & image)	역사 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history) 문화적 자산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pride) 이야기 거리가 있는 공간 (story telling) 아름다운 외관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간 (beauty)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세련된 공간 (design)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ownership & management)	조성 및 관리과정에 참여해 애착이 있는 공간 (participation)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공간 (affordability)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공간 (sustainability)

47) 영국 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 Build Environment) space는 2003년 설립된 공공공간 디자인에 관한 자문기관

48) 미국의 PPS (Project for Public Space)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공공공간의 생성과 유지를 위해 1975년 건립된 비영리단체

구로구는 각 지역별로 기존의 공원녹지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 간의 직접적인 비교보다 서로 가지고 있는 녹지자원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또한 일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밀집 주거지역의 경우 방치된 공간들의 일상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커뮤니티 및 지역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원녹지 계획에서 더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공공공간을 평가하는데 있어 녹지의 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해당 공원녹지가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좋은 공공공간이 가지는 조건 및 세부속성] 중에서 지역단위 생활형 공원녹지의 평가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여 지역별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원녹지 이용자들의 주요 계층과 행태, 기타사항들을 조사하여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의 이용적 측면의 문제점이나 잠재력, 지역의 고유성 등을 파악하였다.

[표 4-4] 생활형 공원녹지 특성분석 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간특성 (관찰/분석)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상중하로 평가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상중하로 평가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상중하로 평가			
이용특성 (관찰/인터뷰)	이용계층	성별 / 연령 / 동반유형			
	주요행태	놀이 / 휴식 / 대화 / 산책 및 운동			
	기타사항	인터뷰 내용 (방문빈도 / 접근거리 / 이용목적)			

나. 분석방법

3장에서 파악한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언급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주요 대상지의 조사시트를 작성하는 분석방법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전 조사한 공간정보 현황을 기초로 하되 추후 현장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생활형 공원녹지의 내용을 공간 정보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

을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공원녹지의 이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시간대 (13~18시)에 대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형 공원녹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해당지역 내 분포하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며 대상의 전체적인 분포와 유형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와, 이용자 인터뷰와 공간특성 및 행태관련 평가를 위한 본조사로 나누어 2회 이상 조사하였다.

현장조사 시 주요 관찰내용으로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이용객 수와 이용계층, 주요 행태 등을 파악하고 속성별로 생활형 공원녹지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가능한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이용특성을 같이 조사하였으며 주요 인터뷰 내용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실시하였다. 이용 빈도와 목적, 거주지역과의 거리, 자주 가는 공원녹지의 여부 등이 주된 조사 항목에 해당한다. 인터뷰는 각 공원별로 주 이용계층에 해당하는 1~5명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생략하였다.

[표 4-5] 관찰 및 인터뷰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관찰내용	위치/형태	생활형 공원녹지의 실제 분포지역과 형태
	공간특성	생활형 공원녹지의 세부 평가속성 S1 접근성 / 개방성 S2 이용성 / 안전성 S3 정체성 / 심미성
	이용특성	생활형 공원녹지의 주요 이용특성 N1 이용객 수 N2 이용계층 : 연령, 성별 N3 주요행태 : 산책, 휴식, 놀이(육아), 운동, 대화 및 모임
인터뷰 내용	주요 도시공원 / 제도상 생활형 공원녹지	이용목적과 이용만족도, 주변녹지 이용여부 Q1 집부터 공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Q2 공원을 일주일에 몇 변 이용하는지 Q3 공원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지 Q4 주로 누구와 같이 오는지 Q5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Q6 주변에 이용하는 다른 공원녹지는 무엇인지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이용이유, 주변공원녹지 이용여부 Q1 이 장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Q2 자주 가는 공원이나 녹지가 있는지 Q3 있다면 얼마나 자주 가는지 Q4 없다면 왜 가지 않는지

2절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분포와 특성

1. 남구로 지역 (구로4동, 구로2,3동 일부, 가리봉동 일부)

가. 지역특성과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구로4동과 인접한 3개의 행정동 일부를 포함하는 남구로 지역은 구로구 내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과거 구로공단의 배후주거지로서 오랜 기간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주변으로는 서측에 철도차량기지와 구로 IC가 있으며 지하철역은 7호선 남구로역 2호선 대림역이 있다. 지역 중심에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주요 공공시설로는 고대구로병원이 위치한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65,000명, 가옥 수는 약 2,800호로 대부분 단독 및 연립주택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단지는 16단지 86개동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어린이집 27개소와 영일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서중학교 등 6개소가 위치한다.

대상지 내에서 파악된 도시공원은 총 9개소로 구로리 어린이공원, 하늘공원이 가장 넓은 면적의 공원자원이며 소공원과 마을마당 4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학교녹지 중 구로중, 영서중, 동구로 초교의 3군데 학교가 공원화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늘공원 주변 지역은 주변 녹지자원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표 4-6] 남구로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구분		항목	개소	면적/길이	비고
제도상 생활형 공원녹지	도시공원	근린공원	-	-	-
		어린이공원	4	11,000㎡	구로리어린이공원
		소공원	1	200㎡	다울소공원
		주제공원	-	-	-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기타공원	1	5,750㎡	하늘공원
		하천녹지	1	1.2㎞	도림천
		도시자연공원	-	-	
		마을마당	3	280㎡	
		학교공원화사업지	3	4,760㎡	구로중, 영서중
		열린녹지/동네숲	1	50㎡	동구로초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공공/공익 공간	공개공지	3	1,150㎡	고대구로병원
		하교운동장/녹지	6	107,400㎡	
		가로녹지(시장길)	1	0.5㎞	남구로시장
		가로녹지(생활도로)	-	-	
		옥상정원	4	1,280㎡	구로2동 주민센터
	일정커뮤니티 공용공간	아파트단지 내 녹지	15	196,400㎡	두산, 삼성아파트
		종교시설 내 공지	4	1,800㎡	구로동교회 쉼터
		커뮤니티 경작지	-	-	
		마을 휴게쉼터	3	120㎡	장미슈퍼앞 쉼터
	활용가능한 기타공간	양호수목식재지	13	-	측백나무보호수
		유휴지 (텃밭)	3	-	
		유휴지 (나지)	1	-	
		유휴지 (주차장)	10	-	
합계			77	331,200㎡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위성사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고 현장조사로 보완함

[표 4-7] 남구로 지역의 지역현황

지역 위치도
남구로 밀집주거지역
구로2동, 구로 3동, 구로4동, 가리봉동 일대 면적 약 1.3㎢ , 인구 65,000명

주요 공간과 지역 특징
선정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 주변에 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디지털단지, 구청 및 업무지역이 위치하여 통근, 통학에 유리 구로구 내에서 노인 및 장애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며 외국인 인구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

나. 대표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

1) 어린이공원

남구로 지역 내 가장 활성화된 공원녹지인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구로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어린이공원으로 근린공원과 유사하게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로변에 인접하여 인지성과 접근성이 좋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다. 주 이용행태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공간과 그 주변으로 주부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외곽 경계부와 진입공간 주변으로는 노인 이용자들 위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로 장기를 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인근에 공원부지가 없고 활용가능한 공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서로 장소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의 어린이 공원은 3개소가 존재하며 500㎡ 내외의 일반적인 규모로써 놀이시설 위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일정범위 내에서 유일한 공원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용이 활발하며 어린이집과 접한 1개소(희망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2) 기타공원(하늘공원)

2011년 서울시의 1동 1마을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하늘공원은 가리봉동 노후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도서관, 주차장등의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해당지역 내에서 부족한 여러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적절한 입지조건과 문화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만족도가 높으며 공원녹지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주로 노인 및 여성 이용자가 많으며 공원 이용은 산책과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의 이용이 두드러졌는데, 공원 취약지역의 경우 공원이 제공하는 여러 이점 중에 육아, 건강증진 같은 실제적인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인터뷰 결과 많은 이용자들이 주로 5분이내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하늘공원을 대체할만한 어린이 놀이공간과 운동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공원 및 마을마당

소공원과 마을마당은 총 4개소가 있으며 입지에 따라 방치된 곳과 잘 활용되는 곳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통행량이 많고 인지성이 높은 곳에 위치한 다울 소공원과 일부 마을마당의 경우에 이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변 환경이 개방되고 밝은 분위기의 경우 이용자수와 체류시간이 길게 조사되었다. 보통 휴게시설과 그늘식재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쉼터로서 사용된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4) 아파트 녹지, 학교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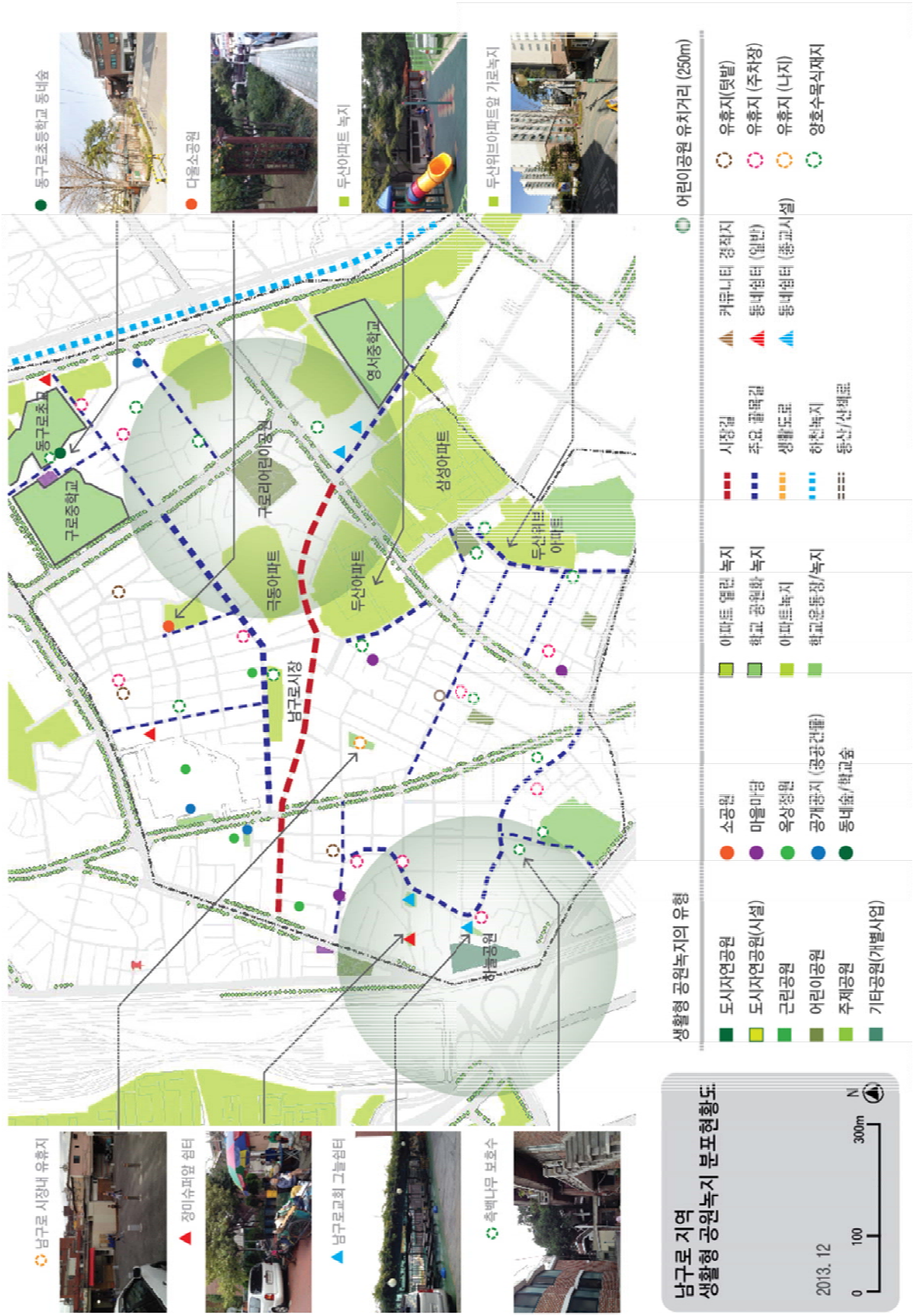
남구로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에 접해있고 서쪽에 입지하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삼성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많고 단지 내 녹지 환경이 양호하여 거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산책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방치된 어린이놀이터, 녹지공간이 일부 파악되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경계부분이나 진입부의 녹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지역 학교 녹지 중 3개 학교의 공원화사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공원화 사업지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이용 상의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학생들의 놀이 및 운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뷰 결과 주말이나 방과 후에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기타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

이외에 관찰된 주거지역내에 산재한 기타 소규모 공원녹지로는 건물 앞 공개공지와 교회, 슈퍼마켓 등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동네쉼터,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유휴지 등이 있다.

구로2동에 위치한 장미슈퍼앞 쉼터는 화단과 화분, 간이 테이블로 이루어진 소규모 쉼터로 제한된 커뮤니티의 고정적 이용자가 존재한다. 구소유의 화단에 슈퍼 소유의 파고라나 평상들을 설치하여 쉼터로 조성한 곳으로 인근 남복지관과 서울남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를 활용한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



[그림4-2] 남구로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분포현황도

[표 4-8] 남구로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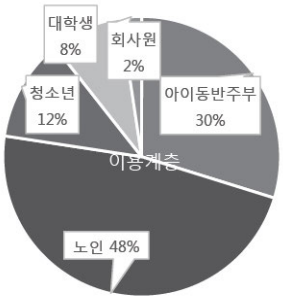
구로리 어린이공원	2013.10.07 17:00 맑음 2013.10.22 13:00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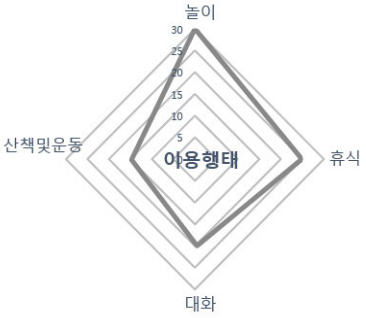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9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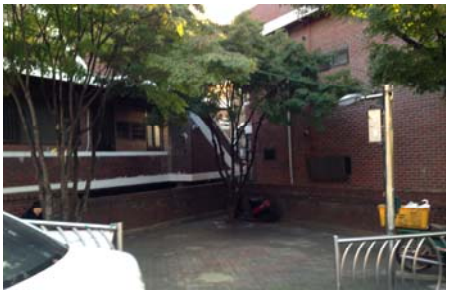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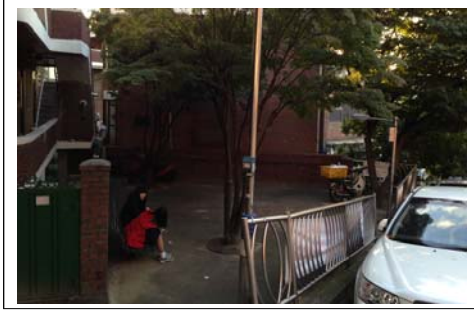




▶30대 중반 주부 이용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주일에 5일 이상 방문 하여 1시간정도 머묾
시설이 양호하고 분위기가 밝아서 좋고 주부들 있을 공간 필요
일부 노인들 술먹고 담배피는 것 제재가 있었으면
▶60대 노인 이용자
인근 빌라에 거주하며 거의 매일 방문, 장기를 두거나 휴식, 3시간이상 머묾
경로당 노인들로 결성된 공원돌보미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표 4-9] 남구로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마을마당)

구로2동 마을마당	2013.10.07 16:30 맑음 2013.10.22 16:4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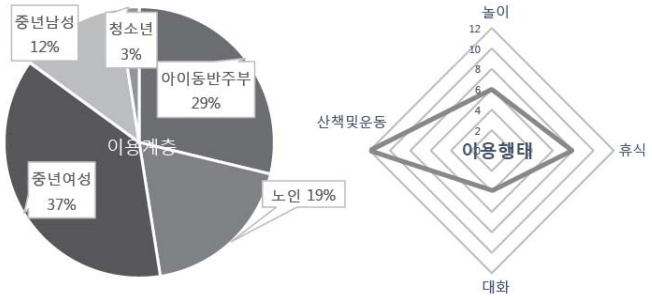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2명 내외	청소년 2명	휴식 및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중학교 여학생 2인 친구들끼리 자주모이는 장소 중 하나로 현재 공간에 대해 만족함 20분정도 거리의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며 거의 매일 와서 30분정도 머뭄 인근 솔길공원도 자주 이용 ▶인근주민 중년여성 3인 여름에는 그늘이 좋아서 자주 이용하나 평상시에는 별로 이용하지는 않음 주로 애들이 이용하고 밤에 소란스러워 민원이 발생해 설치된 평상을 치움 공원은 자주 안가고 가까운 하늘공원을 가거나 그냥 동네 몇 바퀴 도는 정도	

[표 4-10] 남구로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기타공원)

하늘공원	2013.10.07 15:40 맑음 2013.10.22 16:0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30여명	 ▶30대 중반 아이동반 주부 근처 단독주택에 살며 주변에 아이놀 곳이 마땅치 않아 주 5회 이상 방문함 공원조성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장남감나라, 구로리공원까지 갔음,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더 있었으면 ▶20대 남성 이용자 10분 내에 거주하며 주로 혼자서 바람 쐬러 저녁에 거의 매일 방문 30분정도 머물며 산책과 휴식, 주변에 다른 공원은 가지 않음 ▶50대 중년여성 이용자 거의 매일 방문하며 주로 친구와 운동하러 자주 찾음. 한 시간 반가량 운동위주로 이용, 공원 없을 때는 멀리 등산가거나 동네 길 걷는 정도

[표 4-11] 남구로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슈퍼 앞 쉼터)

장미슈퍼 앞 쉼터	2013.10.07 16:10 맑음 2013.10.22 16:0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3~7명	남성노인 1~3명 중장년층 2~4명	휴식 및 대화 위주
	주로 남성 장년층들이 잠시 머물면서 담배를 태우거나 휴식 및 대화가 이루어짐. 노인층의 경우 오랜 시간 시간을 보냄 ▶60대 후반 노인 근처에 살고 별 목적 없이 자주 와서 대화하고 감 걷기 불편해서 공원까지 가지 않음	

다. 종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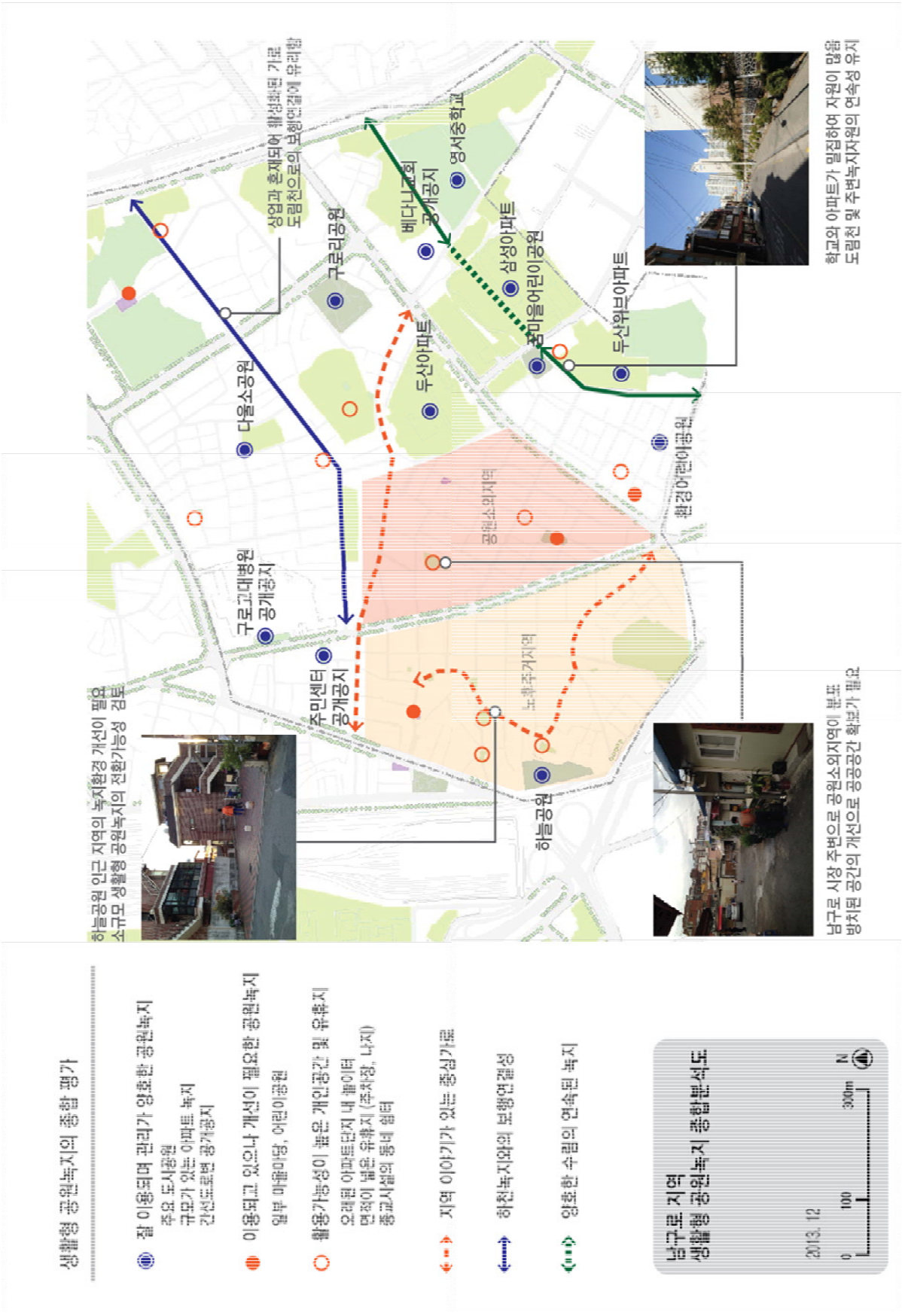
남구로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를 종합해보면 비교적 잘 이용되고 관리가 양호한 공원녹지로는 주요 도시공원을 포함하여 규모가 있는 아파트 녹지, 간선도로변 공개공지를 들 수 있다. 또한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인공간이나 유휴지로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와 비교적 넓은 면적의 노후 지역 주차장부지, 종교시설의 동네 쉼터 등이 있다.

남구로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 내 공원녹지의 양적 확보와 가로환경 및 녹지의 연속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길과 일부 구간의 주요 골목길은 지역의 이야기가 있는 중심가로로 주민들과 같이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철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서측보다 동측에 위치한 양호한 하천 녹지로의 보행유도와 가로경관 개선이 필요하다.

밀집 주거지역의 경우 비교적 경사가 있는 지형적 조건과 이동의 제약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으로 소규모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한 곳이다. 조사 결과 다양한 유형의 가용부지가 분포하는 곳이므로 활성화된 골목길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마을마당과 교회 및 상업시설의 외부공간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인터뷰 결과 남구로 지역은 공원수는 부족하지만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사회적으로 환경개선의 의지나 기대감,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다. 단순히 가까운 위치의 공원녹지를 주로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굳이 공원을 가지 않더라도 동네 골목길이나 주택인근 텃밭이나 개인 화단을 가꾸는 등의 일상적인 녹지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노년층을 제외한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주로 운동과 육아의 목적으로 지역 내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며 이와 같이 특정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이용자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부족한 도시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공간을 세대별로 분리하여 사용하며 이때 상호간의 무관심이나 일부 적대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불량한 환경의 방치된 녹지공간은 오염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녹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4-3] 남구로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종합분석도

2. 고척동 지역 (고척2동, 개봉1동)

가. 지역특성과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고척2동과 개봉1동에 해당하는 고척동 지역은 중앙에 위치한 고척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으로 공원 남서쪽으로 단독 및 연립주택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밀집 주거지역의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이 좁아 주차공간 및 녹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80년대 초부터 형성된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지속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발생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동서를 관통하는 고척로를 기점으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산지로 이루어진 계남근린공원 북측으로 양천구와 맞닿아 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50,000여명, 가옥 수는 2,440호 이며 아파트는 13개단지, 61동이 있다. 교육시설은 덕의초등학교, 오류중학교 등 5개소의 학교가 있다.

주요 공원녹지는 고척근린공원을 비롯해 덕의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등 구로구 내에서 근린공원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북동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접근하는 동선의 경사가 심해 단독 및 연립 주거지역에서의 접근이 어렵다. 또한 밀집 주거지역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의 생활형 공원녹지의 수가 부족하며 가용부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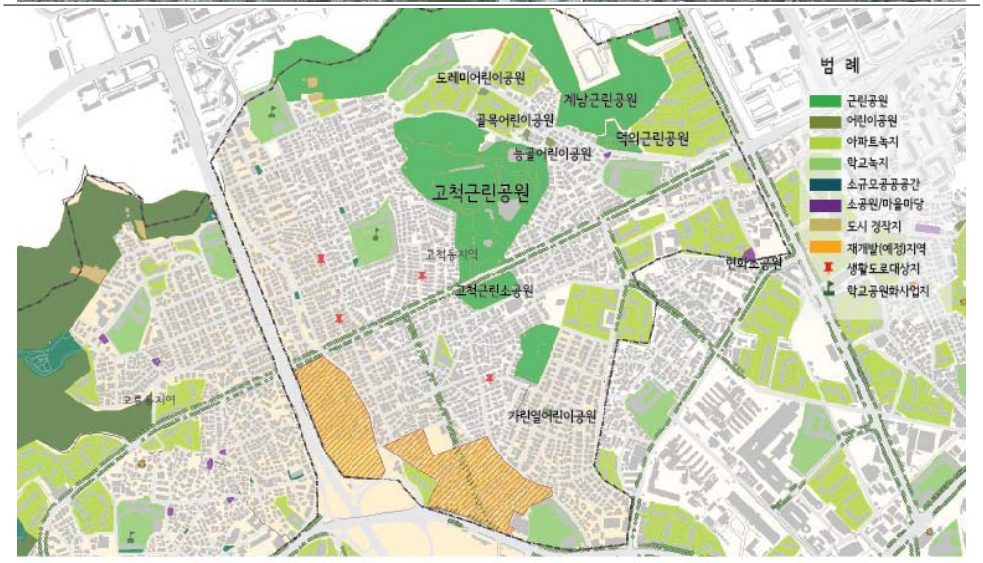
[표 4-12] 고척동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구분		항목	개소	면적/길이	비고
제도상 생활형 공원녹지	도시공원	근린공원	3	272,500㎡	고척,덕의,계남공원
		어린이공원	4	1,280㎡	도레미,골목,능골,가린열
		소공원	1	720㎡	현화공원
		주제공원	-	-	
		기타공원	-	-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하천녹지	-	-	
		도시자연공원	-	-	
		마을마당	3	300㎡	
		학교공원화사업지	2	1,370㎡	오류중,세곡초
		열린녹지/동네숲	2	800㎡	삼익2차아파트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공공/공익 공간	공개공지	-	-	
		하교운동장/녹지	5	65,900㎡	덕의초교
		가로녹지(시장길)	1	0.4㎞	고척근린시장
		가로녹지(생활도로)	4	1.4㎞	
		옥상정원	-	-	
	일정커뮤니티 공용공간	아파트단지 내 녹지	13	140,970㎡	푸르지오아파트
		종교시설 내 공지	1	160㎡	평화성결교회
		커뮤니티 경작지	2	1,300㎡	
		마을 휴게쉼터	4	350㎡	
	활용가능한 기타공간	양호수목식재지	9	-	
		유휴지 (텃밭)	-	-	
		유휴지 (나지)	3	-	
		유휴지 (주차장)	10	-	
합계			67	485,650㎡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위성사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고 현장조사로 보완함

[표 4-13] 고척동 지역의 지역현황

지역 위치도
고척동 지역
고척2동, 개봉1동 일대 면적 약 1.3㎢ , 인구 50,000명



주요 공간과 지역 특징
고척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양호한 공원녹지가 다수 분포함 타 지역에 비해 1인당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현재 일부지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개발 예정지가 분포함 공원자원이 풍부하나 경사로 인해 접근이 불리하고 지역 내 공원녹지 불균형이 심한 편임

나. 대표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

1) 근린공원

고척동 지역에는 총 3개소의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공원녹지 자원인 고척근린공원은 구로구 내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으로 약 108,0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에 고척 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하고 광장과 축구장,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남성 노인들을 중심으로 광장 주변 휴게공간이 점용되고 있으며 가족단위나 청소년층, 젊은 층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 주변, 운동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 내에서 광장주변 휴게공간과 산책로의 이용밀도가 높다.

덕의근린공원은 여계묘역[49] 일대를 공원화한 곳으로 역사공원의 성격을 띠며 가로에 접해 있어 휴게 및 통과기능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정자와 벽천, 바닥분수 등이 설치되어있고 체력단련시설이 동선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 및 경관 상태는 양호하며 옆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연계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출입이 활발하다.

2)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은 총 4개소로 이중 3개소가 (능골, 골목상상, 도레미공원)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풍부한 북동쪽지역 반경 100m이내에 밀집하여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쪽 주거지역에는 어린이 공원이 없고 남쪽에 1개소(가린열 공원)가 있어 고척동 지역 내 어린이공원 입지 상의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어린이공원 이외에 단지 내 놀이터의 이용도 활발한 것에 반해 단독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은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골목길이나 공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 소공원 및 마을마당이 4개소가 있으나 입지적으로 부적절하고 주로 휴게기능의 파고라나 벤치 위주로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3) 아파트 녹지, 학교 녹지

49) 조선 전기의 문신 여계와 그 부인의 묘역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80호_1991년 지정)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로 인해 최근에 조성되었거나 대규모 단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녹지가 양호하고 개방성이 높은 곳이 다수 분포한다. 대표적으로 고척 푸르지오아파트(2009년)와 대우아파트(1999년)가 주요 아파트 단지로서 공원처럼 사용되고 있다. 기타 단지 입구에 소공원이나 휴게공간을 조성한 경우와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을 실시하여 가로변 녹지를 개선하고 부족한 놀이공간을 공유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학교 녹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시행되었던 오류초교와 세곡초교의 경우 주변지역의 공원녹지가 부족하여 해당지역에 필수적인 녹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성과 이용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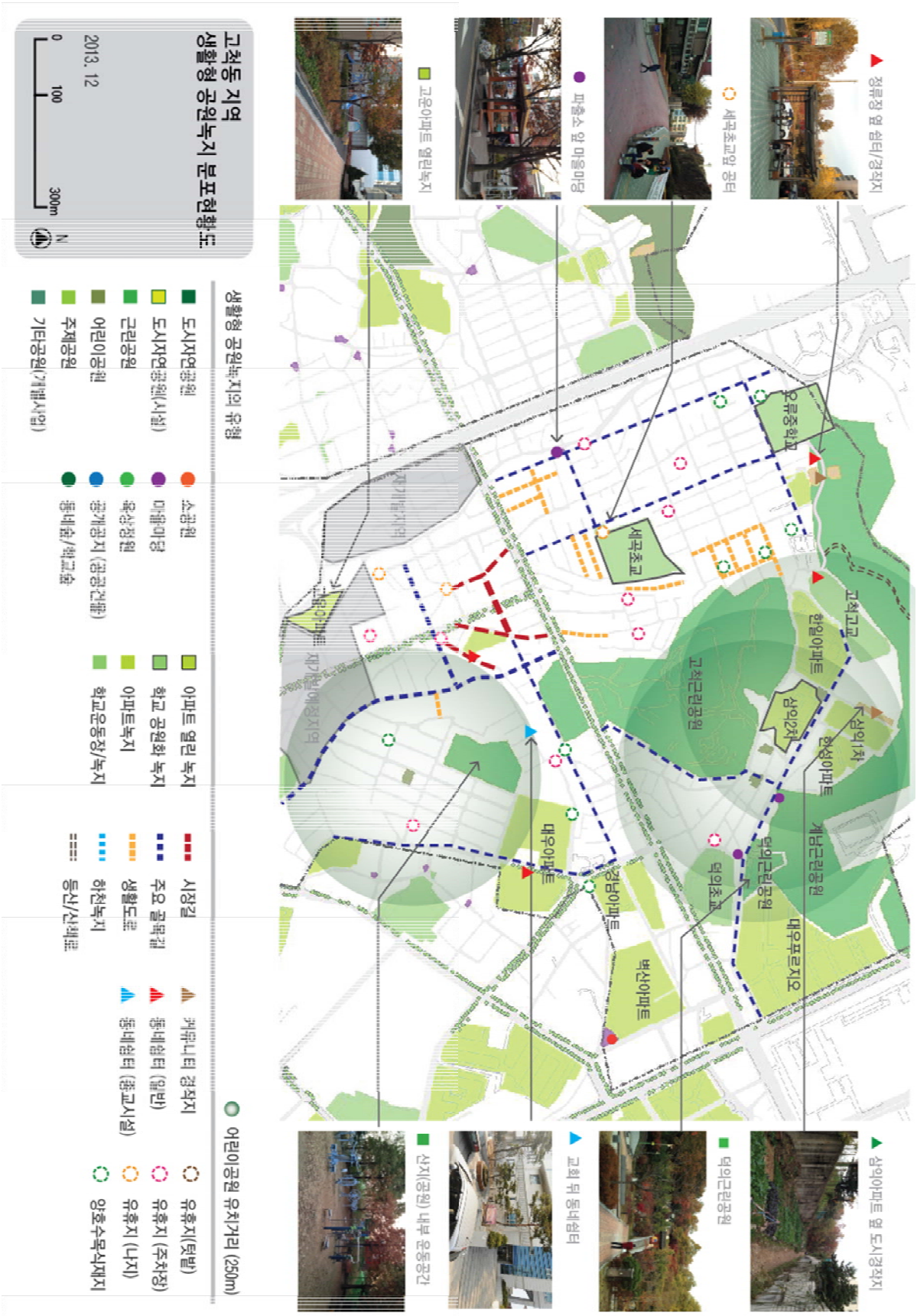
4) 생활도로

고척동 지역은 노후 주거지의 생활도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4개 도로, 약 1.4㎞ 구간이 조성되어있지만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타 지역의 생활도로에 비해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는 부족하다. 대부분 주차장 확보에 그치고 있으며 생활도로가 갖는 이점인 커뮤니티 활성화나 녹지 공간 확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골목길에 머무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주로 상가 옆이나 계단주변, 학교 앞 공터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다.

5)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산지 주변에 위치한 커뮤니티 경작지와 일부 동네 쉼터 등이 있으며 주로 아파트와 가깝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익아파트 옆의 경작지의 경우 개인 소유의 땅을 토지주가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하여 활용하고 있다. 조사 시 이용자는 없었으나 인터뷰 결과 약 15명 이상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척로 남측 배수지가 위치한 산지의 경우 정상부에 운동공간과 일부 휴게시설이 있으나 정비되지 않고 접근이 어려워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 지역은 공원 및 산지와 가깝고 오래된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지내 양호한 수목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유휴지의 경우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림4-4] 고척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분포현황도

[표 4-14] 고척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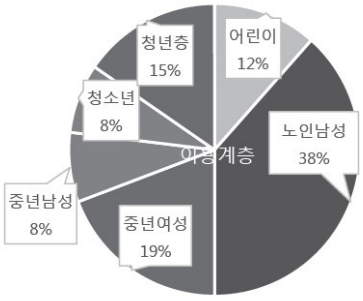
고척근린공원	2013.09.23. 15:10 맑음 2013.11.13. 15:50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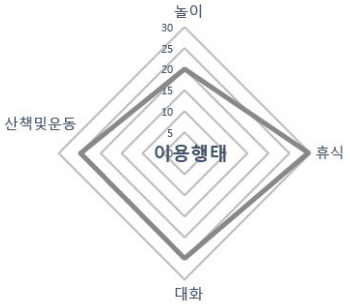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100여명





▶30대 초반 남성
일주일에 3~4회 체육센터 이용을 이해 방문함, 주로 저녁시간에 혼자 방문
신도림동에 거주하며 개인차량을 이용해 15분정도 이동
체육센터 이외 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음
▶40대 후반 여성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매일 한 시간 정도 산책과 휴식을 위해 방문함
주로 친구들과 방문하고 덕의공원보다 녹음이 좋아 선호함
▶60대 후반 노인
근처 주택에서 살고 주중 점심이후 오후시간 대부분(4시간이상)을 여기서 보냄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편하고 장기구경이나 사람구경하기 좋음

[표 4-15] 고척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커뮤니티 경작지)

삼익아파트 옆 텃밭	2013.09.23. 14:30 맑음 2013.11.13. 16:2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조사당시 경작 활동 없음 등산객 1명 경작지 외 기타시설 없음
	약 600m2의 긴 형태로 뒤편 산지와 연결됨 삼익1차아파트 출입구 옆 담장을 따라 길게 위치함 경작지 상태가 양호하고 주변 환경도 잘 정리되어 있음 ▶삼익아파트 경비원 개인 토지를 몇 사람(약 10여명)에게 분양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로 삼익1차아파트 주민들과 옆의 한성아파트 주민 일부가 와서 경작함 노인들이 소일거리나 취미활동이 주목적으로 보임

[표 4-16] 고척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임야 내 공터)

산림 내 운동공간 (배수지 주변)	2013.11.13. 17:2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조사당시 이용자 없음	운동시설. 휴게시설 설치
	비교적 큰 규모의 산지로 접근이 어렵고 내부에 배수지가 위치함 양측 두 군데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중앙부에 체력단련시설이 다수 설치됨 고지대에 해당하나 수목이 우거져 전망은 좋지 않음 ▶인근거주자 50대 후반 남성 5분 이내의 인근 빌라에 살고 운동을 위해 일주일 2회 정도 방문함 가끔 혼자 오거나 거의 부인과 같이 와서 30분정도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함 저녁에 어둡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단순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편	

[표 4-17] 고척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학교 앞 공터)

세곡초등학교 앞 가로 및 공터	2013.11.13. 16:5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10여명	초등학생 10여명 볼라드, 계단 등에서 대화 및 모임
	세곡초등학교 앞 공터로 방과 후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 볼라드나 앞쪽의 계단 주변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 및 휴식을 취함 주요 차량 동선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며 주변에 녹지와 오픈스페이스가 없어 안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세곡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에 학교내부를 개방하지 않음. 지역주민이라 해도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가능하고 학교공원화 내용은 아는바가 없음

다. 종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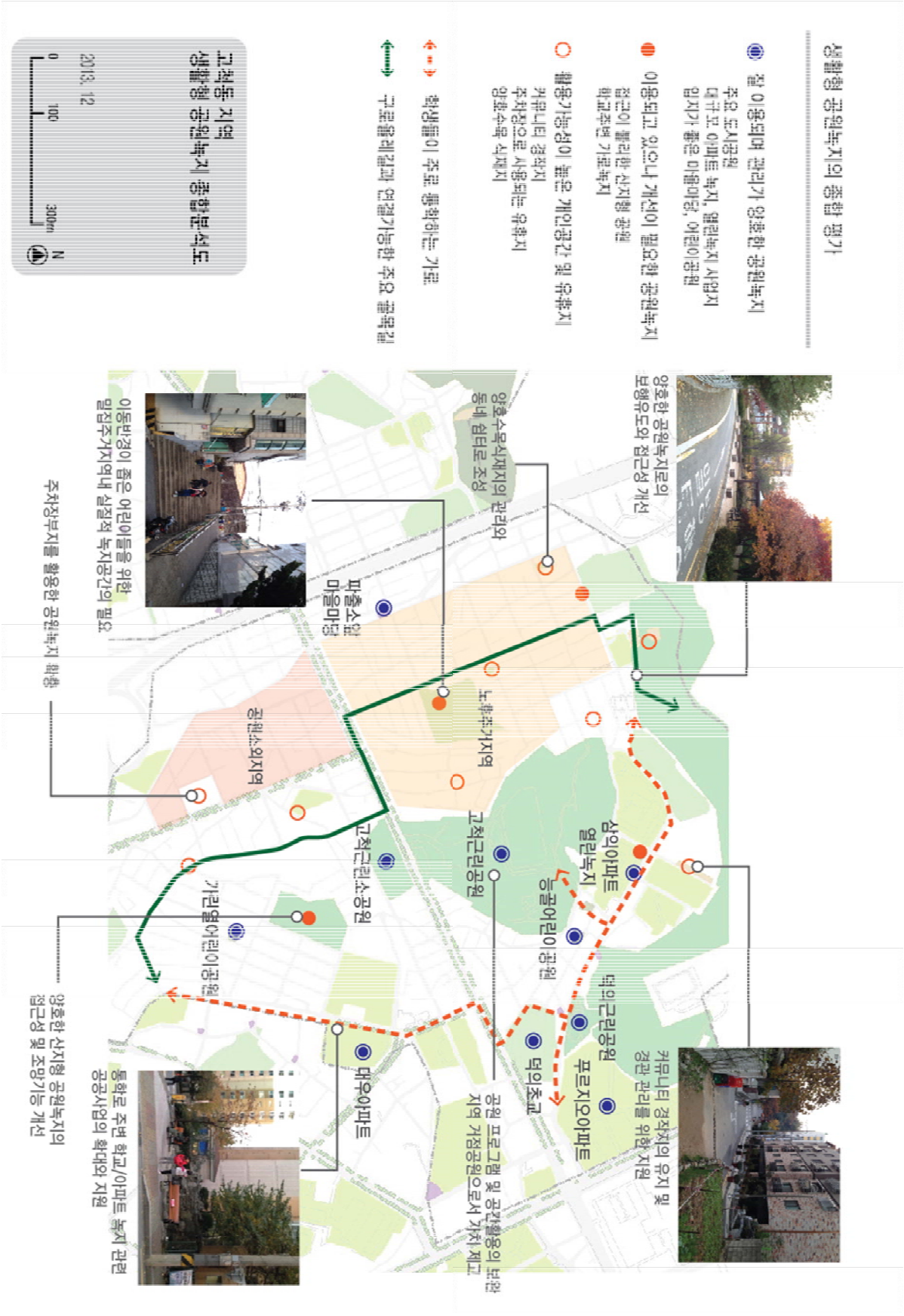
고척동 지역은 도시공원 이외에 대규모 아파트 녹지의 이용과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원녹지 자원이 부족한 서남측 주거지역 주변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공원녹지가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인 공간 및 유휴지로는 커뮤니티 경작지와 양호수목식재지 등이 있다.

이 지역은 고척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외곽 보행로를 따라 순환동선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동선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이자 양호한 공원녹지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길의 경사가 심한 편이며 구간별 가로경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보행유도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구로올레길과 연계한 마을 골목길을 정비하고 산지하부 커뮤니티 경작지를 양성화 하여 기존 산지주변 녹지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은 구로구 내에서 유일하게 양호한 근린공원이 넓게 분포하는 곳으로 그 중 1988년에 조성된 고척근린공원은 구로구 지역 전체주민을 위한 공원인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의 규모를 갖고 있다. 지역 내에서 이용성이 가장 높으며 이용자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공원 내 노인인구가 점유하는 공간의 비중이 높다는 측면과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이 단순하여 전체적 공원의 매력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의 거점공원으로서 휴게 및 운동 등 단순한 이용 이외에 주민들이 공원관리 및 운영에 참여하여 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고 공원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생활형 공원녹지 관련 주요 시사점으로는 공원녹지의 편향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불필요하게 과밀한 시설위주 공원들이 북동쪽에 집중되어 있어 공원녹지가 필요한 밀집 주거지역의 녹지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어린이,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녹지 이외에 공원녹지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생활도로 사업 및 학교공원화 사업이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역내 이동반경이 좁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위한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거 밀도가 높고 경사가 심해 실제 공원녹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휴지와 자투리 녹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학교녹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림4-5] 고척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종합분석도

3. 개봉동 지역 (개봉2동, 개봉3동)

가. 지역특성과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개봉동 지역은 개봉2동과 개봉3동에 해당하며 서측의 개웅산공원과 남측에 목감천이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관통하는 개봉로를 중심으로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남측으로는 목감천, 북측의 남부순환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형태를 갖고 있다. 개웅산 방향으로 경사가 이루어져 있고 격자형 도로구조가 발달하여 있으나 고지대로 향할수록 도로의 폭이 협소하거나 일부 막다른 골목이 존재한다. 이 지역은 7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많은 부분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일부 개인 주택 내 오래된 수목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1.3㎢이며 약 5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개봉동 지역은 자연성이 높은 공원녹지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그린벨트로 일부 지정된 개웅산근린공원이 있으며 산지 주변으로 커뮤니티 경작지가 넓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어린이공원 3개소, 마을마당 3개소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개웅어린이공원, 가린열북카페(쌈지공원)가 해당한다. 그 밖의 목감천 하천녹지와 주거지역 내 생활도로가 양호한 선형 녹지로 활용되고 있다.

[표 4-18] 개봉동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구분		항목	개소	면적/길이	비고
제도상 생활형 공원녹지	도시공원	근린공원	1	411,970㎡	개웅산근린공원
		어린이공원	3	2,690㎡	개웅,절골,소막골공원
		소공원	1	660㎡	개웅소공원
		주제공원	-	-	
		기타공원	-	-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하천녹지	1	1.7㎞	목감천
		도시자연공원	-	-	
		마을마당	3	430㎡	가린열북카페
		학교공원화사업지	1	470㎡	개명초교
		열린녹지/동네숲	-	-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공공/공익 공간	공개공지	-	-	
		하교운동장/녹지	4	39,430㎡	개봉초교
		가로녹지(시장길)	1	0.3㎞	개봉중앙시장
		가로녹지(생활도로)	4	1.3㎞	
		옥상정원	2	300㎡	
	일정커뮤니티 공용공간	아파트단지 내 녹지	10	74,960㎡	현대아파트
		종교시설 내 공지	1	170㎡	
		커뮤니티 경작지	4	8,500㎡	
		마을 휴게쉼터	2	530㎡	
	활용가능한 기타공간	양호수목식재지	9	-	
		유휴지 (텃밭)	2	-	
		유휴지 (나지)	1	-	
		유휴지 (주차장)	4	-	
합계			49	540,110㎡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위성사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고 현장조사로 보완함

[표 4-19] 개봉동 지역의 지역현황

지역 위치도
개봉동 지역
개봉2동, 개봉3동 일대 면적 약 1.3㎢ , 인구 55,000명, 주택호수 1,759호


주요 공간과 지역 특징
간선도로를 따라 생활권의 경계가 명확하고 격자형의 도로구조가 발달함 단독주거지, 아파트, 학교 등의 공간배치가 명확하게 구분됨 주거지역의 공원녹지는 부족하나 개웅산, 목감천 등 자연성이 높은 공원녹지가 인근에 분포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생활도로 사업이 활성화 된 지역에 해당함

나. 대표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

1) 근린공원, 하천녹지

개봉동 지역에는 산지를 활용한 개웅산근린공원이 있으며 진입부와 등산로 주변으로 휴게공간이 일부 존재하고 체력단련시설 등이 설치되어 등산 및 운동 등의 일반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악된 진입로는 총 4군데로 진입로 주변 산지 하부에 넓은 면적의 커뮤니티 경작지가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뷰 결과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지역주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자급자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봉동 지역 남쪽을 따라 흐르는 목감천은 하천폭 60m 내외의 안양천 지류로서 고수부지의 정비가 잘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 광명시와 맞닿아 있으며 주로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운동장과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이용이 두드러진다. 다른 생활형 공원녹지보다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남성 이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2)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이 지역에 파악된 어린이공원은 3개소, 소공원 및 마을마당은 4개소이며 대부분 주거지역내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여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개웅어린이공원은 약 1,800㎡의 면적의 정방형 공원으로 지역 내 중요한 도시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을 두어 두 개의 공간을 분리하였으며 아랫단은 광장과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윗단은 노인정과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노인 및 중년여성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인근의 개웅소공원 또한 어린이공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타 마을마당은 휴게 및 운동시설 위주로 설치되어있다.

3) 아파트 녹지, 학교 녹지

아파트 녹지는 개웅산 주변의 서측 사면에 위치한 거성아파트, 한진아파트 등이 있으며 녹지가 양호하고 개방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다. 개봉 한진아파트(2002년)의 경우 13개동 1,371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로서 녹지가

양호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측 생활권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약 2,400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이다. 일반에 개방되어 있고 단지 내부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인근의 개봉초교와 함께 지역 내 부족한 면적 공원녹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생활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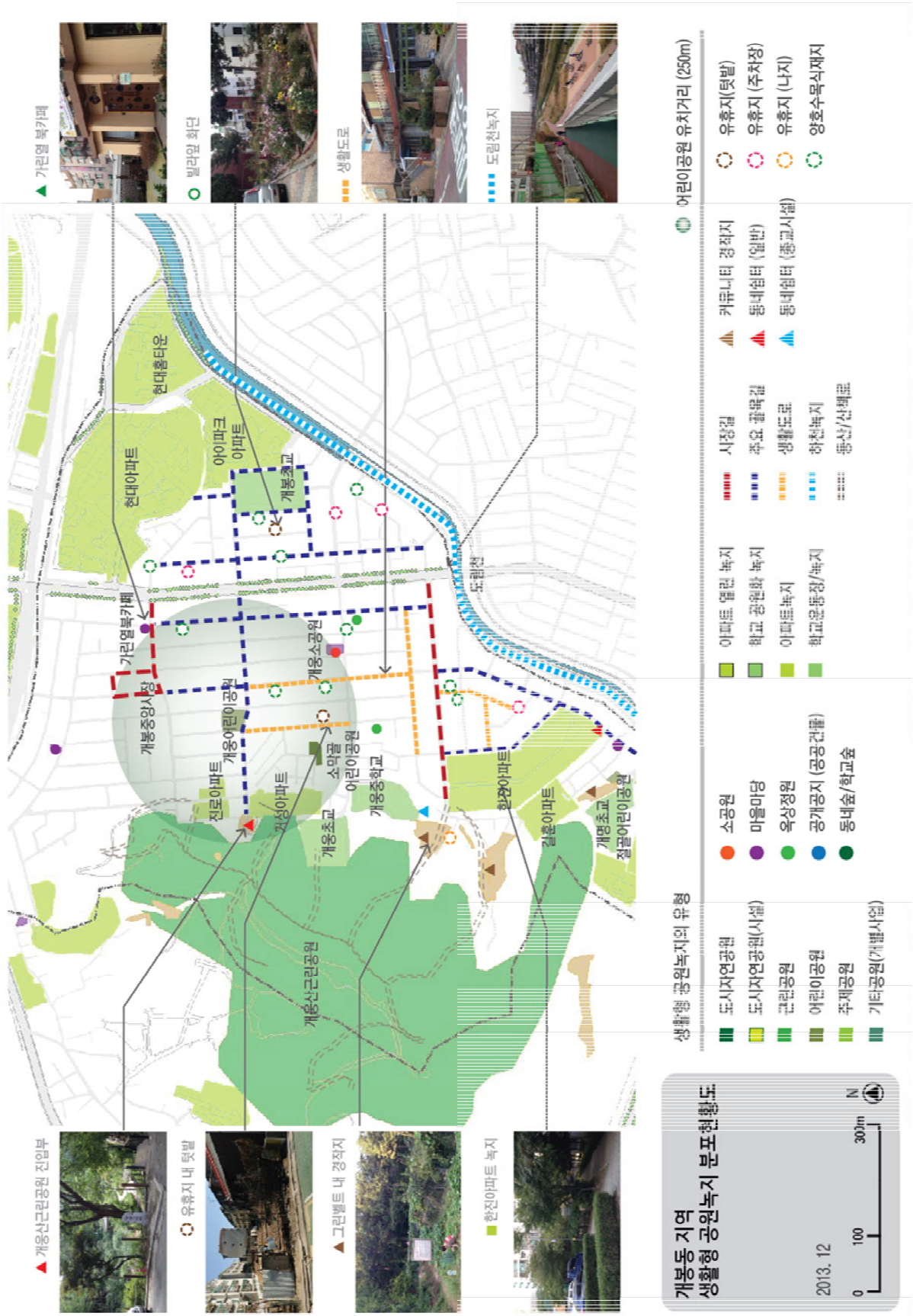
개봉동 지역은 격자형의 가로가 비교적 잘 구획되어 있고 골목길의 폭이 대부분 6m 이상의 폭원을 가지고 있어 생활도로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생활도로 사업의 우수 사례지로 손꼽힐 정도로 가로환경 정비에 노력한 지역이며 인근 다수의 주택이 담장 허물기 사업에 동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로 2005년도에 완공된 개봉로 11길의 생활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넓은 8m 폭원으로 여러 세대의 주거지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과 S형 도로, 화단 등을 조성한 사례이다. 주민 인터뷰 결과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주민 합의의 문제가 있었지만 조성 후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의 효과가 크며 주차 및 치안 관련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개봉동 시장길에 위치한 가린열 북카페의 경우 2013년 5월에 조성된 쌈지공원으로 마을공동체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한 사례이다. 과거 파출소 이전부지로 수년간 방치되던 대상지를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지역주민들과 구로구간의 여러 회의를 거쳐 북카페로 조성한 곳이다.

공원으로 조성 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자투리 공간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 운영하고 수익까지 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초기 단계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인테리어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이후 북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도서구매와 인건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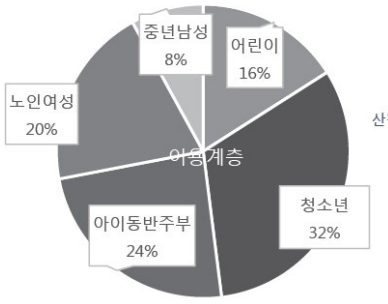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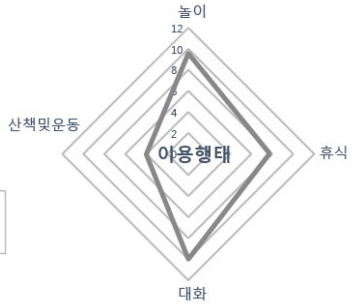
[그림4-6] 개봉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분포현황도

[표 4-20] 개봉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어린이공원)

개웅어린이공원	2013.10.09. 16:40 맑음 2013.11.14. 14:0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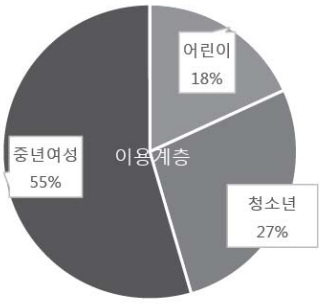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30여명	  ▶중학생 무리 10여명 집 근처라 일주일에 세 번이상 친구들끼리 오는 편 주변에 공원이 별로 없어서 자주 오며 한시간정도 놀다가 돌아감 공원크기도 적당하고 활기차서 만족함, 인근에 마을마당도 자주 감 ▶40대 주부 5분 거리의 주택에 살고 아이와 4일이상 방문, 놀이터를 삼십분 정도 이용 혼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음. 경로원이 붙어있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듯

[표 4-21] 개봉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쌈지마당)

가린열 북카페	2013.11.14. 15:0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10여명	 
	▶북카페 운영자 30대 주부 (마을 공동체 회장) 수년간 파출소 이전부지로 방치되던 곳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에 건의하여 2013년 5월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조성함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시에서 지원받고 임대료는 없으며 카페 수익으로 도서구입, 직원수당 등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함 회원은 총 8명으로 현재 5명이 카페 운영에 참여중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여러 곳에서 취재 및 방문

[표 4-22] 개봉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생활도로)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	2013.10.09. 16:00 맑음 2013.11.14. 14:3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보행자 10여명 주로 통과 동선으로 이용됨 주민들의 대화 정도가 발생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휴게시설 등 기타시설은 없음
	▶사업 참여주민 (세탁소 주인 50대 여성) 5년 전에 조성, 도로 폭이 8m로 넓은 편 다른 곳에 비해 쾌적한 생활도로 주민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조성시 협의 단계에서 주민들간의 마찰이 있었음 개인 출자금 없이 바닥포장과 일부 화단, CCTV등을 성치해줘서 보기에도 좋고 주차문제도 많이 해소되었음, 주민들도 조성 후에 불만사항은 없는 편 우수사례로 여러 곳에서 취재 및 방문함	

[표 4-23] 개봉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하천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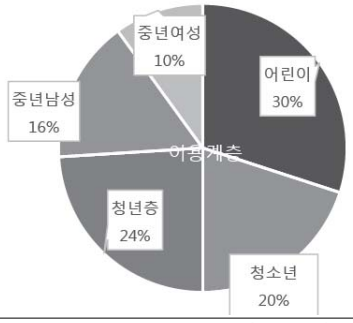
목감천 녹지	2013.10.09. 15:30 맑음 2013.11.14. 15:50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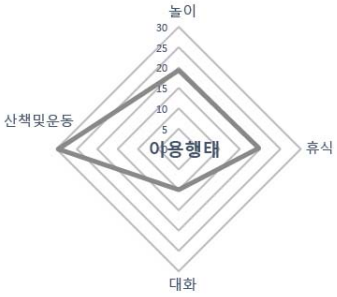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70여명





광명시와 경계부에 위치하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주로 산책 및 운동(자전거타기)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하고
운동장과 자전거 도로 이용이 활발함
▶30대 후반 남성
아이와 주 3회 이상 자주 방문하고 주로 운동장과 휴게시설을 이용
탁 트인 전망이 좋고 안전해서 만족함, 시설과 하천폭도 적당한 편임
안양천까지 가지는 않고 일정구간의 시설만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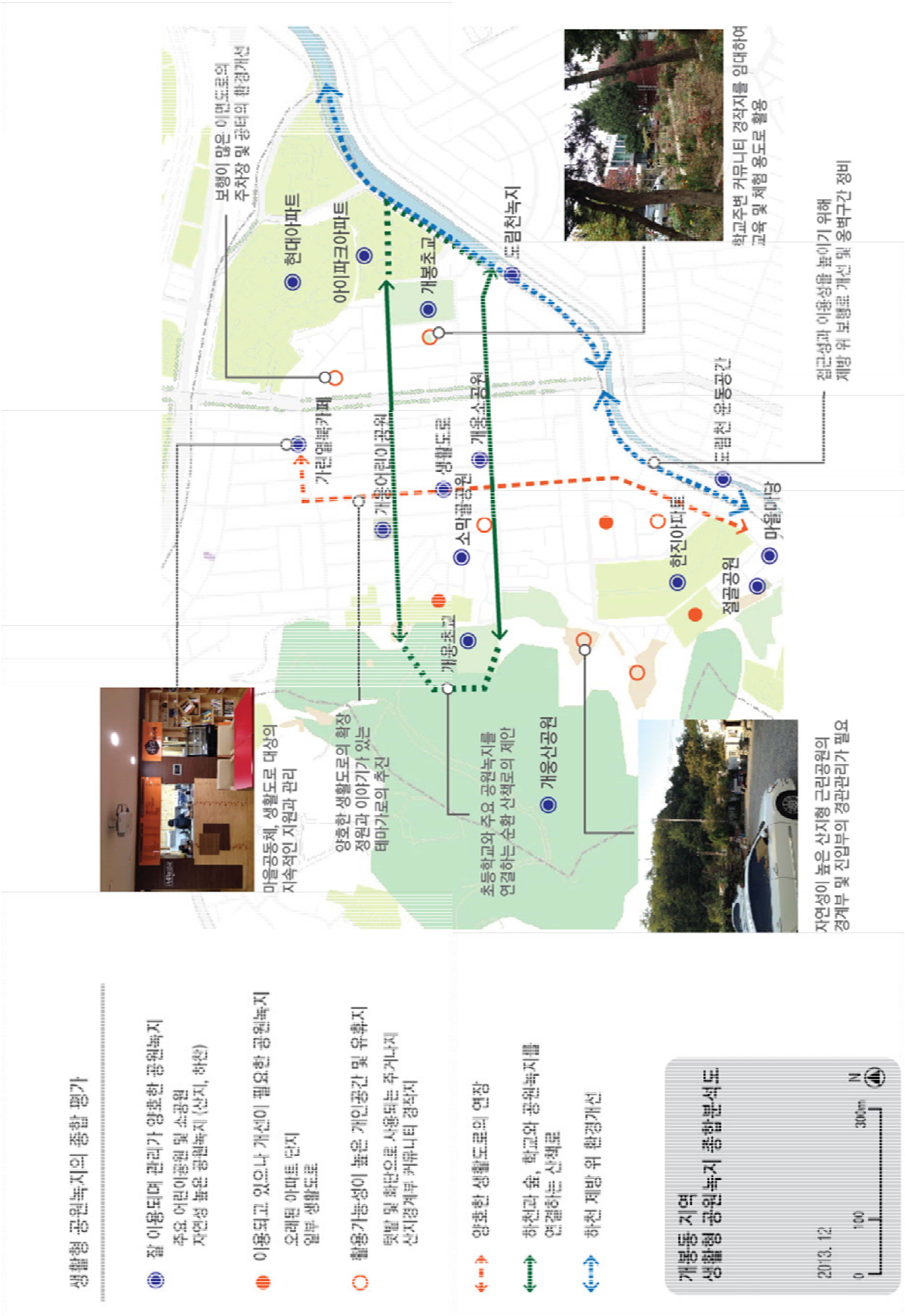
다. 종합 및 시사점

개봉동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하천녹지가 있으며 일부 생활도로와 오래된 아파트 녹지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거나지와 산지 경계부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경작지의 경우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인공간에 해당한다.

개봉동 지역은 서측의 개웅산근린공원을 제외하고 주거지 내부에 면적인 공원녹지는 부족한 지역으로 다양한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민참여로 이루어진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가 많고 그 중 생활도로가 활성화 된 지역 중 한 곳이다. 따라서 밀집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의 도시공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녹지 환경은 양호한 편이며 중간 중간 녹음과 개인 정원의 볼거리가 있는 가로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이러한 공원녹지 자원을 활용하여 하천과 숲, 학교와 주요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테마가 있는 가로로써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에서 목감천 하천녹지는 이용 빈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중요한 공원녹지 자원으로써 현재도 잘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제방 위는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하천녹지와 제내지와의 보행연결성과 녹지의 연속성은 부족하다. 또한 제방 위 상당 구간에 1.5m 이상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조망이 불리하고 고수부지로의 접근도 제한적이다. 제방위의 녹지대와 보행로를 개선하고 주변 가로와의 연결성을 확보한다면 지역 내에서 보다 질 높은 공원녹지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개웅산근린공원 경계부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비교적 큰 규모의 도시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다. 산지주변 경작지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확산의 가능성과 주변 오염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작지의 규모와 주변 커뮤니티 환경을 고려하여 주말 농장이나 텃밭 공원 같은 공공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4-7] 개봉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종합분석도

4. 오류동 지역 (오류1동, 개봉1동)

가. 지역특성과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오류동 지역은 오류1동과 개봉1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북서쪽으로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고 남측의 경인로와 동측의 남부순환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온수공원 방향으로 경사가 있으며, 주거지역 내 경사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오류초등학교와 개봉중학교를 중심으로 두 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밀집주거지역의 보행 및 생활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오류동 지역 또한 70년대 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자연발생적 형태의 도로구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지역의 면적은 0.9㎢ 인구는 35,000명으로 남측에 오류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산지주변과 고지대에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공원녹지로는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있으며 최근 시설지구로 정비된 잣절지구와 동부아파트 옆 운동공간이 조성되어있다. 주거지역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없으며 기타 공원녹지로는 마을마당 9개소가 입지해있다. 아파트 단지는 산지하부에 위치하고 대부분 5동이내의 소규모 단지인 경우가 많다. 오류초등학교, 개봉중학교의 학교녹지가 생활형 공원녹지 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교회 앞 쉼터나 유휴지를 활용한 휴게공간, 텃밭 등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표 4-24] 오류동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 현황

구분		항목	개소	면적/길이	비고
제도상 생활형 공원녹지	도시공원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	
		소공원	-	-	
		주제공원		-	
		기타공원	-	-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하천녹지	-	-	
		도시자연공원(시설지구)	2	14,000㎡	잣절지구
		마을마당	9	950㎡	은행나무소공원
		학교공원화사업지	1	750㎡	오류초교
		열린녹지/동네숲	-	-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공공/공익 공간	공개공지	-	-	
		하교운동장/녹지	3	32,660㎡	개봉초교
		가로녹지(시장길)	1	0.3㎞	오류시장
		가로녹지(생활도로)	1	0.2㎞	
		옥상정원	1	175㎡	
	일정커뮤니티 공용공간	아파트단지 내 녹지	9	89,700㎡	금호아파트
		종교시설 내 공지	2	460㎡	
		커뮤니티 경작지	5	12,000㎡	
		마을 휴게쉼터	3	500㎡	
	활용가능한 기타공간	양호수목식재지	5	-	
		유휴지 (텃밭)	4	-	
		유휴지 (나지)	8	-	
		유휴지 (주차장)	5	-	
합계			59	151,195㎡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위성사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고 현장조사로 보완함

[표 4-25] 오류동 지역의 지역현황

지역 위치도
개봉동 지역
오류 1동, 개봉1동 일대 면적 약 0.9㎢ , 인구 35,000명


주요 공간과 지역 특징
노후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주거지내 경사가 심해 보행이 어려움 산지를 끼고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두 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음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공원녹지의 수가 적으며 주로 마을마당 위주로 조성되어 있음 주거지내 나지 및 유휴지의 개수가 많음

나. 대표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

1) 도시자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은 구로구에서 중요한 녹지자원으로 지역에서 접근성은 떨어지나 시설이 설치된 곳의 관리와 정비는 양호하다. 최근에 조성된 잣절지구는 생태습지원을 주요 주제로 하여 주변 산림과 어우러진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에 없는 근린공원의 성격으로 산책,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방재 및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이 비교적 활발하지는 않지만 등산객의 휴게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고 근처 학교나 요양병원과 인접하여 교육 및 치유 기능을 할 수 있다.

동부아파트 옆에 위치한 온수공원 내 운동공간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조망이 좋고 운동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비교적 수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녹음이 양호한 편이며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적합하다. 아파트 단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고정적인 이용자가 존재하며 주로 40대 이상 중년층의 이용이 두드러진다.

2) 아파트 녹지, 학교 녹지

오류동 지역의 아파트 녹지는 그 개수나 차지하는 면적은 적지만 단지가 주로 산지 하부에 입지하여 지역주민들의 도시자연공원의 접근과 조망을 방해하고 있다. 단지 내 녹지 환경도 열악한 편으로 대부분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와 인접가로의 레벨차이가 심해 높은 옹벽이나 사면으로 처리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생활형 공원녹지로써 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연립빌라나 소형 단지의 경우 많은 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기능위주의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어 공용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화분과 의자를 내어놓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어 추후 관리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과거 학교를 거점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학교 녹지가 지역 내 중요한 커뮤니티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접근 가능한 어린이공원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머물러 있거나 마을마당과 학교 앞 공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통행량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 중 오류초등학교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일부 담장을 허물고 녹지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하고, 학생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학교 녹지는 실질적으로 오류동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모임과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마을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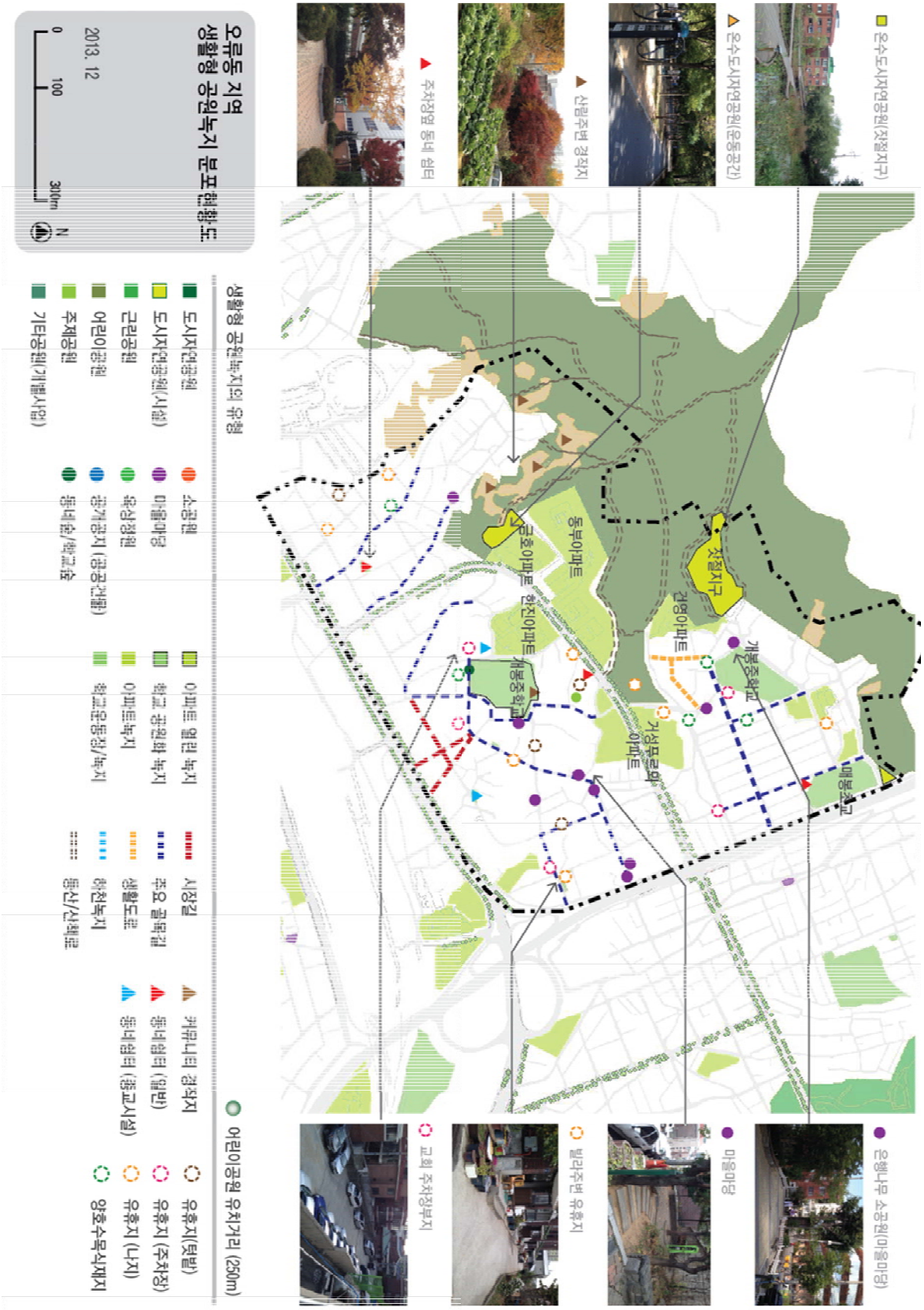
오류동 지역에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의 제도상의 도시공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정 면적의 구유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마을마당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100㎡ 내외 작은 크기의 마을마당으로 파고라나 벤치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이용되며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된 마을마당도 있다.

대다수의 마을마당이 노후 주거지역 내 입지하고 있고, 일정범위 내 유사한 기능의 마을마당이 인접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며 방치되거나 오염 및 훼손되기도 한다. 반면 학교 주변에 위치한 마을마당의 경우 관리와 이용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커뮤니티 경작지,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오류동 지역은 산지와 인접한 여타 노후 주거지역의 특징에서 나타나듯 산지 주변의 규모가 있는 커뮤니티 경작지가 다수 분포하며 주거지역 내부에도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이 여러 곳 존재한다. 이러한 도시 경작지들은 자급자족과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오래 거주한 노인들이 개인소유의 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구로 지역과 유사하게 교회나 오래된 상가 주변으로 동네 쉼터나 공개공지, 화단이 조성된 곳이 일부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주요 보행로 상의 골목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마당처럼 사용되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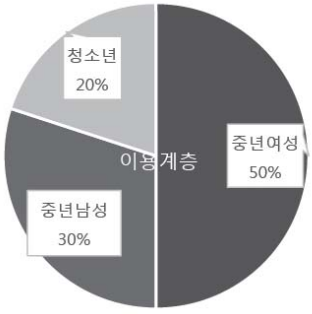
[그림4-8] 오류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분포현황도

[표 4-26] 오류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도시자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잣절지구)	2013.10.11. 13:00 맑음 2013.11.14. 15:30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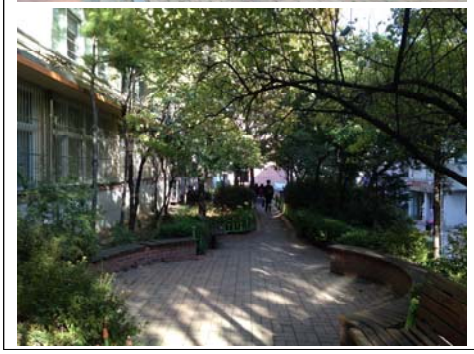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10여명	 
	▶40대 후반 남성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20분정도 거리) 등산을 위해 친구와 처음 방문함 잘 정비해 둬서 보기 좋고 생태습지원을 잘 조성한 것 같음 ▶40대 초반 여성 시설지구 위편에 운동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방문 인근에 거주하며 공원은 자주 안 오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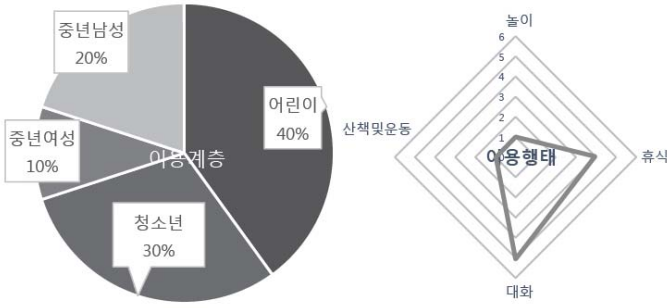
[표 4-27] 오류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학교 공원화)

오류초등학교 공원화	2013.10.11. 16:00 맑음 2013.11.14. 14:0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이용자수 : 약 5~8여명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일부 담장을 허물고 휴게시설과 녹지를 조성 약 20m길이의 녹지대로 녹음이 양호함 ▶중학교 여학생 3명 친구들과 자주 들르는 장소로 주중에 거의 매일 방문, 주로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하면서 30분정도 머묾. 나무가 많고 안전해서 좋음 ▶40대 초반 남성 동네 돌아다니다가 가끔 쉬었다 가는 정도로 이용, 십분 정도 머묾

[표 4-28] 오류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커뮤니티 경작지)

구로 문학의 집 옆 경작지	2013.11.14. 14:30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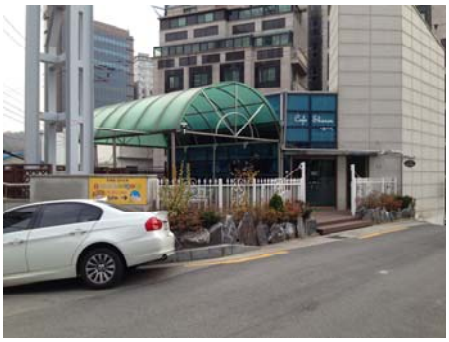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조사당시 경작 활동 없음 50대 여성 산책 1명	등산로와 연계되어 있고 일부 공터와 벤치가 설치
	경작지의 범위가 넓으며, 점적으로 산재하여 분포함 공원지역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는 미확인 주변 경관과 전체적인 경작지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오랜 시간 방치된 경작지가 존재함 산책로는 온수공원과 연결되며 인근에 '문학의 집 구로'라는 문화시설이 있음	

[표 4-29] 오류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사례 (교회 앞 쉼터)

오류동 교회 앞 쉼터	2013.11.14. 13:00 맑음



공간특성	접근성/개방성	인지하기 쉬움	접근이 쉬움	주변과 연결됨	일반에 개방됨
		○	○	○	○
	이용성/안전성	다양하게 이용함	쉬기에 편안함	걷기에 쉬움	시설이 안전함
		×	○	×	△
	정체성/심미성	흥미로운 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보기좋은 경관	지속가능한 공간
		×	×	○	○

이용행태 / 세부특징	조사당시 이용자 없음	맞은편 교회소유의 카페 입지 양호한 녹지대와 벤치 설치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 출입부 앞 휴게공간으로 가로와 접한 공지에 녹지대와 벤치를 설치하여 행인들의 이용이 가능하게 함 맞은편 교회소유의 카페 전면에도 일부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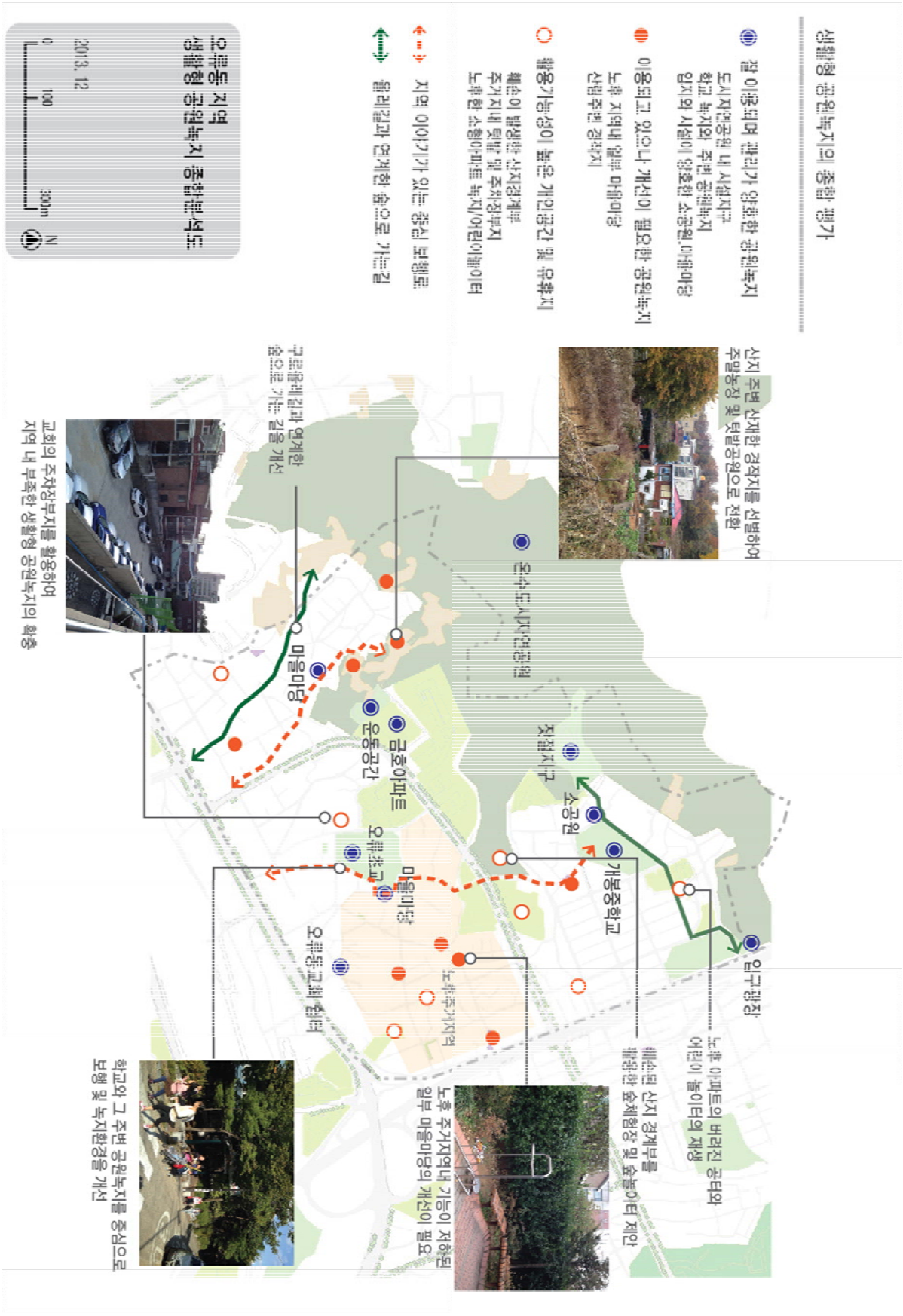
다. 종합 및 시사점

오류동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고 관리가 양호한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도시자연공원의 시설지구와 학교 녹지, 학교 주변 마을마당 등이 있으며 산림주변 경작지와 노후지역의 마을마당은 이용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공원녹지에 해당한다. 또한 오래된 소형 아파트와 빌라 주변 녹지공간 및 텃밭과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유휴지의 경우 활용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로 파악되었다.

오류동지역은 양호한 도시자연공원이 존재하나 실제 생활권에는 공원녹지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두 군데 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교 녹지가 생활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주변으로 마을마당을 설치하거나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형 공원녹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공원녹지 이용률이 높고 조성 시 사회적인 효과가 높아 학교를 중심으로 한 녹화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주변으로 어린이공원이나 학교숲 등의 체험 및 야외활동을 수용하는 공원녹지가 부족하며 이와 함께 통학로의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올레길, 시설지구 등을 중심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이용 및 만족도도 높게 파악되었다. 하지만 심한 경사와 아파트 단지로 인해 조망과 접근이 불량하여 평일의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숲으로 가는 길을 개선하고 보행친화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등산 및 운동 등의 기존의 프로그램 이외에 기존 경작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나 산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숲 유치원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많은 개수의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노후 주거지내 산재한 소규모 마을마당의 경우 지역 내에서 크게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텃밭이나 화단처럼 개별 주민이 직접 관리하여 이득이나 만족을 얻는 공간일수록 관리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였다. 따라서 유사한 유형과 목적의 마을마당의 공급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선별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4-9] 오류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 종합분석도

3절 구로구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별 특성과 시사점

1. 조사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 종합

가. 총량에 의한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비교

[표 4-30]은 선정한 4개 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 총량을 비교한 표로 같은 구로구 내에서도 도시공원의 양과는 별개로 지역특성에 따라 분포하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수와 가용한 녹지자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공원이 부족한 남구로 지역과 오류동 지역의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의 수가 고척동 지역과 개봉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주로 발견되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상 도시공원의 면적 차이는 지역 내 지정된 근린공원의 유무에 기인하므로 큰 시사점을 얻기에는 어렵다. 또한 조사지역의 근린공원은 산지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산림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한 근린공원의 면적은 실제 이용되는 공원의 면적과 큰 차이가 있고 일부 도심형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지역의 주요 도시공원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소규모 도시공원인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비교해봤을 때 고척동 지역과 오류동 지역이 그 양과 면적이 부족하며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중에서는 마을마당과 기타 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원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오류동 지역과 남구로 지역에 많이 시행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척동과 개봉동 지역의 공공녹지들이 더 잘 이용되며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변 주거환경과 지역 커뮤니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 중에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학교 녹지와 아파트 녹지는 해당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현재 각 사례별로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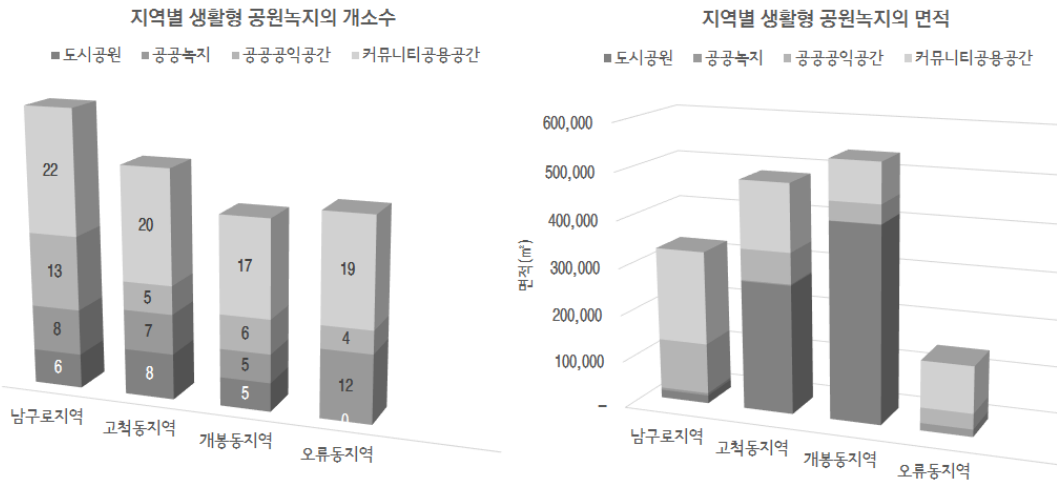
이처럼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의 양은 지역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 여부, 학교나 공공시설, 종교시설 같은 주요건물의 역할과 규모, 거주민들의 생활패턴과 인식

등에 의해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용부지의 경우에는 밀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양호수목식재지와 유휴지가 산재하여 나타나며 20개소 내외로 조사되었다.

[표 4-30] 구로구 조사지역의 생활형 공원녹지의 비교(현황)

생활형 공원녹지		남구로 지역		고척동 지역		개봉동 지역		오류동 지역	
구분	항목	개소	면적/길이	개소	면적/길이	개소	면적/길이	개소	면적/길이
도시공원	근린공원	-	-	3	272,500	1	411,970	-	
	어린이공원	4	11,000	4	1,280	3	2,690	-	-
	소공원	1	200	1	720	1	660	-	-
	주제공원	-	-	-	-	-	-		-
	기타공원	1	5,750	-	-	-	-	-	-
소계		**6**	**16,950**	**8**	**274,500**	**5**	**415,320**	**0**	**0**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하천녹지	1	1.2km	-	-	1	1.7km	-	-
	도시자연공원(시설)	-	-	-	-	-	-	2	14,000
	마을마당	3	280	3	300	3	430	9	950
	학교공원화사업지	3	4,760	2	1,370	1	470	1	750
	열린녹지/동네숲	1	50	2	800	-	-	-	-
소계		**8**	**5,090**	**7**	**2,470**	**5**	**900**	**12**	**15,700**
공공/공익공간	공개공지(공공건물)	3	1,150	-	-	-	-	-	-
	하교운동장/녹지	6	107,400	5	65,900	4	39,430	3	32,660
	가로녹지(시장길)	1	0.5km	1	0.4km	1	0.3km	1	0.3km
	가로녹지(생활도로)	-	-	4	1.4km	4	1.3km	1	0.2km
	옥상정원	4	1,280	-	-	2	300	1	175
커뮤니티 공용공간	아파트단지 내 녹지	15	196,400	13	140,970	10	74,960	9	89,700
	종교시설 내 공지	4	1,800	1	160	1	170	2	460
	커뮤니티 경작지	-	-	2	1,300	4	8,500	5	12,000
	마을 휴게쉼터	3	120	4	350	2	530	3	500
소계		**36**	**308,150**	**30**	**208,680**	**23**	**123,800**	**25**	**121,495**
가용부지	양호수목식재지	13	-	9	-	9	-	5	-
	유휴지 (텃밭)	3	-	-	-	2	-	4	-
	유휴지 (나지)	1	-	3	-	1	-	8	-
	유휴지 (주차장)	10	-	10	-	4	-	5	-
소계		**27**		**22**		**16**		**22**	
합계		**77**	**331,200**	**67**	**485,650**	**49**	**540,110**	**59**	**151,195**

*서울시, 구로구 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사한 대상지를 포함하여 재작성
*도시공원 외 생활형 공원녹지의 면적과 길이는 수치지형도와 GIS 분석을 통해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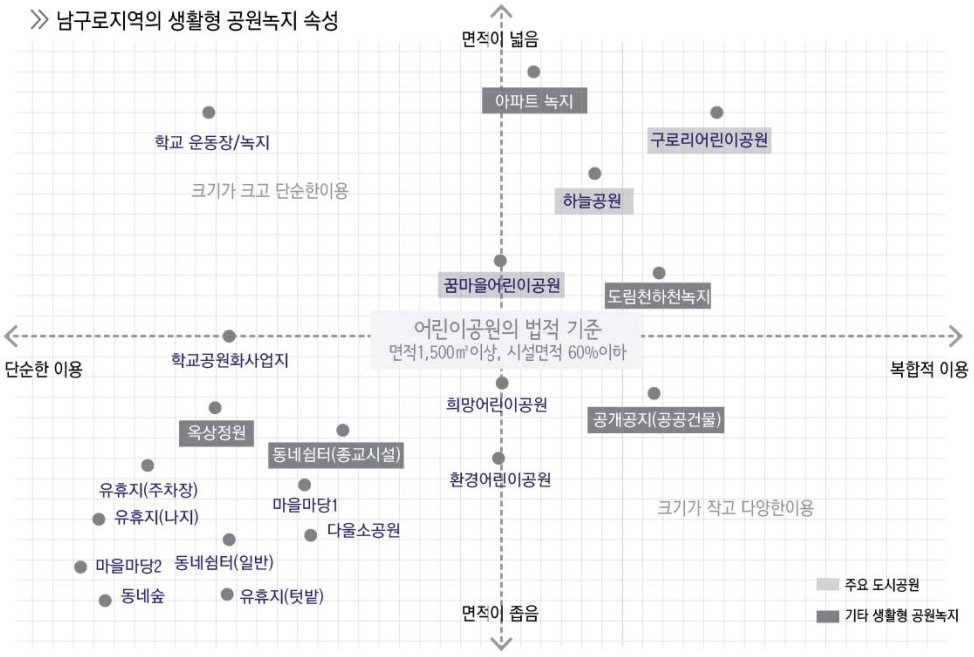


[그림4-10]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총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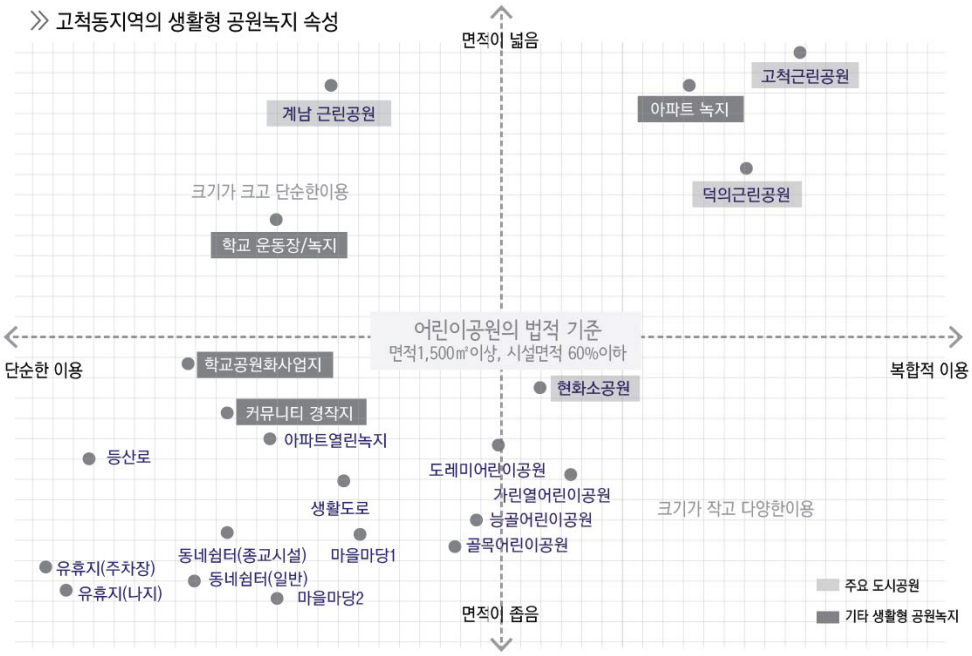
나. 속성에 의한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비교

추후 신규 생활형 공원녹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조성하는 공원녹지가 해당지역 내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 유형의 공원 확보보다 그 지역에 고유한 특성이나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유형의 사업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로 생활도로가 잘 정비된 개봉동 지역이나 학교 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류동 지역의 경우 해당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를 보다 지원하여 지역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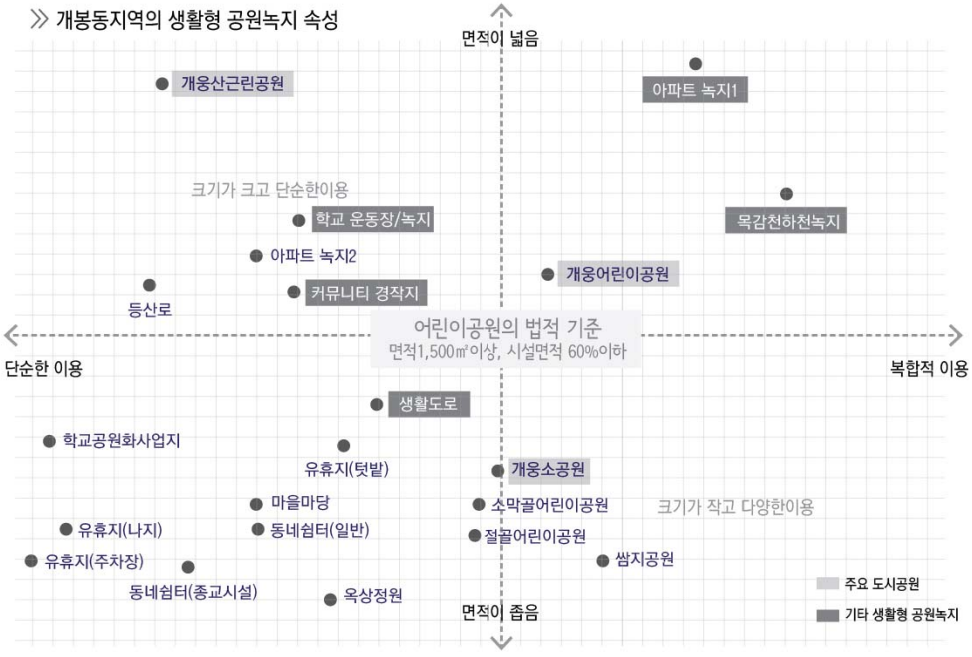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유형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림4-11]부터 [그림4-14]는 어린이공원의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각 생활형 공원녹지의 평균 크기와 이용특성을 비교하여 배치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같은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라 하더라도 지역별 분포하는 대상지의 크기와 주요 시설에 따라 실제 공원녹지의 성격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로구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단순한 이용에 그치는 생활형 공원녹지가 다수 분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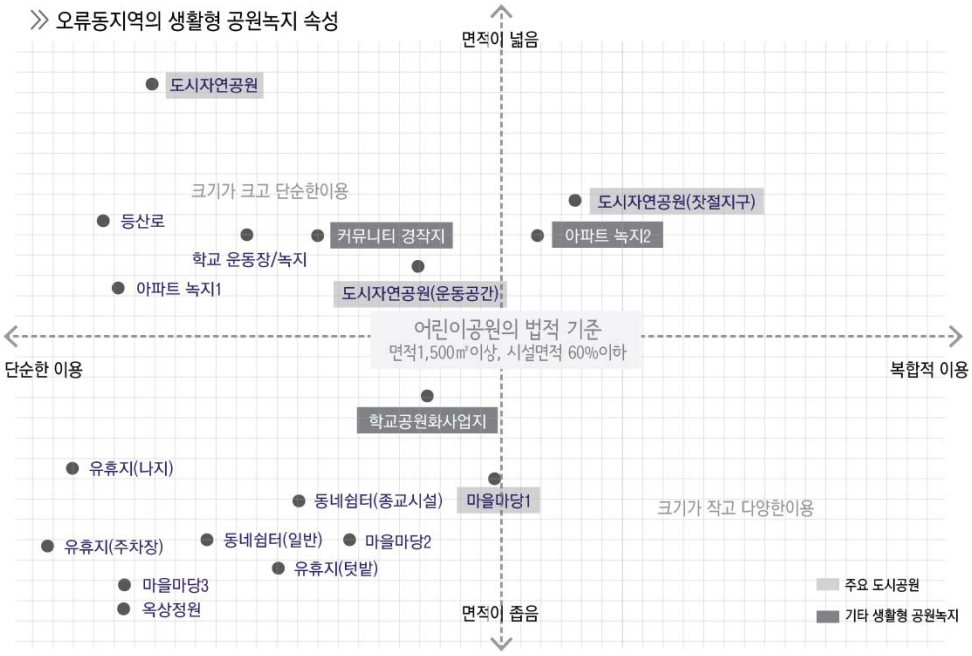
[그림4-11] 남구로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속성



[그림4-12] 고척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속성



[그림4-13] 개봉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속성



[그림4-14] 오류동 지역 생활형 공원녹지의 속성

생활형 공원녹지의 속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를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구로 지역은 도시공원의 수는 적지만 각 공원별로 입지 조건이 좋고 역할이 명확하며 도시공원 이외에 공공건물의 공개공지, 아파트 녹지가 지역 내 양호한 생활형 공원녹지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척동 지역은 근린공원과 일부 대단위 아파트 녹지의 이용이 두드러지며 어린이공원은 상대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개봉동 지역은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하천녹지, 아파트 녹지가 공원처럼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오류동 지역의 경우는 전반적인 공원녹지 이용이 침체되어 있고 대부분 단순한 이용에 국한되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의 시설지구와 커뮤니티 경작지가 주요 생활형 공원녹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실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형 공원녹지로써 인식되어야 하며 자치구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31] 도시공원 외 이용하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

구분	남구로 지역	고척동 지역	개봉동 지역	오류동 지역
도시공원 외 이용하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	**공개공지(공공건물) 아파트녹지**	**아파트녹지**	**하천녹지 아파트녹지**	**커뮤니티경작지**
	구로2동 주민센터 구로병원 두산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고척 대우아파트	목감천 현대 아파트 한일 아파트	문화의집 인근 도시경작지

또한 옥상정원, 마을마당, 동네 쉼터 등의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들은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부족한 공원녹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각 지역별 중요성과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남구로 지역의 종교시설 내 동네쉼터와 옥상정원, 고척동 지역의 아파트 열린녹지와 커뮤니티 경작지, 개봉동 지역의 생활도로와 유휴지 내 텃밭, 오류동 지역의 학교공원화 사업지와 마을마당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들은 전반적으로 단순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용계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커뮤니티와 밀접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조성 및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 밖의 공공공간으로 개선 및 전환이 가능한 가용부지로는 지역별로 양호수목식재지와 유휴지(주차장, 텃밭) 등으로 파악되었다. 공원녹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일부 지역의 경우 개별 대상지의 소유현황과 주 이용대상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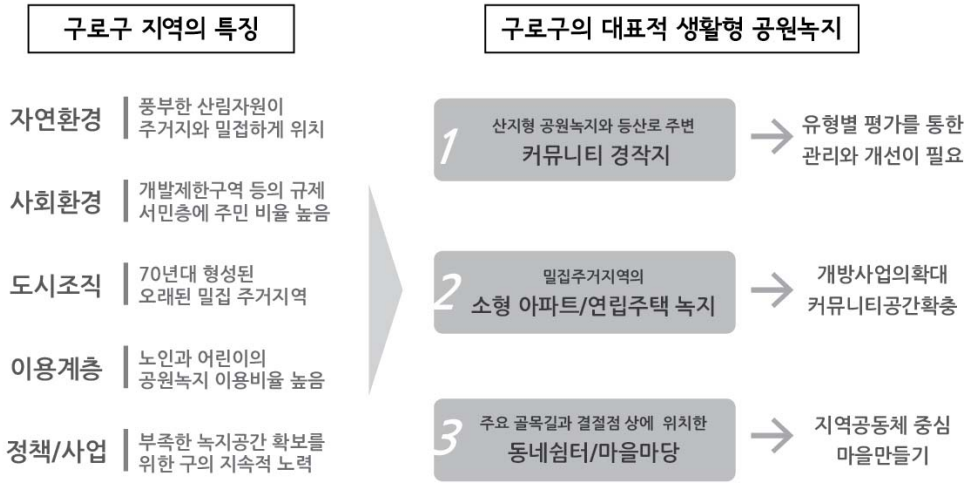
[표 4-32] 특화 및 개선이 가능한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

구분	남구로 지역	고척동 지역	개봉동 지역	오류동 지역
특화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	**종교시설 내 쉼터 옥상정원**	**아파트열린녹지 커뮤니티경작지**	**생활도로 유휴지(텃밭)**	**학교공원화사업지 마을마당**
	서울남교회 구로동교회 베다니교회	삼익아파트 대우아파트	개봉로 11길 개봉초교 인근 텃밭	오류초등학교 개봉중학교
개선 및 전환이 가능한 가용부지의 유형	**양호수목식재지**	**유휴지 (주차장)**	**주택 내 양호수목식재지**	**유휴지(텃밭)**

2. 구로구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별 특성

본 연구의 조사지역이 구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유형별 특성을 구로구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전 조사 과정에서 구로구의 전반적인 녹지특성을 검토하였고, 세부지역 선정 시 구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므로 유형별로 갖고 있는 특성과 시사점은 구로구 생활형 공원녹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사된 여러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 중에서 구로구의 지역특성과 공원녹지의 현황을 반영하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산지형 공원녹지와 산림 주변 커뮤니티 경작지, 밀집 주거지역내 소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녹지, 주요 골목길과 그 결절점 상에 위치한 동네 쉼터 및 마을마당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유형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며 구로구 지역의 부족한 도시공원을 보완하는 장소로써 활용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각 유형별 적합한 관리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림4-15] 구로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생활형 공원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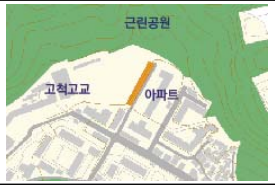
가. 산지형 공원녹지와 주변 커뮤니티 경작지의 특성

구로구의 산지는 대부분 공원지역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림 경계부가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에 놓인 녹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경사가 심한 산지주변으로 노후 주거지가 주로 입지해 있어 노인과 서민층이 주로 거주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구로구 지역의 산림주변으로 자급자족과 소일거리를 위한 경작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산지형 공원녹지가 양호한 녹지자원의 보전과 일부 소극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는 녹지 자원이라면, 산지 경계부의 커뮤니티 경작지는 산림경계부의 경관을 훼손하고 적극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산림주변 경작지가 점차 관리와 활용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기존 경작지를 활용한 텃밭공원과 시민농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로구 내에서도 '수궁골 메뚜기 농촌체험장' 과 오류 IC 유휴지 내 텃밭과 같은 활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조사결과 개인 소유의 경작지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 성격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대상지가 존재한다. 특히 규제 후 방치되어 나대지로 남아 있는 산림이나 규제로 묶인 사유지 산림의 경우 공공성을 가진 여가녹지로써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사 지역 중에서는 산지가 인접한 오류동 지역과 개봉동 지역에 커뮤니티 경작지가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개인토지를 혼자 경작하거나 일부 분양하여 경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원지역에 해당하는 산지를 개인별로 일부 점유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 4-33] 구로구 커뮤니티 경작지의 사례와 특성

구분	분양 경작지	집단 경작지	
	소규모 양호경작지	소규모 양호경작지	대규모 노후경작지
주요 녹지 특성	접근성과 인지성이 좋으며 주로 10명미만의 이용자를 수용, 일정부분 커뮤니티가 형성됨	접근성이 떨어지나 이용이 활발함. 작물의 상태와 관리는 양호 10~15명 정도의 이용자 수용	접근이 좋으나 정돈된 형태가 아님 이용자 여건에 따라 경작지의 면적과 관리의 차이 발생 커뮤니티 의식은 낮음
사례 대상지			

현황 사진			
위치	고척동 227-2	개봉동 312-82	오류동 산4 일대
면적	700㎡	1,400㎡	10,000㎡
용도지역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공원지역
관리상태	양호	양호	불량(혼재)

나. 밀집 주거지역 내 연립주택 및 소규모 아파트 녹지의 특성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에 해당하나 공원녹지 자원이 부족한 구로구에서는 실제 지역 내에서 중요한 공용녹지로써 활용되고 있다. 구로구의 아파트 녹지는 지역별 차이보다는 해당 단지의 크기나 조성시기에 따라 개방성과 이용성에 차이를 보인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의 거점 녹지이자 공원 성격의 외부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구로구에 많이 분포하는 5동 이내의 오래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 단지 내부에 녹지가 거의 없이 주차장 중심의 포장 면이 넓게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5동 이상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녹지의 양과 수목의 생육상태, 공간의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이 중 노후주거지 내부에 위치하여 녹지 확보에 있어 입지 상으로 중요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5개동 이하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 단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동으로 이루어진 단독 아파트의 경우 단지의 규모가 작지만 담장이 낮아 개방성이 높고, 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5동 미만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담장이 없거나 주변에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 개방성이 높지만 프라이버시 확보는 어렵다. 외부인이 이용할 만한 녹지공간은 거의 없고 주로 나지를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개인화분을 내어놓는 소극적인 이용이 이루어진다. 한편 5동 미만 아파트 중에서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주로 판상형 건물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 개방성이 낮은 편이다. 내부의 녹지는 기능식재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주변에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에 방치되거나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표 4-34] 구로구 5동 이하 소규모 아파트 녹지의 사례와 특성

구분	단독아파트	저층아파트/연립주택	고층아파트
주요 녹지 특성	외부 담장이 낮거나 녹지로 이루어져 개방성이 높음, 지역과 녹지, 놀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음	개방성은 높으나 주차장 위주로 녹지가 거의 없음 놀이터가 없거나 방치됨 오래된 수목이 식재되거나 개인화분을 내어놓음	담장으로 둘러싸여 개방성이 낮은 편, 기능식재 위주의 녹지공간, 진입부에 상가와 녹지대가 위치
사례 대상지	고척동 고운아파트 	오류동 창동아파트 	구로동 극동아파트 
현황 사진			
조성년도	2002	1987	1984
면적	4,100㎡	4,200㎡	18,400㎡
건물	1개동(18층)	4개동(5층)	4개동(11층)
세대수	100세대	110세대	493세대
놀이터	1개소(열린녹지)	1개소(폐쇄)	2개소(방치)

다. 주요 골목길과 결절점 상에 위치한 소규모 녹지공간의 특성

구로구 지역 내 밀집주거지역의 경우 오픈스페이스가 대부분 가로의 형태로 존재하며 비록 주변에 조성된 녹지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가로 자체가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오랜 시간 지역 중심가로로 활용해온 골목길의 경우 결절점이나 상업시설과 종교시설의 공터에 공용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확보되는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점유하여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상이나 간이의자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이 없는 낮 시간에는 아이들의 모임 및 놀이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을의

오래된 골목길의 경우에 통행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들이 오가며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일정부분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구로구의 밀집주거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오랜 시간 살아온 경우가 많고 노인과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 커뮤니티의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골목길과 그 주변 공간들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로 안산시 석수골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골목길과 주변공간을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건물담장을 허물고 유휴공간을 마을정원으로 전환한 곳으로 지역공동체가 계획과 관리에 참여한 골목길 활용의 대표 사례이다. 구로구에서도 아직까지 과거의 가로구조가 남아있는 남구로 지역과 오류동 지역의 골목길을 중심으로 인근 녹지자원과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의 조성이 가능하다.

[표 4-35] 구로구 주요 골목길과 소규모 녹지공간의 사례와 특성

구분	특징
주요특징	낮 시간 노인 및 어린이들이 주로 활용, 일상적 산책과 만남의 공간 골목길과 각 결절점을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공지가 형성
인근 녹지자원	주차장, 마을마당, 교회공터, 슈퍼 앞 쉼터, 벽면녹화, 텃밭 등
사례 대상지 현황	
남구로 지역 골목길 (450m/4~5m)	
현황사진	  

오류동 지역 골목길 (200m/6~7m)	
현황사진	  

앞서 살펴본 세 유형은 구로구 뿐 아니라 유사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 생활권에서 종종 발견되는 유형으로써 주민들에 의해 빈번하게 이용되고 지역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개선의 방향이 모호하며 추후 개선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으로부터 방치되거나 개인에게 점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서 해당공간이 갖는 중요성과 개선을 위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사업에 의한 특정 대상지에 한정된 점적인 확보가 아닌 지역 스케일의 관점에서 공간을 이해하고 주변 공원녹지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기존 개별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감독과 함께 이를 대체하는 공원녹지로의 유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유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원돌보미 사업[50]처럼 지역 내 실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생활 주변 공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50) 지역 공원을 그 지역의 단체와 주민에게 입양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도시지역에서의 공원녹지, 생활의 의미는 점차 중요해 지고 있으며 자치구 단위의 근린생활권에서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공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적, 사회적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분포하는 도시공원의 유형과 수는 제한적이며 포화된 도시조직 속에서 새로운 도시공원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의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자치구별로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적으로 분류되는 도시공원 이외에 지역 생활권 내에서 공원처럼 이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 가 분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포함한 공원녹지의 조사와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대상들은 양호한 녹지자원으로써 확보와 개선의 가능성이 높으며 자치구 단위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상의 도시공원 이외에 살펴본 생활형 공원녹지 대상으로는 이용성격 및 소유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 다른 관련법과 기타사업을 통해 공공에서 조성하는 도시공원 외 공공녹지, 2. 일반적으로 쉽게 공원처럼 이용하는 유형의 공공공간 및 공익사업 대상지, 3. 일부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커뮤니티 내의 이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용공간, 4. 주로 사유지에 해당하지만 추후 공공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기타 민간공간 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 내에서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요한 구로구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GIS 공간자료와 수치지형도,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전반적인 공원녹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생활에 분포하는 생활형 공원녹지의 현황과 이용특성,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 구로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4개의 세부 생활권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별 면밀한 관찰조사와 이용자 조사를 통해 지역특성과 생활형 공원녹지의 가치 및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구로구 내에서도 세부 지역 별로 자연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생활형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여부, 지역 내 주요 건물의 역할과 규모, 거주민들의 생활패턴과 인식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로구는 도시공원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공급되는 도시공원과 공공녹지의 이용이 집약적이고 복합적인 반면에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의 이용은 산발적이고 단순하게 이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의 수요와 이용밀도가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을 위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마을마당처럼 300㎡이하의 소규모 공공녹지의 경우에는 입지에 따라 일부 이용이 활발한 곳이 있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 대체로 이용이 침체되거나 단순한 기능만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내 인접한 도시공원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유휴지와 나지 등을 활용한 화단, 경작지, 동네쉼터 등의 조성이 이루어지며 교회, 슈퍼마켓, 세탁소 등 오랜 시간 지역에 자리 잡은 건물의 외부 공간을 소규모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주거지 내부의 자생적인 녹지 활용의 모습은 구로구 지역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 밖의 학교공원화 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생활도로 사업 등 사유지 내 담장으로 갇혀있던 녹지를 공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유형은 대부분 이용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 외곽에 위치한 자연성이 높은 산지와 하천 녹지의 이용이 두드러지며 이를 연계한 산책로의 활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산지의 경우 주로 중년층 이상의 이용자가 많은 반면 하천녹지는 상대적으로 어린이들과 청년층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구로구 내에서 도시공원 외 주로 이용되는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하천녹지, 마을마당, 동네숲’ 등과 같은 공공녹지와, ‘학교녹지, 가로녹지, 옥상정원 및 공개공지’ 와 같은 공공/공익공간, ‘아파트 녹지, 커뮤니티 경작지, (종교 및 상업시설의) 동네 쉼터’ 와 같은 커뮤니티 내 공용공간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구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생활형 공원녹지로는 '산지 주변 커뮤니티 경작지, 연립주택 및 노후 아파트 주변 녹지, 주요 골목길과 결절점 상의 소규모 녹지' 를 들 수 있으며 앞으로 개선 및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연구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능성 있는 생활형 공원녹지 자원을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공공이 사용가능한 공공녹지, 공공/공익공간, 공용공간 및 기타 가용한 민간공간과 같은 다양한 대상의 생활형 공원녹지를 살펴본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계획 및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진단하여 향후 구에서의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로구 지역에 분포하는 생활형 공원녹지를 양적, 질적으로 비교하여 지역별로 대표성을 띠는 공원녹지와 앞으로 개선 및 특화 가능한 유형을 도출하였다. 구로구는 도시공원은 부족하지만 이를 대체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형 공원녹지가 존재한다. 각 유형별로 경우에 따라 정책적으로 공급되거나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평가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와 개선의 필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비록 여러 가지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실제 부족한 도시공원을 대체하는 공원녹지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구 단위 공원녹지 계획에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특성이 유사한 자치구에 적용 가능한 생활형 공원녹지를 조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정된 구로구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비슷한 성격의 도시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생활형 공원녹지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중요성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용자의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이 새로운 공원녹지 자원을 찾고 지역별 생활형 공원녹지의 전체적 분포현황과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개별 공원녹지의 심도 있는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형 공원녹지의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개별 대상지의 소유현황 및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반영되지 않아 기본방향 및 추후 관리방안의 제시에는 제한적으로 다룬 측면이 있다.

구로구와 같이 지역 내 도시공원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존 공원녹지 자원을 활용하거나 생활권 내에 대안적 공간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기존의 도시공원보다 생활과 더욱 밀접하며 노후지역의 녹색복지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조성과 개발이 아닌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도시환경에서 앞으로 공원녹지 계획의 방향은 지역의 현실과 사회적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질적인 공원녹지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지역단위 조사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토해양부 (2010). 공원운영체계에 대한 서울시 개선방향. 도시공원 개발 및 관리운영 전략연구.

국토해양부 (2011).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일상생활 속 공공공간 만들기.

김수봉 (2004). 공원녹지정책. 대영문화사.

Byrne, Jason and Neil Sipe (2010). *Green and Open Space Planning for Urban Consolidation*. Brisbane: URP.

Dunnett, Nigel and Carys Swanwick, Helen Woolley (2002). *Improving Urban Parks, Play Areas and Green Spaces*. London: Transport Local Government Regions.

Peter Harnik (2010). *Urban Green: Innovative Parks for Resurgent Cities*, Washington Island Press.

Mayor of London (2011). *The London Plan-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 London: Greater London Authority.

연구보고서

김수봉 (2006). 외국의 도시공원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원주 (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08).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조성방안.

산림청 (2007). 도시내 공원녹지와 도시림의 통합적 조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청 정책연구보고서. pp.135-141.

서울특별시 (2010).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제작(2차년도), 서울특별시 pp. 33-55.

양재섭 외 (2011).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자치구 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상민 외 (2007).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외 (2011).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학술논문

강명수(2005). 일본의 최신녹지정책 :도시녹지법과 도시공원법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3권 제2호 122~129.

강연주, 배정한 (2009). 공원녹지 네트워크와 유형화 - 서울 금호동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3): 3-6.

강준모, 김현정 (2007).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7(1D): 117-129.

구자훈 외 (2011). 서울시 골목길 담장허물기의 여부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활동의 양적차이 비교분석. 한국도시설계획회지 제 12권 4호. 5-20.

권기찬 (1999). 생활권 도시공원의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7(4): 129-137.

김묘정, 정지석 (2013). 아파트 담장허물기 유형별 가로공간의 물리적 환경변화 및 이용특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24, No. 2, 25－33.

김봉원, 이원아, 박순남. (2008).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 및 과제.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0): 57-64.

김연금, 최정민 (2012). 영국 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40(2), 86-96.

김용국, 손용훈 (2012). 도시계획체계와 연계한 그린 인프라 적용 사래연구-영국 그린 인프라 계획 및 정책을 중심으로.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7(6), 69-86.

김유일, 김정규(2011).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만족도-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6권 제1호.

김상희 외 (2011).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실효성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 12권 1호. 5-20.

김철홍 (2002).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이용자 특성 및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론집 14.

남택호 외 (2008). 서울시 구로구 산림비오톱 변화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pp36-37.

박정아, 한상열 (2010).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차별화 방안.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3): 57-76.

박진아, 최희수 (2011).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의 생활권 공원녹지로서 잠재적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건축학회지, 제 27권 제7호: 173-180.

박찬용 외 (2003). 대구광역시 도시근린공원의 유형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8

권 제6호.
사공정희, 외 (2007).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가녹지 조성 우선순위 선정. 한국조경학회지, 34(6): 10-21.
이재준 외 (2004).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관리체계 개편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2004-12: 3-14.
이주희, 박진아 (2008). 역세권내 역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3): 9-20.
이현욱 (2009).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의 분포특성과 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3): 27-40.
Chris Nicol(2000). *Classification and Use of Open Space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Urban Capacity*.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 15, No. 3, pp. 193- 210.
Chiesura, A. (2004). *The role of urban parks for the sustainable city.* science direc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8(1): 129-138.
Jacquelin Burgess, Carolyn M . Harrison and Melanie Limb (1988). *People, Parks and the Urban Green : A Study of Popular Meanings and Values for Open Spaces in the City*. Urban Studies 1988 25: 455-473.
Pincetl, S. and E. Gearin (2005). *The Reinvention of Public Green Space.* Urban Geography 26(5): 365-384.
Rodney H. Matsuoka, R. K. (2007). *People needs in the urban landscape: Analysis of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contributions*. science direc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4 (2008): 7-19.
Ting Liu, Xiaojun Yang (2013). *Mapping vegetation in an urban area with stratified classification and multiple endmember spectral mixture analysi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pp. 251-264.

학위논문

구나은 (2012). 쇠퇴지역 거주민의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의식과 요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효정 (2010). 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엄상근 (2008). 이용성을 반영한 도시녹지 평가 연구-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서

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윤윤정 (2007). 주변지역 특성에 따른 어린이공원 활용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정 (2012). 소규모 생활권공원의 용도지역별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용호 (2005). 공원녹지정책의 분석 및 방향설정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라영(2011).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의 보행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 구로구 조성 사례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기간행물

2012 구로구 구정백서. 구로구청 홈페이지
2012 구로구 통계연보. 구로구청 홈페이지
생활권계획수립기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3.8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자료
北区 緑の基本{計画 (키타구 녹의 기본계획)

홈페이지 및 기타

구로구청 홈페이지 http://www.gur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국가정보유통서비스 http://www.nsic.go.kr
서울도시계획포탈 http://urban.seoul.go.kr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 http://egis.me.go.kr
http://www.gigl.org.uk
http://www.nrpa.org
http://www.seattle.gov/parks
http://www.atlantaga.gov

Abstract

Study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reen Spaces based on Local Environment : The Case of Guro-gu

Min, Kyung-chan
Dep.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l Univ
Advised by Professor Son, Yonghoon

Recently, significance and demand on park and green space in urban living area have been increasing and utilization pattern by local residents has been varied. However, types and amounts of urban park which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natural and cultural difference are limited, and the supplies of new urban park in saturated urban fabric are in difficult situ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manage different types of green space which are practically utilized in loc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park and green space master plan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individual boroughs are facing.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at different types of green space being used as a park are distributed in local living area excluding urban park which are institutionally designated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including those resources. Therefore, in Seoul, Guro-gu which is a borough to be necessary to secure and improve its green space was selected as the study site. Green spaces in actual living area of Guro-gu were evaluated by its spatial and practical aspects. Overall, current conditions of Guro-gu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patial data, digital topographic map, and statistical data. After that, through field investigation, this

research was proceeded in order by analyzing current situations by types of green space in practical life, usage features, and physical properties of space.

In this process, four specific living area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uro-gu were selected. According to field study, distribution of green space and usage difference by regional groups in Guro-gu according to na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 are existing, and they are influenced by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degree, roles and sizes of main building in relevant area, local residents' life pattern, and their cognition of green space.

Urban park is so insufficient in Guro-gu compared with other boroughs that utilization of urban park and public open space are intensive and variable. On the other hand, utilization of small-scale green space tends to be sporadic and simple. Especially, individual flower garden, farmland, and neighborhood rest area are developed by exploiting abandoned or bare ground when there is no urban park adjacent to living area.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exterior spaces of buildings in church, supermarket, and laundry which have placed for a long time in local area have been utilized as commonly used small-scale spaces. Efforts of government and cooperation of local residents for sharing green spaces which have been segregated by walls in private land such as the School park and greening project in seoul, the Opened green creation project of apartment, and Community road project have broadly brought good results. Usage of mountains with high quality nature and greens by the river located in suburb are noticeable, and trails connected to them are actively being utilized.

Consequently, three kinds of green spaces which are mostly used out of urban park in Guro-gu were studied: the public open spaces in which public institutions create such as green by river, maeul madang, and neighborhood forest, the public enterprise and public utility such as green of school, street green, roof garden, and private-owned pocket park, the common use spaces which are opened or used by specific communities such as green of apartment, community farmland,

and neighborhood rest areas of religious or commercial facilities. Green spaces which representatively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community farmland around mountains, row houses, surrounding green of deteriorated apartment, and main alleyway.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fundamental research of planning or evaluation reflecting the actualities, which analyzed current situations of urban parks existing in urban area and various green spaces in actual living area. Secondly, b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mparing different types of green space located in the regions, and this study drew types which show region's representative and can be possibly improved and specialized in the future. Through these, this study suggested basic direction for expansion and management of park and green space of borough. Lastly, this study suggested investigation and access methodology which are applicable to autonomous regions having common region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Guro-gu in difficult circumstances for having urban parks in the area, it is needed to utilize detailed field study and evaluation because importance and demand are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s and types of green space.

As a result, alternative spaces in living area closely connected with living life are more likely to be improved and secured than existing urban parks, so, in terms of green welfare in less favoured area, it is expected to have high social effectiveness. Consequently, for green spaces securement and their qualitative improvement, intensive regional unit study and methodical management practices are necessary. In addition, researches supporting these should be continued.

Keyword : Urban Park and Green Space, Types of Green Spaces, Local Environment, Living Area, Guro-gu

Student Number : 2012-22070